

CBETA電子佛典集成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J39nB471


空谷道澄禪師語錄

清 道澄說

德儒編（依駒本增入並印）

財團
法人

佛教電子佛典基金會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序](#)
 - [目次](#)
 - [上堂](#)
 - [住四川成都府內江縣三聖寺](#)
 - [住重慶巴縣虎頭寺](#)
 - [住江津縣廣福寺](#)
 - [住重慶府觀音寺](#)
 - [住成都重陽觀](#)
 - [住聖壽寺](#)
 - [住北京慈濟菴](#)
 - [住白塔就華家寺](#)
 - [住山東兗州府曹州三教堂](#)
 - [住湖廣荊州府江陵縣祇園萬佛禪林](#)
 - [住祇園庵結冬](#)
 - [住遠安三化山朝陽庵](#)
 - [住南漳臥龍寺](#)
 - [復住祇園庵](#)
 - [住聖壽石牛寺](#)
 - [住溫江華嚴寺](#)
 - [住雲南雞足山迦葉殿](#)
 - [住雲南大理府大悲寺](#)
 - [復住溫江華嚴寺](#)
 - [住鄭崇縣蓮品山法忍寺](#)
 - [住寶光禪院](#)
 - [住大慈寺](#)
 - [復住寶光禪院](#)
 - [住荊州西城聖壽禪林](#)
 - [小參](#)
 - [入堂](#)
 - [機緣](#)
 - [聯芳頌古](#)
 - [毘婆尸](#)

- [尸棄](#)
- [毘舍浮](#)
- [拘留孫](#)
- [拘那含牟尼](#)
- [迦葉](#)
- [釋迦](#)
- [迦葉](#)
- [阿難](#)
- [商那和修](#)
- [優波鞠多](#)
- [提多迦](#)
- [彌遮迦](#)
- [婆須密](#)
- [佛陀難提](#)
- [佛陀密多](#)
- [脅尊者](#)
- [富那夜奢](#)
- [馬鳴大士](#)
- [迦毘 摩羅](#)
- [龍樹](#)
- [迦羅提婆](#)
- [羅睺羅](#)
- [僧迦難提](#)
- [伽耶舍多](#)
- [鳩摩羅多](#)
- [闍夜多](#)
- [婆修槃頭](#)
- [摩拏羅](#)
- [鶴勒那](#)
- [師子](#)
- [達磨達](#)
- [婆舍斯多](#)
- [不如密多](#)
- [般若多羅](#)
- [菩提達磨](#)
- [慧可](#)
- [僧瑤](#)
- [道信](#)

- [弘忍](#)
- [慧能](#)
- [南嶽讓](#)
- [江西道一](#)
- [百丈海](#)
- [黃檗運](#)
- [臨濟玄](#)
- [興化獎](#)
- [南院顯](#)
- [風穴沼](#)
- [首山念](#)
- [汾陽昭](#)
- [石霜圓](#)
- [楊岐會](#)
- [白雲端](#)
- [五祖演](#)
- [圓悟勤](#)
- [虎丘隆](#)
- [應菴華](#)
- [密庵傑](#)
- [破庵先](#)
- [無準範](#)
- [雪巖欽](#)
- [高峰妙](#)
- [中峰本](#)
- [千巖長](#)
- [萬峰蔚](#)
- [寶藏持](#)
- [東明昂](#)
- [海舟慈](#)
- [寶峰瑄](#)
- [天琦瑞](#)
- [無聞聰](#)
- [天心寶](#)
- [幻有傳](#)
- [密雲悟](#)
- [破山明](#)
- [敏樹相](#)

- [空自頌](#)
- [聯芳偈](#)
 - [付淨凡仟禪人](#)
 - [付惺來正禪人](#)
 - [付佛山清禪人](#)
 - [付滄璣逢禪人](#)
 - [付菱南直禪人](#)
 - [付參石峨禪人](#)
 - [付暹明開禪人](#)
 - [付徹明現禪人](#)
 - [付普拙正禪人](#)
 - [付明旨善禪人](#)
 - [付揮印位禪人](#)
 - [付璽旨勤禪人](#)
 - [付念如酬禪人](#)
 - [付香林仁禪人](#)
 - [付珠林海禪人](#)
 - [付古燈昌禪人](#)
 - [付興隆旺禪人](#)
 - [付仟展理禪人](#)
 - [付朶霄頂禪人](#)
 - [付湛清儒禪人](#)
 - [付徹通融禪人](#)
 - [付雪居陽禪人](#)
 - [付智能賢禪人](#)
 - [付靜融興禪人](#)
 - [付含潤慈禪人](#)
 - [付雲峰隱禪人](#)
 - [代峰頂徒付惺悟杵禪人](#)
 - [付玄明方禪人](#)
 - [付中先正禪人](#)
 - [付見雲聖禪人](#)
 - [付應天香禪人](#)
 - [付光輝淨禪人](#)
 - [付窮通指禪人](#)
 - [付正宗印禪人](#)
 - [付古佛綱禪人](#)
 - [付神悟直禪人](#)

- [付能仁威禪人](#)
- [付高安興禪人](#)
- [付智潔清禪人](#)
- [付佛海禪擎安居士](#)
- [付永明昌汪居士](#)
- [付冷觀胡居士](#)
- [付洪通房居士](#)
- [付剛直趙居士](#)
- [付佛應德成陳居士](#)
- [法偈](#)
 - [示惺來](#)
 - [示佛山](#)
 - [示明旨](#)
 - [示璽旨](#)
 - [示滄璣](#)
 - [示參石](#)
 - [示普拙](#)
 - [示揮印](#)
 - [示慧眼](#)
 - [示量洪](#)
 - [示念如](#)
 - [示輝海](#)
 - [示念萱](#)
 - [示香林](#)
 - [示心一](#)
 - [示珠林](#)
 - [示古燈](#)
 - [示興隆](#)
 - [示任展](#)
 - [示翀霄](#)
 - [示湛清](#)
 - [示越能](#)
 - [示松月](#)
 - [示徹通](#)
 - [示雪居](#)
 - [示靜融](#)
 - [示含潤](#)
 - [示佛海居士](#)

- [示永明居士](#)
- [示佛應居士](#)
- [示一念居士](#)
- [示自靜王居士](#)
- [示萬融](#)
- [示灼然](#)
- [示西傳](#)
- [示胤兆](#)
- [示宗胤](#)
- [示全慧](#)
- [行由](#)
- [雜述](#)
 - [行狀](#)
 - [離成都聖壽石牛行腳](#)
 - [方外自敘](#)
 - [十報恩總頂禮贊](#)
 - [成住壞空](#)
 - [地水火風](#)
- [拈頌古](#)
- [法派](#)
- [開示](#)
- [警策](#)
 - [示淨凡](#)
 - [示冷觀居士](#)
 - [示印天](#)
 - [示萬機](#)
 - [示萬休](#)
 - [示雲菴居士](#)
 - [示超凡李居士](#)
 - [示能凡湯居士](#)
 - [示德清尼](#)
 - [示直超](#)
 - [示必超](#)
 - [示楊居十三界無安](#)
 - [示秦居士](#)
 - [示慧超比丘尼](#)
- [法語](#)
 - [示工部擎安佛海居士](#)

- [示印直牛居士](#)
- [示大為楊居士](#)
- [示波南居士](#)
- [示離非盧居士](#)
- [示智海孟居士](#)
- [示眾善信](#)
- [普說](#)
- [雜頌](#)
 - [自嘆](#)
 - [圓明一性分三教](#)
 - [南海景題](#)
 - [出身原](#)
 - [隋方應化](#)
 - [仙景](#)
 - [坐觀](#)
- [讚](#)
 - [佛法僧](#)
 - [總讚](#)
 - [達磨](#)
 - [觀音](#)
 - [地藏](#)
 - [普賢](#)
 - [彌勒](#)
 - [伽藍](#)
 - [監齋](#)
 - [韋馱](#)
 - [羅漢](#)
 - [諸天](#)
 - [天王](#)
 - [五臺景題](#)
 - [密祖像](#)
 - [破祖像](#)
 - [敏師像](#)
 - [自像](#)
 - [廣濟律師](#)
 - [愍忠律師](#)
 - [諸山禮白塔](#)
- [壽](#)

- [壽順承王](#)
- [壽貝勒王](#)
- [壽蔡督臺](#)
- [壽李總戎](#)
- [壽康總戎](#)
- [壽陳護法](#)
- [壽鄆崇縣丘公](#)
- [壽劉居士](#)
- [壽傅居士](#)
- [壽吳居士](#)
- [壽艾居士](#)
- [壽廣文禪人](#)
- [壽惺悟禪人](#)
- [壽萬居士](#)
- [壽何居士](#)
- [牧牛頌](#)
 - [撥草尋牛](#)
 - [倏然見跡](#)
 - [捕步見牛](#)
 - [得牛貫鼻](#)
 - [得牛調馴](#)
 - [騎牛歸家](#)
 - [忘牛存人](#)
 - [人生雙忘](#)
 - [雙露雙收](#)
 - [入廄垂手](#)
 - [聖壽寺石牛頌](#)
- [法偈](#)
 - [示金山居士](#)——[順承王](#)
 - [示傳燈居士](#)——[翰林穆書](#)
 - [示佛海居士](#)——[工部肇安](#)
 - [示圓淮居士](#)——[戶部喇都虎](#)
 - [示明應居士](#)——[戶部馬爾泰](#)
 - [示明奇居士](#)——[戶部何關保](#)
 - [示德祥居士](#)——[戶部趙有仁](#)
 - [示德永居士](#)——[駕前王廣生](#)
 - [示榮陞居士](#)——[守府劉君寵](#)
- [示偈](#)

- [示福田賈居士](#)
- [示天柱陳居士](#)
- [示福直](#)
- [示善長](#)
- [示傳燈](#)
- [示長松](#)
- [示漢雨](#)
- [示天破](#)
- [示秀文](#)
- [示法空](#)
- [示高隱](#)
- [示廻超](#)
- [示仁超](#)
- [示福超](#)
- [示自超](#)
- [示天都](#)
- [示直印](#)
- [示東風](#)
- [示壽翁王德賢解元](#)
- [示佛解孔白眉](#)
- [示歸宗](#)
- [示玄明](#)
- [示中先](#)
- [示彼岸](#)
- [示智海](#)
- [示萬有](#)
- [示舒展](#)
- [示剛直趙居士](#)
- [示金相寺戒子](#)
- [示光大](#)
- [示學人](#)
- [示悟超](#)
- [示昱霽](#)
- [示遍知](#)
- [示徹明](#)
- [示靈碧](#)
- [示慈日](#)
- [示天池](#)

- [示證超](#)
- [示印光法侄](#)
- [示悟休](#)
- [示無量](#)
- [示非洗](#)
- [示瑞峨](#)
- [示瑞峰](#)
- [示長日](#)
- [示如月](#)
- [示遙聞](#)
- [示慧日](#)
- [示廣聞](#)
- [示沙界](#)
- [示追悟](#)
- [示念慈](#)
- [示密洊](#)
- [示渡瀾](#)
- [示湛清](#)
- [示湫峨](#)
- [示惺悟](#)
- [示坤木](#)
- [示德參](#)
- [示瀟滋](#)
- [示永盛](#)
- [示萬融](#)
- [示羅列](#)
- [示光華](#)
- [示文居士](#)
- [示女居士德福](#)
- [示鄭弘春](#)
- [示德元高居士](#)
- [示高二居士](#)
- [示陳居士](#)
- [示佛種](#)
- [示撒手](#)
- [示總持](#)
- [示聯應](#)
- [示李居士](#)

- [示永證](#)
- [示如山](#)
- [示天生](#)
- [示善同](#)
- [示壁端](#)
- [示法藏](#)
- [示見佛](#)
- [示參微](#)
- [示清白](#)
- [示西來](#)
- [示挽回](#)
- [示長春](#)
- [山居](#)
- [五言律](#)
- [佛事](#)
 - [七月賑濟](#)
 - [燬百靈](#)
 - [哭雙桂破師翁](#)
 - [哭敏師和尚](#)
 - [涿州弔易菴法叔](#)
 - [為雲水僧舉火](#)
 - [為長日舉火](#)
 - [北京為滿洲吳夫人起棺](#)
 - [京師為福祐張居士起棺](#)
 - [江陵縣尊請對封君唐耕留先生靈小參](#)
 - [對都統穆書靈前小參](#)
 - [弔至崖法弟](#)
 - [回川抵萬縣掃本師敏老人塔](#)
 - [夔府開元寺弔繼初法弟](#)
 - [萬縣天圓寺弔耳獨法兄](#)
 - [交水龍華寺弔余山法兄\(時甲子仲春也\)號知止](#)
 - [回川三月過坪壩天臺山弔月峰法姪](#)
 - [重慶府觀音寺為沔超對靈](#)
 - [溫江縣尊王封君靈前小參](#)
 - [弔耆老大相葉奕](#)
 - [\[邱-丘+牟\]縣玉泉寺弔其白法弟靈](#)
 - [崇寧聖像寺弔滄水法弟](#)
 - [新繁龍藏寺弔大朗法孫](#)

- [十方縣羅漢寺弔雲林法侄](#)
- [書問](#)
 - [附敏和尚原翰](#)
 - [師復書](#)
 - [敏和尚復啟](#)
 - [遵義府海龍山謝法](#)
 - [附敏老人送衣書](#)
 - [附吼兄原扎](#)
 - [復順承王爺千歲啟](#)
 - [復工部郎中擎安德禪居士](#)
- [卷目次](#)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贊助資訊](#)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4」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 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空谷和尚語錄序

直指一宗掃萬除千即以函天蓋地既以世諦色聲同諸影草仍能使山河大地森羅目前蓋誠云言思道斷發覆兩難者矣爰自初祖獨智開天直續老迦文一笑之慧命立宗屏絕言詞至天童老人為極巖亦惟老人為極盛矣老人十二子第三子為破山明明老人得法後蜀紳士請弘法于蜀值蜀芝巢之後土漢世裔兵寇交訌即和尚道法感人林巒盡為氛障頃老人以佛圖之望如狎海鷗更止殺之權如吐蜚子是以會下賢聖若雪臂若敏樹人人傳衣鉢矣空和尚為是時上座其與法席日在轉徙危疑間乃充益炳心燈益參最上歷象崖破浪以至大家峒道成諸方針扎爐鞴鉗鎚而樹和尚正急得人始付衣拂促令行化矣原夫和尚自兵劫中獨以性命殉法道直以神光斷臂之心俟慧能米槽之熟者以此論行是為真行以此論解是為真解行解相應超然名之曰祖師有之矣道法既崇四眾欽仰師逢險倍安逢灰轉熾藩鎮宰輔大臣罔不皈忱問道者茲語錄二十餘卷之所繇成也計荊自寇警以來奉簡命以親藩秉鉞最先體恤地方號三佛特選祇園勝地迎和尚開法以正人心提佛乘以息奸妄軍民顙仰者咸以爰清爰淨之理鼓求忠求孝之心以大慧大慈之仁神大勇大雄之用果爾長江之飛渡破竹勢成底定可立待矣整旅稍暇輒思率佛弟子用報佛恩而先梓行師語錄以廣法施荊土庶踴躍焉予愛而冥參重師之以直指得了義也夫祖禪印證惟貴本地風光以師之正大接人頭端尾直以師之圓明方便四照六通古有床上接有床下接苟世不必盡上根正令所提萬心畢照有不十智同真也哉惟師與賢王闡善世牖民之教而藩王旋懋安邦定國之勳則惟和尚大傳燈指月之法于以上接天童而嗣法破山老人樹和尚也又何異焉。

時康熙己未之仲冬月穀旦葦漪八十五法弟子報菴王文南敬題王言為序

空谷道澄禪師語錄目次

- 序文
- 目錄
- 卷第一
 - 住內江三聖寺語錄二十四則
- 卷第二
 - 巴縣虎頭寺語錄九則
- 卷第三
 - 江津縣廣福寺語錄十二則

- 卷第四
 - 重慶府觀音寺語錄六則
 - 成都府重陽觀語錄三則
 - 聖壽寺語錄四則
 - 北都慈濟菴語錄二則
- 卷第五
 - 住白塔就華家寺語錄一則(都門)
 - 曹州三教堂語錄九則(山東)
- 卷第六
 - 荊州府祇園菴語錄十一則(湖廣)
- 卷第七
 - 祇園菴結冬語錄十四則
- 卷第八
 - 遠安縣三化山語錄七則
 - 南漳縣臥龍寺語錄四則
 - 復轉祇園菴語錄四則
- 卷第九
 - 成都府聖壽寺語錄五則
 - 溫江縣華嚴寺語錄一則
 - 雲南雞足山迦葉殿語錄一則
 - 大理府觀音寺語錄二則
- 卷第十
 - 溫江縣華嚴寺語錄十七則
- 卷第十一
 - 寶光寺語錄十二則
 - 大慈寺語錄一則
 - 寶光寺語錄八則
- 卷第十二
 - 荊州府聖壽寺語錄六則
- 卷第十三
 - 小參
 - 入堂
 - 機緣
- 卷第十四
 - 聯芳頌古
 - 聯芳偈
 - 法偈
- 卷第十五

- 行由
- 拈頌
- 卷第十六
 - 開示
 - 警策
- 卷第十七
 - 法語
 - 普說
- 卷第十八
 - 讚
 - 壽
 - 牧牛頌
- 卷第十九
 - 法偈
 - 示偈
- 卷第二十
 - 山居
 - 佛事
 - 書問

空谷道澄禪師語錄卷一

嗣法門人德儒編

上堂

順治十三年乙未三月初一日眾檀等請住四川成都府內江縣三聖寺於庚子歲十月十五日結制至殿門舉杖指云者門庭三世諸佛從此入歷代祖師從此出山僧來到向此住雖然前後不同其實難離者個一卓進殿佛前云雄雄一老賊亙古烜威赫惑亂世人心連我也拖拽窄路來相逢不容不恭竭展具三禮座前云分明春光一色平地豐滿奇特若是法爾如然先將烏藤決策劫前一段真風不免陞座告白便陞座拈香云此瓣香八面玲瓏無枝無葉迴迴空生頭頭活徹信手拈得來證盟廣長舌爇向爐中專伸供養萬德至尊釋迦文靈山一夥顛蹶漢遺場禍害到如今次拈香云此瓣香孤明四海獨曜五湖德燄庇三千功勳資沙界爇向爐中端為祝延今上皇帝聖躬萬歲萬萬歲皇后齊年東宮殿下睿算千秋再拈香云此瓣香同生樂土共長乾坤衍萬代之龍孫成千秋之美玉爇向爐中奉為諸藩王殿下滿朝文武闔國公卿遠近檀那護法宰官居士惟冀鼻端同孔眼舌廣共

撩天復拈香云此瓣香苦志忘形奮琢成披星帶露培根固源頭次第長西乾一花五葉發東土熱向爐中專伸供養臨濟正傳第三十一世上敏下樹本師和尚用酬法乳之恩蒙師毒手至今快痛徹千生不敢忘斂衣敷坐維那白椎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拈起拄杖云若道者是第一義觀面相呈無向背縱橫殺活見分明知音決勝在今日者裏有知音者麼出班與山僧相見僧問父母非我親誰是至親師云認真還自在作假費工夫進云四生是我冤誰是知音師云三暑水能止渴九冬火可稱心僧問祖燈正脈傳三聖學人可見麼師云大地未收藏進云令學人向甚處見師打云棒頭落處痛難忍不孝父母怨玄黃問截斷眾流一句如何道師云棒喝不順人情僧作禮師云又成情也問龍宮燒到三十三天和尚可救麼師云可救進云如何救師云汝燒甚處僧展背出師云難救問優曇鉢花三千年一開而今開未師云枝枝葉葉上現真如問佛說三大藏為甚麼未道著一字師云誠實之語進云說的是不說的是師云總是總不是進云此事又如何師打云盡思共度量不能測佛智進云畢竟是個甚麼師復打云惟佛與佛乃能知之乃云不以知知不以識識三界有情心無二覓動靜施為不借他力像貌無量形殊各質者點造化凡聖同一千般形類等虛空萬象森羅共月日舉杖示眾云者個道理不屬五行豈受陰陽本自圓明縱橫無礙若向者裏會得眾生即佛從此不了佛即眾生山僧今日門庭不順人情若會與三十棒不會亦與三十棒舉世尊在忉利天為母說法優填王思佛命匠彫栴檀像供養及世尊下忉利天像亦出外迎世尊三喚三應乃云無為真佛實在我身且問大眾真佛是那個身咄從頭仔細看到底沒兩個三喚即三應真佛還是我呵呵栴檀與瞿曇謾作兩處剖。

上堂師云放開體用雙彰露出千行萬行智若馬鳴通身口當頭一句絕思量還有出得身者麼出來與山僧相見問善惡不生時如何師云土木瓦石進云種種心生如何師云蝦蟆老鼠進云生與不生俱不是如何纔是師云山青水綠家有真佛僧作禮師云龍躍水頭高鵬飛千里杳問不明生死如何師云情繁事障智大理障因此不明進云理事融時如何師云琴堂生瑞草好事不如無問一息不還是個甚麼境界師云虛活活地乾爆爆地進云必竟在甚麼處師云東村作牛西村喫草進云即今又成個甚麼師云獨角虎兩翅蛇進云學人近前得麼師云窮源絕頂轉身易直至懸崖撒手難問不立棒喝以何指示後學師云隨機應酬進云倘無機緣問答時如何師云喫飽飯睡死覺進云坑殺死人師云天下墮坑入塹者廣多豈肯死卻真正的一個進云如何是真正的人師云近前來向汝道僧近座師連打三棒云真正的人問如何是生死師云枯木中龍吟古殿裏發燄進云如何是不生不死師舉杖示云者個是甚麼進云不會師云正向不會處疑進云疑情片片不開師云放下著僧作禮求開示師云放下齊放下勿留絲毫挂喜的一坦平畏的路途岔疑情發不起尚且易說話博古問先知工夫易融化久坐沉潭水切防事臨危知非速便改佛昔亦如此慎勿妄捏角話頭平平舉如

人千里還到家知所止鍛金不復礦雪溶已成水水流歸大海汪洋一片洧金石治國寶世間更無比比修禪定人堂堂一佛子多少大丈夫皆同者道理十方三世尊老君與夫子打鼓弄琵琶貫串皆一體自分三教後各家論性理頭腦縱千般理地不離此不明源頭一著向外問生問死舉杖示眾云會麼若道者是有生死埋沒虛空辜負天理若道者是無生死玉兔東昇月沉海底呵呵兩箇胡僧一樣臉嘴舉文殊問庵提遮女曰生以何為義女曰生以不生生為生義殊曰如何是生以不生生為生義女曰若能明知地水火風四緣未嘗自得有所和合而能隨其所宜是為生義殊曰死以何為義女曰死以不死死為死義殊曰如何是死以不死死為死義女曰若能明知地水火風四緣未嘗自得有所離散而能隨其所宜是為死義庵提遮女問文殊曰明知生死是不生之理為何卻被生死之所流轉殊曰其力未充在山僧分中則不然若有問明知生死是不生之理為何卻被生死之所流轉宜答云性空常自在迷雲妄逐流不是文殊道不出只因庵提女知見多所以山僧常教大眾離卻見聞覺知始得。

臘八上堂師云波濤汎濫月江穩岫嶠嶮峻日昇高泥蓮河下睹星悟靈鷲山中風鼓騷伸手摸拄杖云識麼世尊登獅子座拈花山僧座無畏床摘果且道昔日靈山金朝三聖是同是別乃花乃果仍揮拂云會麼靈山老人說法時花開山僧當機時果熟向人天會中摘來拋在虛空豎立當然大家出頭來嘗個滋味好問如何是因地一聲師云跳出金剛圈不算唧溜進云跳出圈時又作麼生師云是法住法位世間相常住問滋味如何嘗師云只在吞吐間進云吞者如何師云精脆脆進云吐者如何師云寡澀澀進云一吞一吐如何師云當著不著進云不吞不吐如何師云全忘不忘僧作禮師云莫作道理會進云作甚麼會師打云打破虛空碎問如何是三聖境師云白虎山為藏虎穴青龍塘作養龍池進云如何是境中人師云一幅王維畫千秋香蹟名問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峨眉光燦爛直射雷洞坪進云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普賢騎象王下山不見影進云如何是人境兩相奪師云碧崖獅子吼玉海龍分合進云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變大地作黃金攪長河為酥酪問大悲現千手眼如何是正眼師云拄杖畫一圓相云覷進云不會師以偈示云大悲手眼亂如麻指出虛空那算他跳過圓圈覷正眼別生趨向眼添沙問至道無難誰嫌揀擇向甚麼處揀擇師云山僧今日拄杖子懶提話也懶答進云只是不揀擇如何是揀擇師云你同甚麼人來僧無語師云山僧不答不答曲強要問等得復他他又無言至道是難無難其僧作哭聲師呵呵笑乃云是星拱北是水歸東梅花追春景梧葉逐秋風而今正是收藏之際何須曲為拈提且道拈出個甚麼以拄杖一卓云一葉落天下秋一塵起大地收有意氣時添意氣無風流處賣風流雖然如是也是照孔著楔亦是撥出人眼今朝光灼灼為爾拈出赤灑灑現在當然有眼者見有耳者聞除此見聞覺知且道甚麼消息一喝云浮雲鬢鬚山色白野鶴飛來水情清下座。

上堂師云兩堂雲水客都是利嘴僧老僧纔開口慣來釘門釘唯有今朝不許來問話出來者打殺時有僧出師以杖一指云緊顧性命其僧退去師擲下拄杖撫掌呵呵云打退不若嚇退下座。

一會善姓設齋請上堂求開示師云一會善男女同個心與性三大劫前共一會今朝覺起還相認舉拂云且道認得山僧者個麼此是威音那畔消息因甚不具眼復舉杖云還識麼若論者個道理隨拈即是頻取即真本無包藏覆蓋現在山僧手裏隨機發用借物安名實際理地體若虛空老僧今日說破要知末後端的咄如何是端的一句良久云形雖男女分妍醜貴賤賢愚一性靈眉毛剔起返觀照諸佛原是眾生成舉舍利弗問天女曰何以不轉女身女曰我從十二年來求女人相了不可得當何所轉即時天女以神通立變舍利如天女女化舍利乃問何不轉女身舍利答我今不知云何轉面而變為女身老僧先不言佛性本無男女祇在一念轉變受生之身而有男女雖言如是天女縱有神通難躲火宅三災舍利被他轉變跳出劫外稱尊喝一喝下座。

上堂師云了卻孽障本來空未了應當償俗債且道了個甚麼莫不是士庶齊家之心未了王侯治國之心未了若論此事上老下孝上長下弟上恤孤而民不倍亦絜矩之道已矣還有甚麼不了的莫不是一腔熱血乾枯一吸冷氣消散只恐那時間腳忙手亂不能作得主麼恍恍惚惚間不知生從何來黑漫漫地不知死從何去果是者些子不了也還救得一半還有一半附在山僧者拄杖子一了百當去以拄杖畫一圓相向相中一卓云迷時悟時不離者個道理了與不了更無兩處安排不二安排一句如何道大千沙界拈來盡在一毫端百萬須彌識得何常離方寸舉摩訶迦葉尊者一日踏泥次有一沙彌見乃問尊者何得自為者曰我若不為誰為我為老僧告眾原來此事不共他有實在親下手始得山僧十二發狠出家精誠持戒竭力參禪方有今日所以佛言作白業受白業作黑業受黑業山僧者裏不然假作惡業深如海只在回光一念真識得屠兒日用處作孽原來成佛人以拄杖一卓下座。

上堂師云瞞天說價不如就地還錢不怕骨董只要貨賣當時山僧自從三十年前收得一件物豬不喫狗不聞直至而今無人酬價擬將示於士民似乎淡而無味擬欲告於宰官未必信而海納擬去進於朝廷惟恐明珠見刖不如自放自收且道有多少貴重或時不值文錢或時充滿大千世尊曾受人王山僧拈在當然分明指示大眾大家都要著眼舉菩提達磨因般若多羅尊者受香至王尊重供養無價寶珠以珠示問此珠圓明有能及否磨曰此是世寶未足為上諸寶中法寶為上此是世光未足為上諸明中心明為上此珠光明未能自照要假智光光辨於此然則師有其道其寶自現眾生有道心寶亦然試問大眾尊者圓明寶與山僧無價珠誰貴誰賤眾無答喩若不識貴賤還取本人去下座。

上堂師云法不孤起仗境方生道無定方隨機而用且道是甚麼機莫不是崖前石虎吼水底泥牛嘶若是者個東西緊防性命休去當頭山僧退去耳不願聞執杖作怕勢下座。

除夕上堂師云今朝三十數盡明日從頭數來惟有者個時節無論貴賤賢愚卻被他瞞有不受瞞者麼僧出師叱之云受瞞來耶其僧退去師笑云受瞞去耶還有不受瞞的麼眾齊聲一喝師云任伊喝到劫盡日枉步徬徨卻被瞞問如何纔不受瞞梁皇尚且覲面錯九年面壁等知音問三十日到來事如何師云神愁鬼哭問年盡月盡此事有盡麼師云月缺日圓問如何是盡底一句師云龍宮海藏別有天問三聖門開為甚麼人設師云惟接上上機進云某甲亦望接引師云把手牽人行不得為人自肯乃方親問中下機能修悟道否師云修證即不無染污即不得乃云腳忙手亂在今日七顛八倒在此時所以云閒時辦得就急中方得用如今正是三十黑臉老漢打算飯錢將何抵對老夫不得不預先為眾告過臨岐失措怪不得老僧矣問和尚將何抵敵師舉起拄杖云老僧者更利害十地聞之腦裂佛魔向此喪身有不喪身失命者聽山僧者棒的作用拈起時如靠山猛虎放下似入水蛟龍又如倚天長劍括地金欄不啻一棒能全殺活之機尚有起死回生之妙喝一喝云打開八面玲瓏齊唱堯天舜日下座。

元旦上堂拈香竟云今朝是元旦觀心默自歎無何報四恩掬水勤三換佛敕孝為先普天香爇散任從百味磊如山豈敵尋常彈指觀良久云報恩已竟。

上堂師云頭頭不漏風法法不住腳且道向甚麼處著眼豎杖云山僧者拄杖原來不欠虧本不有覆藏應物而現形隨事而消長咄又露風住腳也舉南陽慧忠國師因肅宗問如何是十身調御師乃起立曰會麼帝曰不會師云與老僧過淨瓶來又曰如何是無諍三昧師云檀越向毘盧頂上行帝曰此意如何師云莫認自己清淨法身且問大眾國師酬機起立處有何虧欠隨宜使用喜得是佛心天子一坦平過虧我國師善能放收若是蜀賓國王具得有分殺人不眨眼的手段且問國師向甚麼處安排若向者裏收煞不下不啻淨瓶沒處挂一時太羸生下座。

上堂師云遍空無雲翳看來事事舒拈起頭頭覺切擬辨精羸有不辨精羸者麼問如何是道師云三腳驢兒弄蹄跳進云如何是禪師云岩前石虎抱兒眠進云如何是法師云但著一字刺眼瞎進云如何是僧師云白玉無瑕包納乾坤進云如何是娘生面目師揮拂云見麼敲爐云聞麼僧作禮師云若向者裏有見有聞則不然更討個端的是好問如何是捷近西方師以拄杖指丹墀云丹墀下已湧八功德水行臺上早生七寶行樹乃云彌陀豈在西方處處利生放光觀音何獨南海隨心方方脫灑勢至道場西域未曾舉念先至文殊亦非五臺稍纔心動疾來普賢安止峨眉利生行緣隨宜舉掌示眾云見麼阿彌陀佛併及四大菩薩時聞山僧在此寶華臺上讚揚諸佛功德各乘獅子白象麒麟水獸至山僧掌上運大神通各住一指頂上顯大

世界轉大法輪宣揚妙法教化眾生奈何大眾有眼不能見有耳不能聞山僧只教汝等正向不見不聞處取討一個端的去且道如何是端的一句良久云緊把繩頭牢拴定是誰前去分東西剛纔一念微微舉剎剎塵塵花雨飛。

上堂師云輝天鑒地不同日月之明耀古騰今全藉智慧之鑑昔日老古錐多順人情三頭兩面今朝在山僧分中則不然腳踏金剛毖手把金剛劍有人出頭來性命難得算有不避鋒鋌者出來與山僧相見僧出師便打僧喊云屈屈師云正好筭問佛為三界師何故評論師云因他自尊故遭人論進云學人論得和尚麼師云有為者亦若是問學人鈍機望師開示師舉杖云會麼進云不會師一喝云會麼進云不會師良久云會麼進云不會乃云光灼灼赤灑灑淨裸裸盡淨與汝說過了因甚不會總為爾等盡向聰明知見處思惟卜度有文有學處執耶或向空空無所有處以成許多解路上的活計去耶故此不會無心處現真如無法處演妙藏無言處談最上乘文不加點處通達三藏故云一念不生全體現六根纔動被雲遮還會麼若不會聽吾一頌不達心頭一味禪思惟卜度到驢年死心空坐皆同病閉目抽添鬼子玄但把本參如鐵橛虛空拶碎陰魔燭下座。

上堂師噓一聲云吹法螺兮擊法鼓布慈雲兮演今古舉杖示眾云者個是今是古山僧正要個不通今古的相會問世有不讀五車書不達現前句如何了卻生死師云文章雖是人天眼不了豈從紙墨尋進云古人既了生死即今安在哉師打云饒君讀盡世間書未識書中半箇字問大地喚作眼看箇甚麼師打云惟看瞎驢跛鰲乃云大地喚作眼棒頭認不的小盡二十九大盡有三十不知真下落費盡眼骨力一點圓陀陀今古尚難識咄月罷又初一。

上堂震威一喝云山有崩水有滲桑麻海屋無窮盡道風扇處聚人天法雨灑時三有潤所以佛法無窮盡虛空無盡山僧利生海願無盡口喃喃只教仁者自參悟自休歇何故勤來朝參暮請有箇甚麼說處不聞釋迦老人說法四十九年會集三百餘處未嘗道著一字世尊云吾滅度後有諸眾生道吾有法可說即謗如來十方諸佛實無一法與人所以須菩提無說而說釋梵天無聽而聽且道山僧者裏是有法說耶無法說耶未必教與諸人頭上安頭畫蛇添足耶者件虛事決定不為實無法與人若有法與人雲門不道人盡有光明在看時不見暗昏昏且道以何方便良久云早有佛法耶呵呵雖然聊通一線也是人情可做欣然做得留情處且容情下座。

上堂師云降龍伏虎幾番驚駭人天平實商量盡是一場扯淡高山紫氣騰騰乃是乾坤造化平地煙雲疊疊俱是宇宙生機難道溪小得容鰲未必海寬肯納屍鄧天君雖然呼風喚雨無非濟物利生赤帝子拿妖捉怪尚有把住放行俱是興上皇之風開正覺之道大悲運物若兩儀之覆載應機設化猶四序之生成領悟各殊其源皆一驀拈拄杖示眾云信得及麼老僧者莖

拄杖能覆大千沙界能持百億須彌呵呵尺鷃只知笑大鵬井蛙那肯信滄海下座。

上堂師云佛法充洽由誰可得孝帝曾得燒香禮拜金人獲於甘泉浮圖齋自漢時楚王尚得披服受持摩騰蘭乃中國沙門之始直指傳係華夏祖道之初直至斯時警歛而成妙旨跌蹠以為神通舉禾山揮拂云看者箇在臨濟則照用齊行在雲門理事俱備在曹洞偏正協通在為山暗機圓合在法眼行止惟心噫慧方自^己無骨力爬搥扯草湊籃未嘗夢見諸老山僧分中不然舉拂云會麼十方諸佛到此如聾似啞歷代祖師者裏鉗口結舌此中還有道得者麼眾齊聲一喝師云咦超過佛祖師一頭下座。

上堂云化日高懸十方盡成春景甘雨遍空大地同霑膏澤者裏一雨普潤還有焦枯者麼一雲普覆還有熱惱者麼若無山僧利生之心了矣若有木上座代眾與雲佈雨去擲下拄杖云三十年前只愁攀不著如今祇圖推得開舉丞相張無盡常云先佛所說於一毫端現寶王剎坐微塵裏轉大法輪是真實義所以欲明千古事須看咫尺間且丞相白日見鬼睜眼說夢只知鳳凰展翅豈知鰲魚翻身那時喜是自歎若向明眼人道攔腮一擲祇是你不真實妄起是非咦謾把白沙作玉粉休將赤土當黃金。

上堂問了無一法即如來是則名為觀自在和尚分中又何如師良久云會麼進云不會師以頌示之曰若明一法一如來得聽一音一觀音是法不離一切法盡是本元妙覺心乃云弘通三際道貫十方總不離者拄杖子擲下拄杖云連者些子也用他不著且道又作麼生撫掌呵呵祇向者裏笑一聲^已矣舉雲門上堂云函蓋乾坤目機銖兩不涉世緣作麼生成當眾無對由此論之連山僧者一笑聲猶是粘泥帶水山僧而今哭不是笑不是舊冬天寒中風唯只咳嗽一聲止他不得連聲咳咳咳遂歸方丈。

上堂云庖犧無曆日秦漢有春秋人老鬢邊皓樹凋葉上收物人同造化返復入常流虛空含萬象光明處處周萬象情緣有生滅古今憂化化生生事浮雲電泡漚寧向生前死莫待死後休生得死不得同凡人世流死得生不得沉淪轉九幽不明現前句句步步踏荒坵跣山宜絕頂渡水到岸周火宅不久固苦海須覓舟佛以三界為火宅山僧變大地作清涼一切眾生沒在苦海渡過便好一喝云者一喝迸開眾生無明殼打破生死關截斷輪迴索天地未判時陰陽誰卜度一段如如體安然無分合任是大悲千手眼通身有口也難說舉杖示眾云者裏還有說得者麼試道看眾無語師云千古萬古移他不得舉證空禪師因裴相國入大安寺問諸大德羅睺羅以何為第一曰以密行為第一裴不肯遂問此處有何禪者時師在園種菜遂來問羅睺羅以何為第一師曰不知裴便禮拜曰破布袋裏珍珠所以云不逢劍客休呈劍未遇知音少拈提雖然如是也是瞎眼雞[春*見]著米頭假如丞相任前不肯不啻求榮亦且沒趣大眾識麼且道裴相國禮拜是重他是愧他謾道不知是第一不知^已落第三機下座。

上堂問靈山一曲何人調得師云鐵嘴禪和沒好音進云兩岸羅叉手都是弄潮人師云欲想鱸鱉先學搬罾問仙家以魚鼓簡板為樂儒家以歌舞琴棋為樂和尚以何為樂師云山僧自有調曲人進云滿堂啞巴漢只好說春師云牛皮燈籠亮不透進云和尚何不舉出師云有甚包藏乃云揚千古風盡在者裏作萬世模不離此處且道此處有何奇特大地難逃一撮土四海總歸一滴泉滿空皆同一吸風前後化行一復然以拄杖畫圓相云此地他方盡空法界皆同者箇道理瞞他不過且道是甚麼道理喝一喝云崑崙山上一槌鼓四海龍宮齊著驚落得山僧打一笑草木盡同古佛心舉備宗一禪師因雲峰指火曰三世諸佛在火燄裏轉大法輪師曰近日王令稍嚴峰曰作麼生師曰不許攙奪行市且問大眾山僧者拄杖頭轉得麼擲下拄杖云又向甚麼處轉呵呵一毫頭上空寂寂百燄光中自如如。

上堂云當日趙州道箇麻三斤山僧稱來止有四十單八兩想是那老漢耳聾眼花錯認定盤星時下有不錯認者麼出來與山僧相見問乾坤為秤日月為星稱箇甚麼師云乾屎橛子進云值甚麼價師打云朝打三千暮打八百進云為甚如此師云因汝不識貨進云茄子王瓜意如何師云屬鹽的鹹屬醋的酸進云六味調和師云無你下口處問業識茫茫將何作主師云曾造何業進云諸業俱備師云善哉善哉高人耶智人耶進云和尚分上如何師云見現即親見物即真進云境物不立時作麼生師打云好消息僧禮退師乃云好消息好消息知音不費半毫力舉目揚眉答上機拈拳豎指當人識絡索千番萬番盡同者番說甚三乘五乘總歸一乘拄杖子亦是方便者箇元字腳豈安在哉爾諸人向者一撇無容處摸索一點無安處點檢摸索點檢得出報與方丈山僧豈肯辜負那時間不枉大眾今日在此晝夜磨灰纏上點檢不出只須驢腳即佛腳我手即佛手南泉斬卻貓兩堂都喚口噓者裏不薦取更向何處剖。

上堂云宗風鼓扇處草木活如龍法雨流通處土石明似鏡驀拈拄杖示眾云且道者是鼓扇是流通若道者是鼓扇虛空烜赫無涯岸若道者是流通大地山河一掌中午時星斗現半夜日頭紅青山無間地綠水有鱗鯨所以釋迦老人靈山說法風化三千大千無方不週無處不普聞而深信者善根增長讚誦禮拜者獲福無量參悟深窮者見性明心三世諸佛同一鼻孔歷代祖師共把鉗錘總要一箇信字而已矣何故獨說箇信字信者道源功德毋信者諸善之本信者究竟解脫之方向信者成佛作祖之徑路信得及一言透徹三藏明了信得及諸佛眾生一體同觀佛性種子無二無別信得及三世諸佛把手併行十方如來同塔趺坐迷與悟無欠無餘凡與聖無剩無虧識得者箇天真明妙從來不增不減不垢不淨無去無來無死無生只因眾生而有種種差別貪愛執著妄生顛倒起諸善惡業緣故此而有六道四生者輪迴生死苦惱也所以慈仁大覺釋迦文佛愍念眾生設權方便開宗演教末後拈花首傳迦葉燈燈續燄祖祖相傳而至吾師六十九世仍授吾儕揮弘法化道利群情鼓扇宗風流通正印故此今日只得挺身出來與諸

後學作箇綱要立箇龜鑑且道如何是龜鑑一句有智若聞則能信解無智疑悔則為永失珍重珍重下座。

解制上堂云八字打開另作商量捲包收杖論甚高強問百期圓滿何處再安排師云道泰不行法王令時豐同樂太平春進云學人他日如何行履師云龍用鉢降虎以錫伏只要無心天人擁護乃云壅圖獅奮舞廊畫鳥嘶催樵子長歌路漁翁罷釣回虞絃絲另緝楚笛竹重栽吩咐諸禪衲閣樓門正開擲下拄杖云大家脫灑去法幢豎再來眾禮竟下座。

順治十八年辛丑住重慶巴縣虎頭寺結夏至殿門以拄杖畫一圓相云唯有者箇圈子人人都向者裏透過便好撩衣進云陟山知高低履水覺淺深惟有此處但識進退始得佛前一喝云賊面雄心抹殺人一場大事實非輕三千界裏齊撩亂八萬門中弄風聲滿腹文章盡吐洩遺流三藏教群英而今張挂太平令不許狐疑錯用心院主請上堂近座云天晴日朗地白風清人和時至物秀春臨打開實相尋原主擊碎虛空問覺靈陞座告香云此瓣香龍吟虎嘯鸞舞鳳鳴根深盤法界葉大蓋乾坤拈爇爐中奉為當今萬歲萬萬歲皇后齊年太子千秋伏願千邦進貢難稱意萬國來朝可遂心次拈香云此瓣香五葉彌繁霑德雨四時盛茂賴仁風拈來爇向爐中奉為各藩殿下睿算千秋文武百官福壽無疆永作擎天玉柱長為架海金梁復拈香云此瓣香光前裕後分枝發葉無邊際長蕊開花遍界香此是第二回拈爇爐中供養臨濟正傳第三十一世上敏下樹本師和尚用酬法乳之恩伏願百萬須彌齊點首無邊香海玉龍朝斂衣趺坐維那白椎竟師云不鼓自響不鐘自鳴內外高低遠近齊聞以拄杖一卓云未聞者聽僧出作聽勢師良久云聽麼進云聽師云拄杖與虛空作麼商量僧無語師云也是布袋裏老鴉問靈山一脈發來近有萬脈請問和尚在那一脈師云山僧不被風雲轉豈似輕塵妄逐流進云南嶽讓祖下又分成五宗派和尚在那一派師云泰山有意傳春旨明月無心映碧潭進云月未圓時如何師云上弦不讓下弦時問如何是靜中動師云舟行水面江心穩進云如何是動中靜師云山現雲中百鳥啼進云動靜二相了然不生如何師云保任你得太平問誰與風月為家師云野牛野馬進云還許收斂得麼師云天地無拘束進云亦任脫灑去師云拘執不少問離卻拄杖別求方便師打云者即方便乃云掀倒禪床踢翻兀案皆是宗門弄鬼眼睛捲起門簾放下水瓶亦是禪家賣宗風山僧分裏則不然何如耶佛不用念有念非真禪不用參有參乖真道不用學有學昧真佛不用成有成悖真且道又作麼生單用一味平常饑餐渴飲不忘根本冷熱厚薄皆由誰覺行住坐臥豈有兩箇洗碗抹盞行行落款搬柴運水一團道理行堂掃地隨拈得趣燃燭燒香照徹本光披衣展具威儀抑抑鞠躬禮佛妙用何屈繞壇經行放出光明上單恬靜如鋒交陣卷足睡眠收斂俱全覺起下單動靜返觀出戶舉步步步相顧宣揚默示理事俱備豎指拈拳殺活縱橫長歌短笑多少奧妙聚會言譚大家團圓施為一切出乎自得試問大眾得箇甚麼喝一喝云垂鉤四海為釣驪龍格外玄談蓋尋知已以拄杖一卓下座。

四月八日上堂拈香竟問滿月彎弓時如何師云緊顧性命僧作畏勢師打云畏即不中問黑白未分時如何師云日腳不定進云全黑如何師云貴乎

行不到進云全白如何師云孤負前程進云如何纔不辜負師云只饒做到彌勒下生祇好扯箇直過問釋迦降生為一大事因緣和尚出世為箇甚麼師云天墜挈雲補山崩撾泥扶進云還有為處也無師云有進云請和尚道師打云莫效盲龜跛鰲處處猖狂問者段家風人人本具因甚斷臂求道師云錯會不少進云如何纔不錯師云因疼發出就中機問佛本無去來何道今日生師云日月不離須彌轉世人虛妄道出沒問離四句絕百非向甚麼處指示師云指即非生進云如何是玄中玄師云泥牛吼大千進云如何是妙裏妙師云石虎追風嘯乃云今朝四月八黃金出玉匣優鉢羅花開星宮週遍匝天鼓六搖振蓮盆龍現甲十九入雪山六載得機括七七教人天結積三藏法直至如今一點用不著幸有達磨安心恰近來香水滿江流脅下三拳舊病發兒孫遍地做良醫砒霜調酒狠毒壓只教人人斷命根著耳耳聾點眼瞎但從幾箇草頭方都向人間療臂瘡看起來沒俚[仁-二+(天/非)]兒孫自有兒孫福何如區區受煎所以山僧只教諸仁者自休自歇始得不在窮覽三教貫習古今向一言之下潔白自在悟徹明白自然一塵不立萬境皆空頭頭體露處處明了說甚麼古往今來盡在一毫頭上得箇大解脫大自在去也試問大眾如何得大自在去也隻履歸西去更不復徘徊萬緣隨我了一任百花開擲下拄杖云放下千斤擔隨心處處歇下座。

上堂云法席孤高來客少花筵直下去人多寒山平日呵呵笑看來箇中有幾何此有英豪者麼問年年三十月十五正恁麼時作甚麼日腳師云臨機不問時多少但觀江心月缺圓問鴉能返哺羊有跪乳人將何酬師云腳跟下薦取進云離了腳跟又向何處薦師云不離日用莫隨日用離與不離隨事逼迸問如何是曹山境師云未巖麵山茶池酒井進云如何是境中人師云鼻直口橫眉長眼圓問如何是父母未生前一著道理豎杖云明歷歷進云已生後如何師云黑漆漆問如何是佛師舉杖云看進云如何是法師以杖一卓云聽進云如何是僧師云覷僧作禮師云莫隨聲色自獲清徹問朦朧漢子得大意也麼師云小人智過君子進云君子小人是一是二師云凡聖無二智愚有殊問明月照東時如何師云家家開窗戶進云明月照西時如何師云處處掩柴扉進云明月當空又作麼生師云術士壺籃別有天問二十年前為甚麼降魔師云掄戈掃盡無明賊揮劍招回負心臣進云二十年後為甚不降魔師云時平不慮蕭牆事世泰何須再起謀問王道化世間祖道化出世如何還有三塗地獄師云盲人不畏坑塹聾子豈聽梵音進云天堂地獄實有無師云瞞自心不得問如何是太平境界師云海晏河清進云如何是人中主師云智高天下德重十方進云如何是禪中主師云一字不通文錢不值問如何是明心見性師云不識乃云見性超三界彈指越河沙無非要本分中見得清徹了得潔白纔不受瞞此事無論貴賤賢愚上中下一切品類均同者點妙用蓋因世人不肯勇猛精進隨影逐物聲色流轉因此有貴賤賢愚上中下等等差別名相所以吾佛教中一雨普潤各得

增長即如今日一言之下各得恰合直下承當如何是承當一句任從滄海變我獨自悠然下座。

上堂云大鑪開單煨眉上生輝漢子棒喝交馳獨打脊下有血丈夫舉棒從虛一揮云者一棒打碎虛空甚麼狀一喝云者一喝喝倒須彌世界闊是我者家人喫者家飯說者家話此中有麼問曾不學道參禪拾把金剛王寶劍截斷天下老和尚舌頭今日和尚將何抵敵師搖手作退勢云君子避酒客進云和尚還有恐怖師云切莫詐名頭僧將具一拂而退師云果是一箇漂浮漢問獅子出林時如何師云野獸潛形石人不驚進云未出林時如何師云獨抱一天春問請求直指西來意師云當時告寂去遺履竊天臺進云二祖安心事如何師打云安心竟問如何是三寶師云你是箇甚麼僧無語師云伎倆有盡問如何是鬼神覷不破之機師豎拳云且道山僧掌心是箇甚麼字進云不識師云為長老家元字腳不識豈況鬼神乎乃云唯有者箇元字腳天人難摸[打-丁+索]是我蒲團高上客岡然把著半頭角舉天親菩薩從彌勒內院而下無著菩薩問曰人間四百年彼天為一晝夜彌勒於一時中成就五百億天子證無生法忍未審說甚麼法天親曰祇說者箇法祇是梵音清雅令人樂聞所以云三界為心十方共說無非者箇且道者箇是甚麼吩咐禪那休說破說出破錢不值文。

上堂龍躍山前豎法幢無邊世界得清涼一莖白棒撥凡聖幾箇男兒上戰場僧出班欲作禮師便打云是凡是聖進云是僧師云過也早知是僧吾當禮僧禮師云病中膏肓難療既受湯丸易治問者場大事何了師云月到天心白人逢三十忙問如何是獅王吼處師云驚震五湖頑皮不聞進云學人聞否師云土木偶人不睹不聞問如何是選佛場師云法幢處處張獨不選兒郎進云因甚不選某甲師云為爾自不作佛問雲從龍風從虎仰山拄杖從雷雨和尚從箇甚麼師云拂子一揮山海動太行難比勝崑崙問清淨比丘不上天堂造孽眾生不下地獄時是如何師云二俱不著乃云不著空空與不空三世如來一樣同如站千峰頂上似行萬仞崖中四邊荊棘八方火一踏煙霞定化龍以拄杖一卓下座。

上堂拄杖[跳-兆+孛]跳正令施行擬心即錯開口乖真此中誰來當機僧近禮竟疾歸本位師舉起拄杖云獨妨山僧者一著問火燒初禪有何憑據師云但看祝公爐煙塵未消歇進云水滄二禪和尚向甚麼處安身立命師云他方任變我國晏然進云風捲三禪如何師打云打脫三界劫盡無礙進云何法能脫師復打云者裏摸索頌曰懶融問罷三禪盡解脫句中見血淋滿面春風不失色將來一日可為人問不經行不打坐向何處悟師喝云汝因甚迷進云不用只一喝師云獅兒未瞠眼瞠眼識好惡聽頌三十年前求悟不得三十年後求迷不得勿論瞠眼合目祇要皮下有血問青山雲疊疊時如何師云夢眼未曾開進云開後如何師云還我雲山來進云向甚麼處見師云日出天明雨落地暗問如何是笑呵呵師云得意忘憂進云如何是哭啼啼師云逐境迷心進云上古云眾生度盡因甚不盡師云夜靜水寒

魚不餌金鉤空放在湖灘問鐵牛入草場不見蹤和跡師云害物傷苗進云何處見得師打云著眼頌曰犯人苗稼幾番問他只是不認一棒打折驢腰從今向後謹慎問臨濟有三玄三要如何是第一玄師云凡夫抱佛眠進云如何是第二玄師云龜毛索上打鞦韆進云如何是第三玄師云廟門石虎飛上天進云如何是第一要師一卓云拄杖先蹠跳進云如何是第二要師云鵲噪有客到進云如何是第三要師云金獅謾言豹偈云三玄並三要點額魚未到而今龍門高也要儘一跳問弟子意性不明望師垂示師乃云意性不明逐問誰疑情之上更加疑忽然打破疑團子本無少欠不多餘舉百丈謂眾曰佛法不是小事老僧昔日被馬祖一喝直得三日耳聾黃檗聞舉不覺吐舌試問大眾此事是難是易切莫作難亦莫為易百丈不箇披虎皮嚇人黃檗只得假裝怕勢都是打鬼就鬼切莫作耳聾吐舌會問作甚麼會師云山僧害耳聾僧張牙舞爪作虎勢師亦吐舌作怕怖呵呵分明是無帽討帽戴惹火自燒身啐一聲下座。

上堂問鐵牛未現形如何師云頑皮太厚進云現形如何師云賤骨空高問昱霍母難如何報答師云只須死法進云何得如是師云恣縱恩情活地獄剿除孽障死天堂問十方婆伽梵一路涅槃門和尚以那一門接引後學師云棒喝兩途權實雙舉逆之順之凡聖皆取問龐公云十方雲來集箇箇學無為此是選佛場心空及第歸是否師云是進云眼裏不夾沙師云眼裏納泰山進云道是不空師云道本不空進云空的是不空的是師云總不是問舉足動步四面風響是甚麼意師云只因鞋短腳板長問學人今日生如何是父母未生前面目師舉杖云覷進云破家蕩產無一報恩師良久云恩報竟問佛開八萬四千門和尚將那一條門路接人師豎杖云除此一事實餘二則非真進云如今已度多少師云莫妄下註腳問昨日今朝即不問虎雄院中事如何師云日浩浩月浩浩進云如何是和尚家風師云一寒如冰一熱如火乃舉杖示眾云唯有者箇家風本無年月也無時節祖令施行逢人便接今朝昱霍母初度只見滿庭生瑞雪多拜南辰與北斗長生簿裏更添劫。

上堂云天色未晚瞌睡鮮來白日夢話屈殺癡獃者裏有夢眼開者麼問無夢無想主人公在甚麼處師云翻身枕头墮滿床現珠珍問世尊從三大阿僧祇劫捨頭目髓腦國城妻子方得成佛作祖和尚曾捨箇甚麼來師云山僧從無量劫不捨一絲一毫不欠一絲一毫進云慳吝不少師云負債者且多問和尚莫不是佛也師叱云者長老覷面訛謗山僧進云可通懺悔麼師云返觀自性若虛空剎那能滅阿鼻孽乃豎拂云者箇道理夢也夢他不著想也想他不來百劫捨頭捨目千生惹禍惹災不欠不捨本不修聖耶凡耶豈兩胎呵呵顯則無名可表隱則狐疑妄猜者裏分箇甚麼佛耶祖耶凡耶聖耶一味平常為至道兩輪日月照中心以拄杖一卓下座。

解制上堂維那白椎竟師云以此百餘期已終難道還是第一義何不道第二義第三義僧喝云顛倒漢師舉杖云者是甚麼義進云是木義師云欲想

學飛騰未曾長羽翼問百日期滿臨行是主送賓賓送主師云賓主歷然接送同船問達磨面壁虎雄振錫是同是別師云去歲立春過今年又春立進云武帝因甚麼不識祖意師云天子未嘗不識祖話不投機六月寒問世尊出世以三藏法流傳和尚利生以何傳流師云一條拄杖軟如綿掃蕩煙塵一味禪不勞兩片口皮動自有風聲遍界傳問禪期未終事如何師云轟轟烈烈進云已終時如何師云空空寂寂問離卻此處又到那方師云隨情得趣處處家風進云直指向甚麼處師云如今定奪在闍黎乃云當家問話扯吞聲冷水澆懷忽覺驚想是禪堂厭逼迫慮恐心地未光明人人幸放千斤擔箇箇難逃杖一莖向此牢籠跳得出昂昂撒手任前行咄休放過莫妄輕是聖是凡辨驗清再到問機答語恰三十痛棒作錢程諸禪衲且謾退山僧痛切有幾句若不直口親囑咐辜負一冬受礙寔生死大事非小可財堆北斗難買替千語萬言暫放開單提話頭疑一字即若狗子佛性無無字疑來並疑去疑到人法兩相忘恍恍惚惚無天地久久自覺身輕安再將話頭綿綿密密古人悟一十八小省小悟無轉次莫待略有些相應胡言亂語做詩偈耗散天貞玄妙門中途退墮枉前志貪榮華戀塵市光頭一夥成群隊東一撞西一勢弄笙琴舞樂唄哈哈笑逸混一世光陰錯過尤閑可肯忍心自暴棄戒嚴持禪要細三藏經書指路徑彌陀一句純心地超生脫死定參禪見性明心出苦趣一肚熱腸盡吐洩高人志士牢生記再聽一頌頌曰出家立志最堅牢持戒參禪正信豪戒似平基豎殿閣禪如磨鏡照微毛懸崖撒手通身快漆桶踏穿徹底臊一日韋馱推送去揮揚法化聲名高眾禮下座。

順治十八年辛丑十月江津縣廣福寺請結制山門云門庭不在寬大只要其中有人則興路道那管曲直但以到家一步為貴到家且置如何是陞堂一句暫以化城為歇息遠觀寶所不多遙撩衣進佛前云唯有者箇先輩好愛自尊自貴有話不肯直說慣打肚皮官事惚突手執空花好似打的啞謎兒孫只得疑猜如飲酖酒迷醉箇箇冤深海底特來為渠申冤報氣方丈山僧到此不是尋常未入門時豫先打量拄杖橫身是手眼懸河辯舌也奔忙即日上堂近座云法王寶座八面玲瓏天垂華蓋地湧蓮蓬最好山僧說法利生傳燈正脈流通便陞拈香云此瓣香靈峰發出枝枝透出三千界達磨拈來單單直指一味禪今朝信手拈來爇向爐中專伸奉為當今萬歲萬歲萬萬歲皇后齊年太子千秋仗願仁風吹處千邦貢德雨流通萬物春次拈香云此瓣香枝能撐日月葉可覆山河馨香充斗府聲名播五湖爇向爐中奉為各藩殿下睿算千秋滿朝文武闔國公卿伏願進忠進孝天賜福為國為民龍獻珠復拈香云此瓣香痛棒打開骨見髓喝雷驚退魔消魂自從兩手親交付直至而今天下聞拈爇爐中供養臨濟正傳第三十一世上敏下樹本師和尚用酬法乳之恩斂衣坐上首白椎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云踞地獅子吼諸獸潛藏走稍遲起擬議魂魄不長久且道在第幾義速道僧擬問師疾一棒云擬即不中僧退去師云真不啣溜問如何是一大事師云殺人不眨眼進云如何是一小事師云頑石未點頭進云點頭時如何師云因小失其大問父母未生前是如何師云天地不能拘進云已生是如何師云乾坤豈可束僧以腳一蹬云者是已生未生師云明得腳根兩處俱清問乍離虎雄即今虎在甚麼處師喝云照顧爪牙進云和尚臨廣福將何為受記師打云全憑者利害問此是殺人棒活人棒師云揚眉多少風騷客轉眼沙場血凝堆問如何是無舌人解的語師以拄杖一卓云字字分明進云百尺竿頭更求進步師打云求即猶遠放過迷問大地無寸土時如何師云汝站甚麼處僧無語師云吸乾滄海餘勝渴推倒崑崙尚未奇進云金鞭掃盡聖凡路玉笛橫吹劫外宗師云任伊[跳-兆+孛]跳惹人恥笑問如何是廣福境師云太公山左邊古佛坎右旋進云如何是境中人師云跣足踏冰雪方知徹骨寒進云人境雙忘時如何師云雲過嶺無跡水成冰有形問世尊云吾已說法四十九年未曾說著一字今日和尚是有文字無文字師云有無俱不立現成長題目進云如何是學人問答處師云文不加點進云如何是和尚垂訓處師云語不露唇問頭上火然如何得救師云定著進云風煙不定時如何師云睡著進云黑沉沉如何師云醒著進云劫火燒盡又如何師云隨著進云既然如是無安身處師打云若不磅著即磕著問久經琢磨如何不了師云因汝琢磨故此不了乃云不了本不迷了後原無悟語

默聲色間凡聖無兩路若論佛與仙都是凡夫做以拄杖畫一圓相云向者裏會得則佛祖有分從此不了凡聖無虧且道無虧欠之句如何道家明月誰無分處處青山都有緣。

上堂問十方薄伽梵一路涅槃門且道如何是門師云水底泥牛吼木裏毒龍吟進云今辰地官聖誕和尚如何稱觴獻壽師云四海興波八面起風進云即今在何處師云日出扶桑月沒廣寒進云祝壽且置如何是現前利生一句師云江河水滔滔為爾曉夜流問佛說三乘何為最上師卓云杖頭薦取得不勞覓二三進云瞞預不少師云不明的旨依墮三乘問不與萬法為侶是甚麼人師云銅鑄不成鐵瀉不就進云畢竟如何師云推不向前縮之不後進云不前不後又如何師云高來高接低來低迎乃云今朝接箇瞎驢恭請山僧陞堂無法可說但表家常以了日腳舉拂云者箇是家常如何是日腳答云不識師云難怪爾等不識三世諸佛歷代祖師到此也不免受瞞山僧只得為表出舉起拄杖云百法明門止此中森羅萬象盡包容杖頭消息親揮指暗有玄微一線通擲杖云拄杖親交付亦任打西東。

上堂舉僧問百丈如何是奇特事丈云獨坐大雄峰僧禮丈打此中有不顧危亡者麼問如何是奇特事師云呵佛罵祖僧向師一擧師打云仗誰勢力欺忤山僧進云敢有驕心師呵呵大笑云何足奇特問阿私仙庵不舉爨食箇甚麼師云人元三進藥提壺兩度漿問如何是廣福境師云千載長春草四時不卸花進云如何是廣福人師云語默通身靈進云人境俱忘時如何師云無風波自寧僧作禮師云水清秋月明問如何是玄妙之句師云石火夜燒天大地齊合掌進云還有奇特也無師云老僧窮劫道不盡進云為甚道不盡師云說即不是是即不說問入息不居陰界出息不涉眾緣時如何師云露地撐鐺星月一齊煮問如何是鏡中花師云拔山之力摘不下進云如何是水底月師云沖霄之志提不起乃云靈山七七理葛藤道脈東傳續慧能迷雨縱波漲萬狀狂風逐浪起千層十方拄杖如麻粟本地風光許獨明任有千差及萬錯到頭貫串一條繩一卓。

上堂問如何是燈煙不絕句師云綠水澗中流不息白雲嶺外數枝飛進云如何是和尚燈傳句師云拄杖揮四海明月照五湖問三藏具無萬物皆空和尚說箇甚麼師云我事不同他事著有著無兩背問法雨冰清大地霑恩還有化不到者麼師云天下人心共一德含情草木也同春問如何過去心師云能讀古人書進云如何未來心師云休打萬年椿進云如何現在心師云隨緣消舊孽僧禮師云切莫造新殃問和尚拄杖如吹毛利劍師云殺人不眨眼進云至今殺了多少師云當鋒者如麻屈死者似粟進云善哉師云蒼天土問生不知來處師云愧殺狐子進云死不知去處師云慚殺奴兒進云不生不死作麼師云青山朝朝青綠水日日綠土禮云謝和尚指示師云賢聖門路總自進自行自參自悟始得乃云含情蠢動共一胎段段風光去復來愧殺奴兒不長俊東鄰西舍弄傀儡而今只教惺惺著切忌三思兩執迷唯此者箇道理上古今人同碗共箸一毫無隔別舉拂示眾云會麼若向

者裏會得飯來同喫衣來共穿者裏不會同床各做夢饑渴各自知即若馬鳴龍樹智若懸河未嘗道著一字提婆鵞子辯如倒峽豈能商量到家今日德藏居士想必恰合些子麼噴嚏一聲云未夢見在。

上堂問如何是圈中牛師云一飽百無憂進云如何是出山牛師云水草當足酬士問如何是珠走盤師云懷胎婦女兩箇人進云如何是盤走珠師云名利場中誰放輪問教外別傳指明心地和尚拈拂是何道理師云太公拋鉤獨釣龍進云如何是鏡中花師云打破鏡時沒一些進云如何是水底月師云吸盡西江不可得問如何是煩惱師云佛成眾生進云如何是歡喜師云眾生成佛問學與不學如何師云貴賤智愚有分進云如何是清淨法身師良久云清淨法身進云如何是圓滿報身師正威聳立云圓滿報身進云如何是千百億化身師云昨日靜隱今朝令行上座披紅下座穿青問如何是大地逢春師云柳綠槐青進云如何春後一句師云暑氣來蒸問杲日當空現萬象森羅是甚麼境界師云癩蝦蟆放光問如何名受戒師云披著去進云如何為參禪師云默著去問如何是過去佛師云六六三十六進云如何是未來佛師云活生自埋沒進云如何是現在佛師云平地何起突僧禮師云休入三岔路問放去滿虛空收回在本地如何師舉起杖云者是放是收僧無語師云死漢問十聖三賢總是利生樣子和尚登法王座宣揚般若此是甚麼樣子師云鉢盂復降龍錫杖重開花乃云揮杖撥轉處虛空飛雨花舉拂提唱處平地走龍蛇撥轉關捩子物物有活機築開通天竅頭頭真造化總教世人瞠眼覷著舉足踏著開口說著伸手摸著喫飯咬著穿衣挂著經行坐臥常相應自獲玄關一竅靈舉馬祖不安院主問近日尊候如何祖云日面佛月面佛且道者老漢不顧危亡不識其時若是山僧問安近日尊候如何答日面佛月面佛即與一喝云奸雄賊妄起禍端教他掩面自愧疾死無容或有問山僧近日尊候如何與他劈面一擲云自不照顧問渠作麼其中有為陀主報不平者麼大眾不言者唯恐公道惹人嫌不免山僧評論幾句以安人心慣好傷人虎臨死不失威輕動些鋒鋌兩來都受虧烏兔本是佛出沒在東西與渠沒交涉含羞老面皮為善返遭坎坷行惡感福壽齊世間多少不平事緊閉六門無是非。

世尊成道日上堂師云大通佛世出凡纏誰信睹星悟本元惹得雲門顛捏怪婆心一片附東淵難怪雲門不察來歷者老老大大的箇漢家說話不觀前顧後一出母胎手指天地就說箇天上天下唯吾獨尊豈不自是向後法華會上壽量品中言箇成佛久已豈不自得何故又入雪山六年睹星悟道盡是沒交涉之談弄出許多絡索不畏傍觀者譏誚當時難陀眉帶愁布袋金師打失笑承虛接響到而今大膽雲門胡亂跳直至斯時未有一箇半箇挺身出頭言箇公道報箇不平待山僧一一頌過兜率降世兮屈尊就卑皇宮托胎兮玉葉金枝因地一聲兮麟走鳳飛九龍吐水兮萬物齊滋沐卻垢軀兮毫放光輝地搖六振兮正法住時天散雨花兮法鼓重椎周行七步兮龍虎相隨指天指地兮火宅厭居獨稱為尊兮三界良醫卻去世榮兮別有

風威越城雪山兮巢髻網眉六年苦行兮蘆膝藤頭夜睹明星兮條破大疑教演三乘兮量時見機末後拈香兮冷煖自知燈燈續燄兮南北東西故人涅槃兮十大子悲正法千年傳震旦達磨航海過金縷剿蹤削跡揮心旨在聖不增凡不虧雲門不達時宜懊滿口胡談亂鼓錐試問者不虧的是箇甚麼一卓云者裏會得無道可成從此不會有戒可披傳衣竟下座。

上堂問昨日說戒因甚麼細處不斷師打云者是斷羶斷細進云受五戒者如快活林鳥黃鷹當陽如何支得師云若無傀儡犬不吠纔有鸞飛天下平進云受十戒者如騎虎背如何下得師云懸崖須撒手平地宜小心進云受大戒者如老鼠鑽牛角如何出得師一喝云會麼進云不會師云如履薄冰戒址平清如臨深淵道體自堅問佛何獨向今日生師云因緣必有時進云此是甚麼時師云諸人卜度不及問世尊因甚聲名重三千大千師云總不本分進云和尚又如何師云依葫畫樣進云男兒自有冲天翅怎向古人舊路行師云如何是新路僧無語師云社鼠寸光何云大千問皇天無二道聖賢沒兩心因甚還有九十六種外道七十二陰魔師云水土本居長生地豈教西流獨產金問昨日無生今日有生是如何師云昨日今朝事不同進云因甚不同師云有無生不生因境起生滅進云二俱不著師云不食王母桃自有仙家棗進云分明見是金丹誰知是箇火棗師云眼底未清錯認不少乃云舉眸若見是從頭錯到底語默聲色間無彼亦無此滿堂都是瑤池客顛倒騎牛是老子下座。

上堂問浮雲聚散時如何師云聚因天地合散則日月明僧禮師云者裏是聚何處是散僧展袖出師云毫釐有差天地懸隔問舊歲未去新歲又來和尚今日在新在舊師云指東畫西坐南向北問今日立春與眾說箇甚麼師云鑿快犁尖慢牛加鞭進云臨春不下種如何師云青眼看白眼問今日逢春如何是辭舊迎新句師云月現金波生碧浪星分浩彩滾圓光進云萬物春放秋收事如何師云國泰時豐民安樂道高德重衲衣香進云如何是空師云一望無蹤進云如何是谷龍藏虎伏問達磨西來傳箇甚麼師云南帝不識北帝難明面壁九載等箇知音進云震旦國中誰是知音師云雲飛千嶺雪飄一身進云還更有無師云赤足趕鹿穿靴喫肉大庾嶺頭無榮無辱問如何是須彌山師云可聞不可見進云因甚不見師云烏兔循環視者萬難問大千沙界盡在一毫端者一毫即今在甚麼處師以拄杖一卓云會麼一日一須彌一佛一世界者裏若會得了卻恒沙債問佛法無私因甚不普利師云豈奈聾盲癡啞何問如何是禪師云糞堆土巒進云如何是定師云戲臺市鎮進云如何是戒師云酒肉皮袋進云不禪定戒時如何師云焦芽敗種地獄有分進云天堂地獄是一是二師云歸心無二善惡有差問和尚慈悲直截路通一線師打云直截土問無毛鷄子飛天徹地即今在甚麼處師云擬即隔千山士禮跪云弟子千山特來求指師云依在當然乃云不容擬議不落思惟彰明也現於日月星辰之下暗藏也隱於四時八節之中今朝唐善人請陞堂只得淨裸裸赤條條拈出歷歷明明現在當然此中有識

者麼者裏識得價重三千者裏不會一團乾屎橛不值山僧分中國得千日貨自有賺錢時逢賤必有一貴難道不有驗物作價看貨還錢的此處若無識貨者放入壺籃等知音分明好箇真消息可歎時人認不真。

上堂問達磨來有甚麼消息師云家醜不可外揚進云已今天下人知師云雖然識得老胡面未必度量古人心僧豎起拳問和尚會麼師打云野毛狗能學鬼叫僧一喝師復打云山猿精慣效人行問如何覲面不著師云只為門牆高視之不見進云因甚不見師云本來無一物何勞尋拘束問威音那畔事如何師云善惡無聞心寂靜人我不分道自殊進云如何是者畔事師云梅開雪裏通身白風過蘭邊遍地香問如何無生而生師云水清金鱗現塵起古鏡昏進云如何無死而死師云月在天中現影從海底明乃云達磨不來東土太平安穩無事三藏不去西天豈遇鬼怪妖精平空設下陷人坑幾箇向前拼命世常云客不來禍不生龍不行山不崩止想獨與二祖安心誰知砍一斧傷一林一處雷鳴天下響互古門庭遺禍根留下一箇千斤擔遞代相傳勉力撐即此當陽行正令殺活收放任縱橫舉杖示云會麼者裏會得續燄傳燈有分此處不明鐵鞋踏破難成。

除夕上堂師云寒來暑往明暗相催三十日盡何處瞻依問年年有歲月月三十師云是改他不得進云冬至一陽生甚麼消息師云冷灰爆出熟豇來進云舊歲已去梅花送新春纔到粉團開師云物能應時節人不知春秋問父子不相會時如何師云兩頭著忙進云會時如何一處肚腸進云唯垂加護師打云拄杖堅固進云蒙慈光照粉骨莫報師云但不自欺即是相依進云學人物情不欺敢欺自己師云如何是汝不欺自己僧展袖出師云大好不欺自己問如何是戒慎乎其所不睹師揮拂云塵線條條無人數進云如何是恐懼乎其所不聞師云普化利生憑鐸鈴進云不睹不聞如何師云昧卻聲色天地懸隔問三世諸佛前化和尚今化事如何師云風雨一齊打鈍漸兩處敲問覲面不知端的從頭一二開示師云前嶺後山下地上天剔起眉毛返復細觀問世事如麻何時得了師云門外問支賓進云他不識又如何師云再來問山僧進云和尚現不指示等待何時師云無如爾何乃云目前不了豈奈何分明指去問維那瞞預佛性猶閒可轉見閻浮業識多即此是三十盡日閻老打算飯錢還有不欠者麼進云無欠無餘和尚如何師乃云若問渠儂不無不有穿衣平生未挂一縷喫飯到老未嚼一糝看起容顏無妍無醜動作施為千眼千手問機答語通身是口歲年多少恒河沙久逆行順行誘人回首志公噉鴿曹山顛酒南泉斬貓趙州烹狗破山老賊酒肉滿口橫拈豎拈覲面頗剖呵呵分明好箇大光錢直下何人堪授手。

元旦祝聖拈香上堂師云靈山老沒疏親笑面虎入南閩面壁的過蔥領斷背安心太過蠢破頭山上樹分枝堂開廣福續佛惺千門萬戶皆同春切忌捕風而捉影起立拈香云此瓣香收放在乎我卷舒豈讓人堂堂包萬象融融貫古今曹溪分萬派鷲嶺獨稱尊勃地拈入手純和一味真焚向八德爐供佛及君親皇帝萬萬歲燈傳互古今放開禪道弄虞絃大家和唱太平春

斂衣坐云今朝上堂無別拈一炷香供佛供祖說幾句法利物利生拈香已
竟如何是法良久云大眾聞麼奇言聲清雅有耳不能聽下座。
解制辭眾上堂云話說千篇有放下一毫無智者當下決迷奔十萬途寧為
一世憨豈作萬生奴退步入山妙安身德不孤前朝隱高士不被絲毫污要
得無多慮一衲一草蒲今朝法會中幾人是丈夫僧喝云當機難讓師打云
有勢不臨真君子無風起浪非丈夫山僧已此吩咐過何必區區妄啣噓臨
別喫吾三十棒將來千古作規模撫掌呵呵云大快活。

康熙元年壬寅住重慶府觀音寺上堂至座云曾拾靈峰座上花今朝重放示三巴箇中開口依前笑三十痛棒不饒他即陞拈香云此瓣香拈起鎮乾坤位清名正放下安天地道泰物和藪向爐中祝延當今萬萬歲文武顯宦本蜀尊官伏願聖德無疆皇子皇孫續傳永一人有慶文武忠臣世代欽次拈香云此瓣香棘栗叢中無罣礙劍樹刀山慶有虞煙塵不避連風雨鎧甲無聲帶水泥信手拈熟爐中奉為欽命四川兵部尚書都察院李公國英大金湯海角聲聲知進退旌旗步步看高低令行密密宣王化識得太平正此時斂衣坐白椎竟師云幾度中元節威風在一時拄杖傳心旨梧葉飄玉墀含識迷根本無情尚知歸者裏有知歸者麼問海闊從魚躍天空任鳥飛歸在甚麼處師以杖一卓云不識目連覓地藏且向金井看秋風問大悲現千手眼和尚現甚麼師舉杖云山僧者箇能縱能奪能殺能活若還識得三界無縛問月映秋潭時如何師云清白分明進云明鏡高懸時如何師云妍醜難避問尋牛不見蹤如何師云犢鼻無綦荒草亂攏僧蹬足云者裏見師云頭身已過尾難出圈問十方法鼓一齊響時如何師云饒汝耳聽不行無分進云大地法幢一齊豎時如何師云出廣長舌渠無交涉進云向後事如何師云前門垂簾後戶要門忘卻六塵跳出三關乃云三關跳出越三界玉液瓊英誰不愛不貪名利不求榮兇神惡煞無何奈正直無私上帝欽公平有德龍天蓋所以為人在於世中多諸方便恤老憐貧培德培仁尋常自心若不欺皇天佛祖豈能昧且道如何是自心不欺句未曾動念先知處纔舉貪圖迷卻心啐慧燈剔起返觀照還是自家人弄自家人拽拄杖下座。

上堂問如何是第一義師良久云會麼進云開門見山師云已落第二義問前朝說不盡英雄如何還怕閻老師云天下人欺心不得進云和尚還怕麼師舉杖云手把虛空杖挑日月佛來魔來攔頭便擇乃云若問老僧第一義起心動念落三四良久之時不契機杖頭舉起鋒鋌利英雄難越閻君手造化合符超祖位普天人若不欺心那怕無常瞠眼覷秋月寒潭湛獨明虛空把定無來去眾禪衲莫疑戾珍重頻頻直路行踏翻漆桶明心地心地明休輕造切須認性逞高傲悟了還同未悟時機開漏泄兜人笑只待韋馱推出大闡化風纔算妙忽然平地一聲雷門庭高設任來跳舉善財參五十三員善知識末後到彌勒閣前見樓閣門閉瞻仰讚歎見彌勒從別處來善財作禮曰願樓閣門開令我得入尋時彌勒至善財前彈指一聲樓閣門開善財得入閣門即閉見百千萬億樓閣一一樓閣內有一彌勒領諸眷屬并一善財而立其前善財因無著菩薩問曰我欲見文殊何者即是財曰汝發一念心清淨即見無著曰我發一念心清淨為甚不見財曰是真見文殊爾等各不設心清淨而來朝參暮請問語答話有甚交涉難怪大眾沒交涉善財

況求門得入無著請問見文殊更沒交涉待山僧拈頌過拈云家中無飯喫
做箇賣米漢頌曰不因彈指無門入無著慙猷被爾屈謾道文殊清淨中花
房酒肆有真佛且問大眾如何是真佛良久云發一心清淨是咦堂中三圈
轉仍從大門出。

上堂云拄杖橫擔千日月鉢盂包納百須彌非是山僧擅輕舉今朝只得露
全機者裏有知機者麼問三十年前為上客直至如今搬柴運水此是學人
知機麼師云未在進云如何是師云朝坐屎坑暮臥糞堆臭裏變香暗發光
輝僧禮師云好似冷灰爆豆始得問離火宅登寶王座時如何師云月到十
五圓進云圓時如何師云蓮花出水香問世尊睹星成道和尚參禪明心是
同是別師云分明一首曲調出兩樣聲問法施無窮今朝無盡如何是有盡
師云掬水玄明已在手進云如何無盡師云撒開手去映千江僧禮云真乃
佛法不可思量師云山到絕巔雲更遠水歸源底魚猶深問何為大雄大力
大慈悲師舉起拄杖云山僧者莖拄杖能殺能活能縱能奪進云何處見虛
實師打云口裏說來恐虛棒頭落處的實進云性命喪於棒下師復打云前
棒打死後棒打活祖令如是任伊卜度乃云為人切切要知機知機終久得
便易財堆北斗誰將去作佛齋僧永不虛所以鳳臺樊居士建刹供僧效古
引今同霑聖恩霑恩且置如何是古今同興之句祇陀太子捨祇園長者布
金作福田百萬人天為大善今朝檀信事同然眾僧居住無能報早晚拈香
爇佛前以拄杖一卓下座。

上堂云承虛接響事今古在投機莫道尋常是尋常落依稀所以此事不越
尋常不著尋常且道在甚麼處杖一卓云萬里長空一色千門萬戶何差盡
性養性見性三教原來一家百草頭邊雖祖意吩咐禪人眼莫花覺得自心
原是佛休將好肉剗瘡疤舉江西道一禪師因一夕西堂百丈南泉隨侍玩
月次師問正恁麼時如何堂曰正好供養丈曰正好修行泉拂袖便行師曰
經入藏禪歸海惟有普願獨超物外所以宗門人坐臥之間如奪虎穴相似
恒存利害莫作尋常懸空起雲平地汎波幸得各具抽身法不然禍入蕭牆
甘受其苦雖然如是也是角鷹啄鴨只見滿河亂渚全無半箇落底那時山
僧在旁先將老漢攔腮便擗仍將三人驗過始得呵呵謾道鬚鬚赤更有赤
鬚鬚勤堂生瑞草好事不如無下座。

四月八日上堂拈香竟云年年四月八歲歲佛生辰漸次有三學直指無二
門祖師法令嚴鐵面不容情問話求開示血棒如山崩只許超物外當下絕
見聞果有者等人麼僧禮求開示師打云先打後商量進云商量箇甚麼師
云雞寒上樹鴨寒下水進云不寒不熱如何師云滄州獅子廣府鐵牛一夜
相打渾身汗流問一微塵裏可轉法輪麼師云頑石尚點頭牛耳豈得聞進
云弟子可得聞乎師云棒下如雷不肯徹皮土禮復問如何是古佛師云土
牆厚進云如何是西來意師云石壁薄進云如何是西來意師云香圓果進
云如何是西來意師云臭米團問聖凡情盡如何師云休造次進云驀地好
風光師云情未盡進云必竟如何師云好與三十問滾入葛藤裏如何斬斷

師與一棒云斷進云離了拄杖又作麼生師云薦得杖下事又向汝道問禪非參道非學不思善惡正恁麼時如何師云無風不起浪進云日常見聞夜夢知覺時如何師舉杖云夢見者箇麼進云月落樹無影風清雲滿池師云可惜光陰虛錯過何須墮在尋常坑問殿門內外堆積千層如何師云者箇鐵饅通看不通喫進云學人下口師打云利牙尖嘴在處捏究問杲日當空時如何師云只恐未登極頂處越過桑榆賀太平乃云堤高藏綠柳籬厚隱黃梅莫道春無令常聞子規啼學道者無修無證進戒者有受有持傳衣竟云話說三千閒骨董歸心那用許多篇一莖拄杖隨方便半箇蒲團到處圓上日王瓜無估價近時茄子不成錢情境熟理事頑縱有傾心不再然不如辭轉他方化一方初到更香甜。

康熙四年乙巳住成都重陽觀傳戒上堂云古今戒地杖頭開一掃煙霞不復來今朝令在山僧手者段風光恁剪裁雖然如是山僧素不慣談人情語無非隨機應酬一縱一奪一放一收為必不是班門弄斧或張或隱或進或退難道不是因時制宜扶起的滿面春風推倒的無端造意者裏不是無風起浪平地千戈蓋緣眾僧乞戒堅請上堂只得與眾分疏明白舉杖示眾云見麼若向者裏離見見戒可得一半以杖一卓云聞麼若向者裏離聞聞準入初地乘漸登階級毘尼法只得勞吾兩片唇乞戒一齊誠諦聽次第從頭理葛藤依文作法竟下座。

上堂云說法利生招罪惹愆殺豬宰羊成佛有分山僧向後戒中不除人之殺害不斷人之酒葷只教呼轉白牛不犯苗稼便好舉廣額屠兒於捏繫會上放下屠刀立便成佛白云是賢劫千佛一數大眾自不照顧回頭是路雖然如是刀痕血跡未乾在呵呵當時不覺醜過後方知羞開口無交涉花殘已過秋擲下拄杖云丟下屠刀憑自得堪歎渠兒直下當。

上堂云幾番權便弄鉗錘指箇畫梅戲乳孩法雨撒開如夏露道風振轉似春雷泥牛喚醒歸欄去石虎掉頭入圈來拄杖橫挑雙日現重陽院裏法幢開一卓云會麼三世諸佛歷代祖師種種差別知見諸乘法門一一皆由者拄杖領過了也本來無說須道世間一切語言文字皆是權語咳吐掉臂敲爐打地吹毛折指無非方便實際理地不立一塵有何言說既屈山僧說得一團花簇簇皆是老夫妙用與汝諸人分中本無交涉若向諸方舌邊記取得些來蒸沙豈能作飯畫餅那得充饑如前用心全無勾當只須自己屋裏撿點豈向他方馳求呵呵若還不遇仙陀客焉識壺中別有天。

提臺兩鎮宰官居士九月初一日延師住聖壽寺殿門古佛家風橫行好直行好祖師作用顛拈是順拈是今朝在山僧分中無論顛橫逆順但得到家一步為妙到家且置如何是入門一句一喝云未揮法杖乾坤穩纔舉新符日月圓座前云陶公早已去白衣還未來兩正作中時黃菊滿盤開今朝重拈示明顯不用猜陞座拈香云此瓣香生長無憂田地出現清淨國中拈來奉為當今萬歲滿朝文武諸公西蜀宰官居士同成般若會中聖壽已成荒草地誰知今日復興隆斂衣坐云許多佳景成冰化無限秋光重復新莫是

靈山曾有願仍來此處共團圓舉起杖云今日釣竿在山僧手裏有上線喫餌者麼問答未錄乃云豎千古宗風始從今日作萬世招提出自此時且道今朝是甚麼時一卓示莫不是眾居士現宰官身仍來法門輝弘祖道時故此誠留山僧住聖壽禪林建功圓滿入院上堂而求受記耶為求道法耶驀頭一棒云若為求受記人人腦後慧眼開步步腳跟點著地若為求道法動靜回思返自觀日逐尋常無不恰仔細檢點得出石牛與白牛齊吼木鵝與鳳凰同鳴老僧白棒齊著力五更鐘響大家聞以杖一卓下座

上堂云今日山僧五十日腳如雲過隙看罷今古聖凡均皆同箇消息一喝云放之彌六合卷之藏於密不意眾居士來此祝敬山僧無別說只好畫箇元字腳呵呵只因者箇元字腳一世焦燎弄惡杓打破觸體蓋撞開固橐鑰搖塵弄象鼻雨花繽紛落儒宗乘車輦道士飛仙鶴三文大光錢貫串一條索神通與妙用皆是人做作法門任千差不離者箇勾若問報慈恩拄杖勤操略一卓云者是放耶收耶若是放達磨隻履轉烏藏若是收曹溪香水永長流今朝識得娘生面三世諸佛把手遊拽杖下座。

建法堂復迎陞座門云初住石牛一片荒二臨聖壽漸成行希林率眾請歸院大展紅爐煨十方入堂四顧云雲堂深廣闊凡聖盡包裹捉定無孔錘敲脫沒鑰鎖剔起不夜燈踏翻鐵壁垛打開寶藏庫風光任批叵忽聽石牛木馬嘶聲聲只教太停妥方丈一喝云踞地獅吼魔逃狐走十地聞驚三乘俛首佛法世法錯在張口有問祖意十升一斗上座拈香云此瓣香天之育而豈覆地之產而難藏信手拈來奉為君王生民仰賴地永天長次拈香云瑞光含萬象天星燦滿朝普燠華夏客回首是蓬瑤復拈香云花開放八節果熟斂三冬熱向兩儀爐專為山主烘滿門增福壽萬遂百諧通斂衣坐問帝釋請時如何師云正合符節進云請後如何師云千古留名問和尚因甚背佛坐師云堂主之過進云自難承當師云比上不足比下有餘進云比此且置如何是承當句師云拄杖正說法頑石側耳聽問千花臺上拈花事如何師云至今笑未休進云盡大地幾箇知音師云除你盡是乃云若還大地不知音安得誠心兩耳聽假若訂名叫一聲管且向前忙答應此是天真妙覺性涇渭未分亂攪紊所以山僧去復又來兮只因化緣未曾盡隱顯莫測兮古今法原無一定周旋普遍兮流通佛祖之正印法螺重吹兮千百年後存高興以杖一卓云會得山僧一卓通身徹快無病。

上堂問月映千江時如何師云何地不春風問平地一聲雷時如何師云過量於人問千佛萬佛總是一佛何故又有恒河沙數師云為爾心多問人人本具佛性因甚墮在迷悟兩途師云只為知見放不下進云放下即無師云墮在迷途進云拈起即是師云墮在明白進云迷悟不著師云且救一半問了即孽障本來空又落空見時如何師云知落非空問凡所有相皆是虛妄為甚集眾陞堂師舉杖云喚作甚麼進云不會師云若見諸相非相即見山僧乃云佛性本自如迷悟分兩途明白的不及癡暗的有餘同秉天性各出希奇如管籥音機分上下須共一氣各響不同諸天見雨為瓊漿脩羅見雨

是刀鎗眾生見雨得清涼牛不見雪犬不見風人不見鬼神迷即妄生悟即見滅故云心生種種生心滅一切滅又云生滅滅已寂滅為樂所謂不從一法起知見自有如如古道場法王穩坐空王殿眉放毫光照十方。

四月八日上堂云說起今朝四月八仔細思量則不恰佛之一字原無生如同名將卸盔甲只因隨類度眾生惹得雲門要打殺幸有山僧可具眼不然一概沒徧[仁- 二+(天/ 韭)]虧渠座上一枝花恒沙世界盡開發尋常上供不為然惟有今朝要海納拈香竟斂衣坐云山僧弘法已多年幾度花香秋月圓老幹放條新復舊蒼松開蕊翠還鮮真如佛性映江月幻殼業形度海船鉢底須彌藏碧玉杖頭日月現金蓮揚眉豎指揮心印折背拈拳續髓傳曾聽般若精進戒魚沉鷺落豈虛言洞房肉案老僧律酒肆屠門衲子禪惟我箇中親薦得驢胎馬腹大悲船舉杖云會麼山僧者莖拄杖有通天徹地威風七穿八竅玲瓏動時殺活縱奪靜時莊憨朦朧喚作鉤鈔拔楔抽釘喚作鎗鎧防非抵惡所具通身鋒鋦不敢輕觸妄犯觸犯者則喪身失命名之曰戒願者受之傳衣鉢竟下座。

住北京辛亥五月二十九日工部郎中擎安薦椿萱請上堂至座云拄杖起塵面口[泳- 永+(嘆- 口)]擎安為母請薦福權衡今在山僧手一棒到頭一血窟陞座拈香云此瓣香青黃赤白綠紅黑不隨四季與八節自從昔日過靈山順帶一株震旦國今日擎安為薦親信手拈來爐內爇先奉人王帝主滿朝文武同竭次及亡者早昇天合會聞香超大劫斂衣坐云山僧乍到京都佛法原無親疏自古法不孤起大家出來相助倘有腳根點地滿盤托出璣珠有麼有麼呵呵無限長老幾箇丈夫此中若無知音不免山僧自遣自呼乃云山靜雲寧忽起潮雷鳴電閃湧波濤慈風悲雨一齊降護送夫人上蓬瑤舉起拄杖云而今又來者拄杖頭上放光動地運用神通顧視左右云大眾見麼若向者裏見得即見資政大夫及夫人安身立命處則知三世諸佛諸大菩薩一切聖賢安身立命之處以拄杖一卓云大眾聞麼資政大夫及夫人從此聞法歡喜覺悟歸真去也大眾若不見聞聽山僧表白夫人去處白蓮香不入瑤臺歸上方十方佛刹都參遍極樂世界更風光卓一卓下座。

上堂舉起杖云倚天長劍匝地鋒鋦直取西來老胡著慌四方八面無藏避只得摘蘆渡了江九年面壁安心後三遭毒藥當茶湯東土兒孫惡辣勝忙用假屍棺木莊抽身去兩無殃刹那頃刻到西方。

康熙十二年癸丑正月二十六日郡王千歲請師住白塔真如禪院十月二十日迎師就華家寺說法師到山門喝一喝以拄杖指門云者門庭遠近行來分主賓山僧到此則不然頓超直入獨稱尊撩衣便進二門云過了一重又一重層層裏面有包容進到盡處無可進渾然覺在飯王官佛前云若云是佛同凡塵俗若道是魔亙古諧和任憑心佛聖凡魔祝願賢王享三多諸佛座前三展禮登壇鼓唱太平歌展具三禮茶次宰官眾居士禮請迎師至座前云師子座法王臺優婆羅花時一開千歲今朝恭禮請頻拈甘露灑塵埃便陞告香云此香不是等閒有生在虛空長北斗萬象森羅讓獨輝十方法界稱元首爇向爐中端為祝延當今萬歲萬歲萬萬歲皇后齊年太子千秋伏願龍樓鳳閣乾坤穩德雨仁風宇宙清次拈香云此香不是等閒來那畔威音王手栽發幹生枝覆大地而今方作棟梁材爇向爐中奉為各藩殿下千歲千歲千千歲滿朝文武闔國公卿宰官居士等伏願玉葉燦時枝枝茂曇花開遍朵朵香復拈香云此香不是等閒得三年航海九年默神光斷臂無心安密雲彌布萬峰特此是第九轉拈爇爐中供養臨濟正傳第三十一世本師上敏下樹和尚用酬法乳恩斂衣坐嵩原大師白椎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云若道老僧第一義一莖拄杖通天地縱橫殺活自悠然明眼上人出班證據嵩原問華家重興四眾臨筵即不問如何是誕生王子師豎拄杖云觀面觀親切進云如何是化生王子師倒卻拄杖云橫擔日月進云如何是朝生王子師抱杖云隱顯莫測進云如何是暮生王子師以拄杖一卓云坐待符進云如何是丙生王子師震威喝一喝云鋼符進云五位王子蒙師指殿下請師陞座以何法利生師豎杖云瞬目心旨舉棒播元宗問慈雲普覆法藩均霑弘法利生即不問五家宗旨請師宣師豎掌云不離者裏一一問來進云如何是臨濟家風師喝一喝云一喝莫作一喝會進云作甚麼會師云十字街前米價進云如何是曹洞家風師打云一棒莫喚一棒用進云喚作甚麼用師云不識水銀認作汞進云如何是雲門家風師拈拂示云莫把胡餅認作粽進云喚作甚麼師云玉露瓊漿誰可共進云如何是漁父家風師揮拂云剛纔捉得偷米賊依舊走了水牯牛進云牛走還可易捉賊遣賊難師云頑石尚點首木婦吐金錢進云如何是法眼家風師云念佛纔打鼓飯熟可敲鐘進云五家宗旨蒙師指和尚家風是如何師連打帶喝云胡餅苦茶乾屎橛麻三斤進云五宗作用全收斂真乃法門第一公師云毛吞巨海芥納須彌問生鐵久鍊成鋼師打云還欠者一椎問生死不明如何師云白玉本無瑕進云明時如何師云黃金豈失色問大地眾生生生而來死而去是如何師云只因把持不住進云把持定時如何師云尋常不被物所轉轉得物時任施為問千歲辦齋和尚受供五宗派即不問如

何是第一喝金剛王寶劍師打云血滴滴進云如何是第二喝探竿引草師云霧漫漫進云如何是第三喝師子踞地師震威一喝云狐兔潛藏進云水向石邊流出冷風從花裏過來香師云無聽無聞埋沒天真有色有相空生塵障問如何是海底泥牛啣月走師云水母無眼況有口進云如何是崖前石虎抱兒眠師云金鸞須去玉兔還進云如何是鐵蛇鑽入金剛眼師云龍腦拔珠橫身膽進云如何崑崙騎象驚驚牽師云良馬從來不用鞭進云四句之中有一句能殺能活能縱能奪請問和尚是那一句師云包天裹地句進云離卻四句望師指示師云佛法無定體指示隔千里問王爺齋供和尚得何功德師云念同天地清名永香慈音寺法主師問閉門打睡接上上機顧鑒頻呻屈為中下和尚今日弄鬼眼睛未審接那箇機師云山僧分中何事不容何物不納但不知爾從那一路來進云來處來師云鈍漢還從原路去進云因耳沉師云有眼在問蚯蚓截斷兩頭動性命在那頭師云活動非是性安恬不是心要知真下落石虎吼一聲乃云堪笑眾生不識禪可憐虛度待何年笑天獅子空歡喜三腳蝦蟆喚作蟬所以法雨普潤沙界慈風鼓扇十方總要見機識時方纔是法門中具眼人物顧視左右云大眾且道者是甚麼時若據山僧正眼觀來八荒寧靜四海清平乃福星天子治世之時況且王公大人深信三寶文武百官皈心向上正好興弘祖道豎立宗風廣演法化接物利生惟恨山僧者裏無禪可參無法可說上無諸佛可成下無眾生可度豈憶我王殿下今朝恭迎山僧至華家堂上說法上報國恩下利群品蓋緣山僧到者裏無一法可說無一物可拈只好將三十年前住空王山中無影樹下牧牛時有首牧牛歌無生曲今日人天會中唱來與眾聽聽是好大眾著耳諦聽師良久云聽麼若向者裏聽得當今本是天生佛各藩盡乃菩薩身者裏不聞雲向空中伴日月水歸滄海助魚龍石女木人親聽得合掌滿面笑容容不是山僧妄自舉今古到來尚耳聾何也文義雖然古奧幸得音聲和雅人老腔端正虎瘦勢英雄震威一喝云聾沉靜者仔細再聽端的下座。

彰義門內慈濟庵七月慶賀地官請師上堂至座云今朝七月十三特此慶賀地官頻握一莖白棒徵驗凡聖交參陞座拈香云此瓣香價重三千賣須當時一遇知音不受分釐拈來慶賀地官早赦眾生出苦犁斂衣坐云驀地無思真實義秋風擬動滿盤花日連尋母無方所返到祇園問釋迦者裏有為報親問老僧者麼問七月十三上堂意如何師云不忘根本進云如何得報本師云悟取本來進云如何悟師云一切處究問拈花事如何師云令人可笑進云微笑事如何師云令人可疑進云不笑不疑如何師云對牛彈琴乃云牛耳不聞己丑但遇水草張口一呼急速轉頭免費屠兒之手正逢地官赦罪九幽十類放走俱去蓮花化生休來五濁現醜今朝是我相參二位居士懷親報本一聞正法出三塗彈指直超上上品舉杖云會麼若向者裏會得眾生盡度方證菩提者裏不了地獄未空誓不成佛咦話說難收衣破易補呵呵過了十三還有十五以杖一卓下座。

上堂云無風起浪雲龍智欲昇騰平地干戈風虎勢將出穴龍昇騰潤四洲之焦枯虎出穴醒八荒之善惡草木尚知春有情安無已舉杖示眾云山僧者莖拄杖生在荊棘叢中用斧砍來燒炮刮削幾番琢磨即今在山僧手裏活潑潑而來激勵人天呵呵世間多少玲瓏子誰敵山僧木上座。

甲寅師住山東兗州府曹州三教堂結冬制上堂近座云寶座巍巍如泰山水簾雲夢站兩邊滄州獅子吼一聲驚起黃河擺九灣陞座拈香云此瓣香奪陰陽之秀氣採日月之精華遍體長枝葉通身現爪牙拈爇寶爐內供養老釋迦次拈香云此瓣香無聲無臭非假非真收則一微塵放則滿乾坤拈爇御爐內奉為聖明君復拈香云此瓣香可長可短能羶能細視之形棄之有味能增福壽能添榮貴拈爇名爐官民得利斂衣坐上首白椎竟師云能仁現瑞山僧拈棒今古分明全收全放境寂有方語默難量直下承當無窮欣暢者裏有承當者麼問承當箇甚麼師云擔山填海煉石補天進云還有承當處麼師云伏虎擎龍搏風拏雲問智慧德相涅槃妙心是甚麼人的受用師云待汝徹頭徹尾來向汝道進云願聞現道師云高山平地皆共春問儒釋道其性皆一如何分成三教師云日月星其明不二光有大小進云如何為一理師打云是一是二問夫子門人唯老君門人聾釋迦門人笑和尚用甚麼師云好與三十棒乃云三十痛棒好承當打著腳跟腦帶傷把定虛空頂一棒四海龍宮緊著慌拽回拄杖打諸佛度盡眾生遍地芳何故如是只因靈山法東流信手拈花笑未休面壁九年雪湧臂碓春半載月盈舟十方海宇噴香水八寰衡拋淨毬皆賴如來慈忍力法輪轉處把恩酬所以山僧者一莖拄杖活如龍惡如虎打佛打祖打凡打聖打箇冤家就頭方把佛恩報盡。

上堂云眾生度盡方證菩提地獄未空誓不成佛此語是前人說過了矣請山僧上堂說箇甚麼只好與地藏講箇分上赦放眾生出脫生方嘆未必順海弘深效地藏悲憐情識灑瓊漿寶珠照破幽冥界錫杖振開阿捺邦普赦眾生出苦趣盡超佛子入西方彌陀接引親垂手拄杖頭邊毫放光即此光者下照無極之地上照有頂之天洞徹十方恒沙法界普濟群靈同生安養喝一喝下座。

上堂拈香白椎竟師云明明旨趣了了真如人人本具箇箇不無能隨萬物稱名可向千形安職名職雖存無常安住若急水波上之浮漚疾沒疾有似病目仰觀空花徐拂徐生所以山僧但願深山間曠飲露餐松忘緣應世無事於心今朝荷蒙眾善并翠然賢徒遙來為老僧慶賀豫祝六十只得饒舌鼓唇雖然如是無擬下口處只好將古人出身處拈出示眾舉高峰禪師一字不識白雲坐主廣通三藏聞高峰悟道欲去會機鋒高峰聞得忙然不知何者為機鋒侍者曰和尚安心待我退他侍者向山門外以塵土埋路之蹤跡栽上茨籬白雲到庵外看問曰此處無路無門從何處進侍者問汝是誰曰白雲者云既是白雲豈礙門乎雲即復回者謂師曰白雲回矣師曰如何去也者遂呈上事峰云者便是機鋒我之無窮也是則雖是他難進來渠難

出去即若鄆城丕奠曹相公隨老僧到彰德會千歲順承王爺王問相公能答機鋒者麼公即瞪目無言出府問老僧曰如何教作機鋒曰待汝悟後必知由此論之悟了還同未悟時試問大眾會得栽籬覆道處麼若不會老僧為眾道破廣學多聞栽茨籬分明大道自荒迷大鵬展翅飛千里獅子欲行豈約時珍重。

上堂以拄杖指座云者寶座十方界無兩箇八剛守護四王輔佐地湧蓮隨天垂雨播出世間師常處坐臥今為大眾敷揚切莫當面錯過便陞上首白椎竟師震威一喝云碧落巖前獅子吼玉花潭內驪龍嘖未曾開口全機現剛得雷鳴萬物春所以吾佛世尊開宗演教接物利生大千界一雨普潤佛心平等勿論上中下大小根莖有情無情咸霑浸潤各得增長自雙林寂滅囑累靈山聖眾脫跡十方權實顯密種種方便化度眾生今朝乃佛成道之日以何報恩即若臨濟師翁生自南華郡嗣法黃蘗運初劈北地宗風至今千百餘年誰來獅子窩中壁立千仞中興祖道重開佛基豎窮三際弘化十方幸有克肖兒孫頭笠拗蒲週旋宇宙履芒屨杖踏遍乾坤從西至北轉化於此眾集安具不免下一番無情毒手拈出惡辣鉗錘任憑千佛千祖萬聖萬賢一火烹出荷蒙宰官善士來此上供堅請山僧陞堂就此法筵拈一瓣香爇向爐中將此過現未來三世佛祖深恩一時報盡且道我臨濟師翁續脈聯芳森森拄杖響天下慧燄燈傳赫赫宗風播十方此恩此德如何報答舉杖云當頭棒敕傳心旨驀地喝雷消膽魂扶起當年三度打補圓昔日破砂盆呼眾云且道者是報得恩者麼若報得再打三十拄杖以作兒孫供養一卓下座。

全義禪人交當家請上堂云門庭孤高利鈍可進至道平常誰肯承當山僧有篇無縱橫少點畫文章有具眼的不妨出來認看問離北都住南華即不問如何是和尚悲心利益人天處師打云棒頭落處有跡痕問經行坐臥恒如此因甚麼不得轉身吐氣師擲下杖云為老僧拾過來僧提起師接到手與一棒云轉身去僧有省問滿天雲散盡一輪杲日時如何師云獨明四海難照九幽進云徹底光明師舉其掌云掌中卍字多少畫僧無語師云徹頭不徹尾枉自空歡喜徹尾不徹頭騎牛去覓牛問法王陞座群師圍遶時如何師云打鼓弄琵琶夥攏成一家問此是活人棒死人棒師打云求活必死求死必活進云不求死活時如何師云不飲任他酒價高問者是德山棒臨濟棒師打云者是老僧棒僧擬師震威一喝僧低頭而退師云未到三日耳聾先有一生快活乃云若得快活出脫陰陽不今不古豈易豈常隨緣得妙遇事鏗鏘隱顯莫測卷舒難量一獅出穴百獸潛藏邪正優分真偽列行魔兵閃退三千里坦然端坐法中王揮拂云若向者裏會得參禪的有益送供的有益從此不了進院的失利退院的失利不免要老僧頌過便好頌曰參禪雖假外莊嚴供佛飯僧真福田非是當家力不及只因尚欠草鞋錢與伊把柄住山去自有韋馱護法船如何是把柄之句有志男子悉皆諦聽不入

眾流苦自甘白雲深處結茆庵尋常日用三斤鑊抖擻精神撈底鑽以拄杖一卓下座。

解制上堂云禪關無進退時節有終始駕象是普賢騎牛即老子南華興棒喝徵驗皮骨髓上根利智者當下明的旨中下凡愚夫返生訕謗語差之在毫釐失之於千里六道苦眾生輪迴轉生死不明心佛因當如此十方同至化三教共一體識得老僧無味禪秤銚是鐵冰是水一卓云春暖花香鵬飛千里。

康熙十五年丙辰過湖廣武昌府黃龍鐵佛寺真如禪人請師上堂至座云黃龍遇知音一身徹快生賓主分內外拄杖論縱橫人情有厚薄佛法無疏親此箇法王座不免要親登上座拈香云此瓣香根種培自威音那畔又那畔枝榦發生世間出世間山僧信手拈得來大地含情普共霑先奉人皇帝主次為文武百官法筵海會聖眾同一鼻孔貫穿斂衣坐真如白椎竟師云到此只得開口開口分明便錯謾道買貴賣賤自有明人識貨有麼問貨賣當時即不問昔日世尊說法四十九年未道著一字今請和尚上堂說箇甚麼師云可惜時人不具眼何如頑石默點頭進云一切眾生皆有如來智慧德相只因妄想執著而不能證智慧德相人還證過甚麼師云不飲酥酪人不醒纔霑甘露妄生枝問靈山拈花黃龍陞座拈花不問如何第一義師云腦後見腮進云不要辜負學人師云腳跟點地進云謝和尚指示師卓云指即不是乃云第一招提豎武昌大開法席接諸方天人送供何稱美道範精嚴可羨香八卦爐中烹四相九宮鼎內煉三陽當知自性乃心佛須識渠儂是法王舉杖示眾云識麼若論者箇能彰能隱可顯可藏隨得方圓能補短長名同萬物月映千江纔舉真符揮正令十方無處不風光以杖畫圓相云山僧至此無法說只好畫箇元字腳三十諸佛在裏許任憑天下人卜度會得山僧者一著大千沙界一把撮。

上堂遞代傳來原無一法歷祖捏怪望空一撈橫身抖擻一問千答火珠入水化為龍螃蟹上山露爪甲陸地行來無別事爐香柏子青煙發上透三天下通地府東桑西榆南寒北暑聞此妙香凡轉聖得霑化育光明普呵呵昨日十四今朝十五下座。

上堂云川江大小盡歸東慶欣禪宗字字空水到盡頭旋復轉禪窮到底沒形蹤只因利物開方便權實路分理總同拄杖無非為點眼打破鴻蒙一竅通大眾通不通春到百花遍地開秋來芙蓉滿枝紅切宜保重休輕舉先報國王水土功。

上堂舉杖云放開去現森羅萬象收轉來隱八面玲瓏不放不收時且道是箇甚麼道理響高似泰山星斗遶穩如磐石水來潮珍重下座。

康熙十四年乙卯師住湖廣荊州府江陵縣祇園萬佛禪林十月結冬上堂至座云提拏祖師符令棒棒破皮血滴撐持佛法權衡字字剿蹤削跡蠲滌入我是非另有一段消息不遇知音不說破說破半文錢不值且道是箇甚麼半斤作八兩二五為一十陞座拈香云此瓣香根深盤九有枝茂透三千花蕃香法界果熟饗人天拈爇爐中端為祝延當今萬歲萬歲萬萬歲皇后齊年太子千秋滿朝文武闔國公卿伏願國富民安時豐道泰次拈香云此瓣香即色即空若圓若方中心一顆正向當陽拈爇爐中奉為各藩王殿下千千秋左右文武前後輔臣速推妙算安天下早唱凱歌定太平復拈香云此瓣香八節常青四時長旺秀氣憑地湧雨露自天降拈爇爐中奉為荊南文武大小尊官紳衿士庶稍能設心成正覺剛纔舉念步瑤天再拈香云此瓣香既無枝葉豈黏水泥非色非空不即不離拈爇爐中敬為同方設化共處利生諸山耆宿護法宰官伏願一聞正法共樂無生末拈香云此瓣香荊棘林中獲得顛倒世裏拈出爇向爐中供養臨濟正傳第三十一世上敏下樹本師和尚用酬法乳之恩斂衣坐上首白椎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云打破鴻濛現二儀東西南北化分枝恒沙世界恒沙佛百萬須彌百萬師在處顯身在處應隨方入手隨方施祇園此日重拈示不識誰來展笑眉有麼有麼問選佛場開接上機利生幢豎引迷歸不勞彈指十方集特睹杖頭第一威請問和尚如何是一著工夫師打云打開腦蓋腳跟流血金公服藥劉婆發熱進云如何是則桑樹上著箭柳樹上出漿師云打水魚腦害疼敲竹香嚴怪徹問如何是開堂境界師云百官濟濟士庶攢攢問王登寶殿野老謳歌請問和尚如何是寶殿上事師云正令施行進云四海波平八荒安寧行令作麼師云靜極恐生動進云動靜二相了然不生時如何師云切忌莫抱不哭孩問結制解制即不問如何是祇園第一決師云一條硬拄杖聖凡路掃絕進云如何是第二決師云佛不許人成鏡花任憑摘進云如何是第三決師云六月炎天冷九冬腊日熱進云九九是重陽菊花開遍香祇園復拈起笑聲覺更長師云前人做與後人笑時逢應鍾運至小陽祇園新令荊地增炎拈花微笑事如何師云不可信進云如何不信師云信則皆笑進云和尚舉拂學人揚眉是同是別師打云一把鉗錘幾處打響聲無二進云謝和尚慈悲師復打云再聽一聲問滿目虛聲如何是道師舉起拄杖進云自性彌陀如何是佛師聳身端立進云祇園一會如何是法師以拄杖一卓進云禪道佛法分明和尚又作麼生師云閉門打睡無事為貴問天以日月為用地以陰陽為用人以何為用師云門外無雨擔柴家中有香撥火進云鵝叫半夜雞啼五更師云恰合其節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山荒獸出嶺進云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浮萍覆龍鱗進云如何是人境兩俱奪

師云騎驢登嵩嶽進云如何是人境兩不奪師云涇渭分清濁進云捏拳豎脊金剛漢咬破鐵饅是丈夫師云雲白山起風向洞出不費些力諸事具足乃云燕北江南景物充玄機妙用聖凡同不明的肯起壅滯若了目前轉變通綠水注江江有月白雲歸洞洞無風十方佛刹恒沙界盡在山僧掌握中舉拂示眾云會麼若向者裏會得百千三昧無量法門盡向者一毫頭邊布露者裏不了遠觀山色青近窺水清白淫房間釋迦酒肆尋彌勒問機答話若懸河涉水履雲莫作特一切聲音色相不從眼見耳聞始得山僧三十年前執於貢高山我慢嶺勃頭撞箇無毛大蟲駭得毛骨悚然通身汗出恨即擎拏縛縛還他一頓直至斯時無擬下手處但不知法筵有下得手的麼盪搏山縛虎易破水擎龍難此過大關節切莫當等閒總叫諸人齊抖擻大家同出太平關震威一喝云山僧出脫了也而時向者萬馬群裏劍戟叢中開此法席非是山僧不識時務輕舉妄動蓋緣遵奉 王命開演宗教以助國風善政說法利生以保邦本清平所以向者烽煙之地高豎法旌大張法筵拈一炷香先祈帝道遐昌次禱萬民樂業佛日增輝拈香且置如何是太平一句良久云君臣道合天星順文武謙和王法興海晏河清崇福德山呼萬歲賀聖君以拄杖頭點三點下座。

上堂問千歲護法百官培植大闡宗風門外剎竿即不問斬新條令是如何師云畫影一揮天下定含章輕舉九垓安進云王有何尊師云德服九卿進云官有何貴師云盡忠存義進云天子令行時如何師云草木也著驚進云烏藤吸水連月飲不覺化龍飛上天師云黃鶴帶風舞辛保何不隨問世尊拈花迦葉微笑和尚如何師云老僧提棒教人大哭進云金襴袈裟已付迦葉以何付心默師云包天括地網進云是星拱北是水朝東師云聖歸聖路凡入凡流問如何是第一義師良久進云如何是二義師震威一喝進云如何是三義師云外道婆羅門衣冠同一類進云三義蒙師指昨日今朝事如何師云初三月生十五月圓問舊令新權殺活盡全三玄三要弟子瞞預師云一一問來進云如何是第一玄師云白髮老翁轉少年進云如何第二玄師云牯牛懷胎產飛鸞進云如何第三玄師云鐵樹開花結實甜進云如何是第一要師云信朋義友恩須報進云如何第二要師云為人必須全忠孝進云如何第三要師云錦鱗必用金鉤釣進云玄要蒙師指最上一乘事如何師云鞋破襪綻用他沒幹進云除卻者箇又作麼生師云無風拏雲有水搏月吞吐乾坤烹炮黑白乃云黑白未分鴻濛一罩陰陽既判規列三教道慮三關儒優九竅釋無覆藏隨情得妙且道在甚麼處自代一喝舉杖示云喚作拄杖則觸不喚作拄杖則背不觸不背喚作甚麼莫作理會正向觸不得背不得必竟是箇甚麼道理疑來疑去日久疑情成片勃然磕破漆桶跳出深坑方知碧眼胡本是西天賊捏怪九年壁安心把人惑那得渠儂在拄杖攔頭楔打著西來意呵呵兩手拍擲下拄杖撫掌呵呵下座。

上堂問法華壽量品世尊云吾壽不可稱量和尚壽能算數麼師云昨夜蒙雨點今朝松濤聲進云亦不可稱量師云馬行千里方知力健進云曹源香

水永長流師云普問釋迦降誕手指目顧和尚壽辰以何祥瑞師云喝聲如雷杖快如風逢人便劈只教盡空進云如何是未生前面目師云龜毛撐破虛空進云已生事如何師云前山高似後山進云如何是法身邊事師云隨事施為隨情得趣進云者回摸著娘生面幾番收放幾番新師云原我濟下好兒孫問壽似南山何必問福如東海豈可量從上宗乘是如何師云一箇釘子一箇眼幾度花香幾度春問世尊降誕自稱尊和尚稱尊麼師云法王座上無二人進云和尚春秋多少師云一任天下人卜度問僧俗恭慶和尚聖壽無非世法如何是出世之法師云八面鋒鋩進云也要碁逢敵手師打云照將軍進云弟子恭伸一炷香非青非白亦非黃拈爇無量長生鼎供養壽星大法王師云又成世法也問和尚降誕即不問如何是靈山一別師云獅象各威勢不同穴進云如何是祇園相逢師云名姓差別道理一同問和尚誕辰王公慶賀即不問如何是君師云端坐中心進云如何是臣師云業業兢兢進云如何君使臣師云理事分明進云如何臣事君師云萬法從心生進云如何是君臣道合師云工夫成一片不日見太平進云五位君臣蒙師指慶賀壽辰何者是福師云四海滿足進云何為祿師云八荒歌曲進云何為壽師云恒沙非謬進云恭惟和尚福祿壽三星齊拱照法報化三身體中圓兩輪日月為壽燭一箇須彌作壽丹師云勞汝擔來當酬一棒乃云孤靈獨耀當空照不識華圖幾姓春幸值諸公慶六十方知天運有旋輪此箇輪者機關之用也若論者道理人人本有只因世人被他所轉故此而有六道四生輪迴不息也所以吾先和尚開化十方禪不用參道不用學只教撥轉機關始得山僧又不然禪須實參道須實學但不被他所轉便好大眾正向參而無參學而無學轉與不轉處著意推窮仔細檢點究竟明白方知無量壽原非東土阿彌陀豈拘西方方圓長短高卑應猶如一月攝千江山僧何德何緣敢當諸公高厚若直受貪名惟恐十方臭若不受眾合一心已辦就不然奉獻三寶前自有龍天垂默佑山僧毫末不能酬但願同登無量壽。

上堂云一莖拄杖通天孔打著頭兮渾身腫剛覺輕安稍轉來卻被利名二字寵啐有人相無佛種石破山崩難合攏實實叫伊不恁麼暫將世法大家哄。

上堂云無名頓息何須禪虛妄不生那用戒只因平地起煙嵐法界漸長妖異怪為人臣者不盡忠為人子者不全孝處處有奸佞方方有惡報地產兇徒逆五倫天生大聖立三教佛降率陀化飯宮老子出胎鬚髮皓孔夫應跡在尼丘同自周時前後到化分三路教兒曹究竟原頭同一竅釋氏竅靈鷲拈花迦葉笑玄門竅金丹急採鴻濛罩儒學竅知止不離率性道老僧竅飽食煖衣熟睡覺酩酊齁軒逸如如拄杖枕邊自[跳-兆+孛]跳杖[跳-兆+孛]跳驚醒渠正當說法利生時西北東南經歷遍幾箇吞雲吐霧兒老僧今日開方權先傳聖戒純心田只待根基煉穩定線下牟尼直指傳今日辦齋毛護法大家同上般若船。

上堂云大都有佛人心穩巨海無風龍意安王道法輪未化到那知天地幾高寬所以正法難聞今已聞惟恐聞而未信大善難遇即此遇未必幾箇能行或有信者未必實信行者未必實行假此三寶邀名獲利大悲千手難以拔出吾莫如之何老僧經遊大地遍覽十方覓箇石菩薩鐵羅漢銅金剛了不可得石菩薩他有石心石腸石肝膽難忍能忍鐵羅漢他有鐵筋鐵脊鐵面皮難行能行銅金剛他能同志同謀同作佛事難捨能捨如是此等打罵不退息逆順不遷變三寶有此等利益於法門今日辦齋善人詹王熊三位莫不是者一夥大端種草方纔有堅固信心處處培植方方輔佐但有好事不肯瞞過雖然如是切莫瞞過老僧者拄杖頭邊消息以杖畫圓相云要將者玄關透過始得倘若瞞不過透不過同受淨戒漸次悟去。

上堂云幾番磨括幾番進數轉鉤鎔數轉精拄杖頭邊徵驗過一聲吼出人天驚既為出格男子應世丈夫必須要幾經煅煉幾經烹煮舉杖云從者裏一觔斗翻身出去驚天動地名譽馨香莫學倚草附木邪神妄說禍福舔唾噉腥野鬼暗地跑哮如是此等癩蝦蟆瞎跛鰲狐張猊跳痴腳豬尾狗虎勢熊威搖尾乞鄰混形截食不啻唐突宗風亦且穢污法門此中但不知有麼若有知非即改宜療救病在膏肓藥不中若無真乃獅子窟中無異獸象王行處絕狐蹤若論修行依漸次戒定慧融不二風。

上堂問千歲辦齋供眾是無漏之因大眾受戒乃有求之果請問和尚王子未登朝時如何師云無心於事進云登朝時如何師云體用雙彰進云登朝後又作麼生師云無事於心進云三朝王子蒙師指一乘法外作麼生師打云棒下徹取根原去僧禮云棒喝真臨濟家風師云纔知老僧利害問千歲辦齋恭迎和尚陞堂不知說箇甚麼師云三世諸佛猜不著啞謎進云世尊未出母胎時如何師云裝聾賣啞進云已出胎時如何師云捏妖捏怪進云今日事如何師云徹頭徹尾問大開爐鑪鉤鑄聖凡即今三聚圓滿更鑄鉤箇甚麼師云張公射箭秘魔擎叉老僧者莖白棒佛祖來時便打進云佛祖過在甚麼處師云總要具眼乃云一步不行不到家纖毫錯過有千差今朝布就菩提只待時來開花呵呵只因老漢曾拈花虧大頭陀眼未差金襴袈裟傳第一隱居雞足待龍華幸我達摩來震旦九年面壁結趺跏直指安心無覓處十方拄杖亂如麻所怪者怪的敲床打地吹毛輩引壞兒孫箇箇都學捕風捉影亂爬搗所喜者喜的張公船子秘魔槎當下教人翻身吐氣不容擬議斷盡命根即刻脫鎖解枷笑可笑靈雲睹桃花白云悟道幸有個傍不肯的具眼玄沙者一夥掩耳偷鈴瞎牛瞎馬只想瞞人誰知瞞他由上論之者個時盡大地無限裝飯皮袋普天下許多搭衣肉架只圖打哄過日三十閻王打算空手如何回話老僧替你駭怕為此在者烽煙上荊棘中豎法幢開爐鑪鍛煉諸方見性明心成佛作祖出脫三界說甚閻羅打算諸佛尚無如何是則雖是今日王爺設齋供眾如何是謝齋一句良久云參透祖師至奧一切恩光具報法說利己利人教化進忠進孝傳錫竟下座。

上堂問臘八^已去即不問今朝上堂事如何師云古佛行新令進云如何得豎窮三際橫遍十方師舉杖云拈起帝釋心驚放下鬼神膽顫進云不拈不放如何師云得大自在得大安樂問昔日世尊陞座文殊白椎便轉和尚重陞好似雪上加霜師云前賢說夢去後人緣夢來進云學人夢眼忽開如何變得師豎杖云老僧者是試金石僧一喝師云三五乘僧蹬足師云七八乘僧以具一拂而退師云足色問滿面春風時師云人逢喜氣精神爽進云覲面相逢是如何師云語不投機半句多進云如何是當機不讓師打云豈肯放過僧自扭鼻作牛嘶一聲歸師云者畜生當酬水草問雙桂發枝荆南茂盛即不問如何是教師云大好熱鬧進云如何是禪師云杲日高懸進云如何是禪教師云客來言是道非客去或坐或臥進云不禪不教如何師云糞墻腐木何堪用乃云說得高行必高不枉閻浮走一遭金冠甚過烏沙帽衲衣豈肯換龍袍快樂者不亞於有道衲子安逸者難比無事禪豪豎立宗風少不得有箇內呼外應興弘祖道自是有來正打傍敲故此東方有掌教釋迦文西天就有接引阿彌陀佛未嘗不是內呼外應收放抽騰即此荆南城外有天皇城內有祇園安得不是正打傍敲縱奪殺活者也山僧到此感我白牛禪德往往而來互相贊揚以為後學標準不分彼此融通和順可作人天眼目又來效金牛造香齋飯眾堅請上堂吩咐大眾匙到口邊休[噉-邑+夕]著半頭米。

上堂問臘月十九日王爺誕期曾未識面特來當機師云拄杖有眼句句落款進云承當事如何師云汝能有補天手麼進云一呼白雲高萬丈一喝黃河水倒流師云向者裏喝得麼僧連喝連退師云只好喝進不能喝出問鳳曆^已頒龍樓協瑞千歲壽辰海宇同歡如何祝壽一句師云太虛可包人心難量進云驚嶺分枝天皇挺秀是佛耶王耶師云百萬香海水源頭無二流問日映龍山煙嵐秀風送章臺古梅香滿天佳景渾露布拈來法席作壽章壽章文章如何安排師云天地玄黃辰宿列張昨日獅吼今朝鳳翔進云和尚杖頭懸日月學人坐具帶風雲師云大家齊擔荷問王爺出師四海歸依若問太平心地光輝如何是光輝師云耀古騰今進云如何是太平師云一念不生進云如何是皈依師云福祿壽齊進云如何是福師云喫得病得進云如何是祿師云行得坐得進云如何是壽師云長得短得進云福祿壽蒙師指當賀千歲千千歲師云知恩報恩始得乃云問王福祿壽恒河沙數年喫恒河沙數以為籌仔細算來無盡休惟有我王真佛性隨機應現轉風流顧視左右云謾道今朝果是我王千秋耶若論殿下誕辰天地同根日月同明無來無去不減不增左旋南斗右拱北辰德超六合道伏九卿靈山付囑普濟群生應跡娑婆出現大清金枝玉葉神子龍孫才通文武學貫古今當今信愛封大將軍一條直腸赤膽忠心威鎮荆南土庶霑恩雄師赫赫殺氣騰騰龍降虎伏魔消膽魂雖然如是恭敬心中存三寶忠義頭上頂君親所以山僧向此祇園堂上白椎集眾吹大法螺擊大法鼓鳴大法樂豎大法幢登獅座上法王臺信手拈起無價寶香爇向長生爐合掌躬身慶賀遐齡口

呼千歲千歲大眾異口同音慶賀已竟如何為讚祝遐齡之句八山作燭千年照四海為田萬劫耕。

除夕上堂云年盡更添春月完復起正陰陽含逆順拄杖有縱橫舉杖云若論者段風光千賢同登萬聖共成方方得妙處處光明扶起耶通天徹地推倒耶法界香馨自從把在山僧掌中不畏推倒那希扶起自放自收縱橫無礙即此拽向荊南有眼者同觀有耳者共聞幸遇今朝是箇除夕之日必須要除卻見聞覺知始得呵呵年已除耶月已除耶幸有日在更有時在稱此之時敲起楊公鼓踢起雪老毬吹起無孔笛彈起無絃琴老僧鼓起利生掌大家同賀太平春撫掌呵呵下座。

解制上堂云百日期場以此周利生之念永無休權收[罩-卓+路]罽斂綱線海晏河清別下鉤雖然如是山僧初住祇園仗彼諸禪德雲集堂中常聞鐘板分明一旦星散且教老僧聞箇甚麼內外謙讓和美朝參暮請毫無相犯實實不忍捨離倘或家有年高師長是必往返周旋可矣若無罣念繫心宜可向者不寒不熱爐邊燠蒸熅炙只待養得神滿氣足那時間點石成金乳雞化鳳豈不美哉或有同住者不免口業未盡若無僅落老僧孤迥迥一身潔白光灼灼逍遙快樂去也掉視拄杖啐還有者護身符子連者箇東西也要交代便好若論者箇道理出沒無常非心可測非(識非)情非空非色貴賤賢愚不起分別任佛任魔攔頭便決拂開鏡塵拈出空花吸乾江水掬起明月六月天寒九冬腊熱綠水然巨火紅爐飛片雪渡海擊龍窩過山拶虎穴到家知所止時來伴金闕自我本師送在渠儂肩上只得挺身出頭一肩擔荷從西至北遊東轉南總要覓箇深根固蒂發榦生枝開花結果顧視左右云滿堂俱是僧眉目不差分若不辯驗過金沙玉石豈能分每人三十棒掀翻徹底清銅頭鐵額漢子頂天立地丈夫出來直下承當麼明旨禪人昂然近座禮師云老僧者拄杖祖師榜樣承空一棒帝釋心驚諸天膽散打開頂門慧眼現出森羅萬象千里平川吞雲吐霧萬仞山巔興波作浪祖師門不是訶諛苟就必須眉高眼曠自獲龍降虎伏天人欣暢速去說法利生列國興創獅子座上親授祖師慧命遺藏付揮印舉杖云者寶貝不屈卑自尊貴侍多年不忍棄曾閱藏多羅偈法傳東雙嫩桂此二子莫如是所以親傳不違古制打下云棒頭落處現真如脫卻樊籠證祖位傳衣云者領衣諸佛流傳諸祖根基內隱萬象森羅外現八寶珠璣師手親付王公說法先披次云者領衣如來慧命後學體規諸天恭敬龍虎相隨覲面親授莫當依稀二禪便禮執源流云蓋緣汝等徹底掀翻老僧只得和盤托出咄托出箇甚麼舉起云左為金梁右為玉柱曹溪一脈流通祇園派分兩路雙獅齊吼百獸回互二子向前老僧退步即日二人秉拂上堂師歸方丈。

康熙十八年己未祇園結冬上堂近座云佛法當機正令行倚天長劍不容情佛來魔來一齊剿掃盡煙塵見太平陞座拈香云此瓣香天星拱照葉厚枝肥地氣旋潮根深蒂固拈爇爐中專伸奉當今萬歲萬歲萬萬歲皇后齊年太子千秋各藩殿下睿算千秋滿朝文武闔國公卿荊南文武宰官紳衿居士伏願禽飛鳴堯德獸走嘶舜仁四海消邪術中土興正文斂衣坐明旨和尚白椎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云若觀老僧第一義鐘響原有口雲飛卻無翅風來水生紋霧起山吐氣紅白論日月清濁分天地四時變寒暑八節排卦位萬物總皆空虛空無正義明眼衲子出班證據問袖衲乾坤胸藏日月包容萬象即不問如何是眉上挂劍師以杖一卓云看利害進云此是法身事有體無用如何是體用雙彰師云再待大夢一回醒轉來向汝道問趙州有僧問狗子佛性道有道無請問和尚如何是有師打云打者狗頭進云如何是無師云遊獵失歸蹤進云不有不無如何師云坐觀空花落盡自有一段春風問向上宗乘且置如何是三玄三要師云次第問來進云如何是第一玄師云泥牛吸乾四海進云如何是第二玄師云石馬走出三關進云如何是第三玄師云畫龍畫虎相爭爪牙脫落如山進云如何是第一要師云把門用虎豹進云如何是第二要師云燈遣日月照進云如何是第三要師云塵呼風來掃進云三玄三要蒙師指別有三語請師宣師云好言難瞞眾耳進云如何是學人得力處師云把住放行進云如何是轉身處師云棄巧為拙進云如何是親切處師云喫飯穿衣打坐經行乃云喫飯穿衣他就我經行打坐我由他識得現前真受用菩提寶樹重開花眉放白毫吞萬象杖挑紅日吐千霞有時全放卻百千三昧張於法界外有時全收卻十萬須彌斂於芥子中唯有老僧者莖白棒不放不收不張不斂亙古長明體自如如舉起示眾云會麼試告大眾三世佛祖前說後說說他不著了也千手大悲橫摸豎摸摸他不著了也唯有祇園老漢善巧方便今日為大眾下箇註腳以杖畫一圓相云無量法門恒沙世界一切受用俱從者裏起雖然如是萬不得已也是畫蛇添足且道如何是一喝云只因帝釋一莖草亙古叢林步站高。

上堂問福田賈居士受戒能成佛麼師云在家修行勝出家猶如火裏長蓮花進云出家因甚不如師云愛河水漲翻般若無名火起燒菩提問在家業重根深安能成佛師云不信但觀龐居士滿門盡向涅槃城進云世間幾箇似他師云奮志者丈夫乃云玄元孤迥正當陽一照無私處處張特為座前眾弟子指條直路上西方且道西方在遠耶在近耶若謂遠無可抵坎若道近不離方寸仔細看來不遠不近前佛後佛同體貴賤賢愚共性穿衣喫飯返觀迎賓待客逐問動作施為阿誰拈柴擔水本分假此幻軀形痛癢痠

癡相應要得四大輕安通身是藥療病疑情片片現前拼死撕挨拶掙勃地
爆破漆桶曠劫業障消罄尋常保養聖胎囂塵渣滓磨盡韋馱推送出來說
甚龐公果證盡力護培法門不枉持齋發憤。

上堂云化風擬動雨花飛無限蜉蝣失所歸撥轉天關忘異路一輪高照物
情暉舉杖云會麼魚可化龍凡能轉聖只要撥轉機關始得且道者箇關子
如何撥得轉謂是將手撥耶以拄杖撥耶不然總要一念歸真無事於心空
空寂寂徹底澄清如嚙栗蓬難吐難吞忽然嗑碎白汗渾身果到恁麼時節
大千沙界隨吾轉百億須彌握掌心掬乾東海和雲拂吸盡西江連月吞若
也未休把化城當寶所謾將館舍作長安試問到家親切處水在長江月在天。

上堂問扶註郢嵐受戒且道禪戒是一是二師舉杖云者是一是二進云既
然如是何言戒定慧師云仁者自生分別乃云戒若禪兮禪若戒兩彩將來
一處賽萬法俱空空亦無三世諸佛何足怪所恨的西天碧眼老胡來此東
土遺場大害面壁九年也罷說甚麼斷臂安心連累兒孫大不自在參禪的
如聾如啞似癡似默受戒的提起放下處處粘帶看起者事若道易遍地釋
迦若道難法法現成即若不難不易又作麼生揮拂云識麼過去佛祖者裏
翻觔打鬥俱出不過者箇圈圍現前聖眾亦跳不出山僧者格子眼倘或有跳
得出的向無佛界中放光動地惑亂人間男女去也跳不出的老僧與他添
箇之繞向三領袈裟線下討箇端的始得依衣傳戒下座。

上堂云方便門開任憑智愚可進法道悠長何妨頓漸而升進一步一步受
用陞一級一級功勳雖然山僧如此說莫疑喚作如來禪若論如來禪一窩
葛藤盡理完理到無擬下手處甚似水皮打一拳即若祖師禪無非敲床打
地咳吐掉背揚眉豎目一棒一喝恍然瞞過在祇園老僧分中決不出者箇
籠侗糊塗題直教世人明顯易見當下決了百法明門無非從自心中流出
山僧要將百法門歸還於心何以教之參禪的參自性中真禪受戒的受自
心中真戒念佛的念自心中真佛持咒的持自心中真咒皈依三寶的皈依
自心中真三寶恭敬人的恭敬自心中真人凡有施為一切不離自心中真
心豎拂示眾云且道者箇是心麼若論者箇離心意識參絕凡聖路學始
得眼見耳聞口讀心思總不離者箇且道者箇是甚麼一喝云徹底看來光
灼灼何嘗一字半之文特因初地發心者只得勞吾兩片唇下座。

上堂云佛昔傳衣未說戒初緣起自目犍連更兼舍利禮恭請後有波羅結
集傳直至斯時衣戒併持體用雙彰理事俱備雖然如是無非莊嚴法界補
助形儀若有骨力漢子向三條椽下七尺單頭豎起脊梁剔起眉毛咬定
牙關捏緊兩拳決要將未至以前一著道理看得端的畢竟是箇甚麼忽然
迸破漆桶那時間方知老僧為人心切今朝只得將小乘毘尼一字一句從
頭到底宣讀一番又以三衣鉢杖經書佛像一十八種隨身器物一一授汝
等看向甚麼處註腳是則是坐一滿案行一重擔年深日永意生疲倦那箇

時間切莫錯怪老僧呵呵看起一般擔枷漢解脫不知到幾時會得老僧親切處何須節外另生枝衣是戒戒是衣一十八般助道基。

上堂云今朝是臘八牢關一齊拔放下千斤擔如同卸鎧甲果到恁麼時稍得輕安自在為小悟門古人大悟一十八小悟無其數纔敢言箇成道得大自在得大解脫且問大眾此道實有成麼若說無所成何故言今朝是佛成道之日若謂道實有所成因甚云在聖不增觸凡不減既不增減道不屬修亦無迷悟向甚麼處成都是哄殺人不償命的老僧當初以機就機就巢打劫幸得有箇引鬼入宅的是儂一把扭捉快說道在甚麼處急急問起到空空無所處不覺撒開兩手人我並無睜起眼來啐原來是箇夢諸仁者人生天地間千思萬想東走西撞如同一場大夢只得夢眼忽開法法頭頭見得分明方一毫無礙所以世尊常夢作國王忽從此日夢眼一開四十九年與人說夢話百萬人天沒得箇會緣夢的人落得迦葉尊者破顏微笑直至斯時不知笑殺多少人呵呵不是做夢人難明夢裏事若明夢裏事還他做夢人後有會緣夢的與老僧知道。

上堂問設或人行半途到家事如何師云駐馬停車進云也要賞罰分明師打云分明進云如何是佛祖頂門眼師云輝天鑑地進云眼裏著得沙麼師云四山五嶽不礙眼角問如何是法身邊事師云括地風不息磨天鏡常明進云如何報身邊事師云飛錫越秦嶺騎牛過函關進云如何化身邊事師云玉盃盛酥白金盞酌酒黃進云本地風光事如何師云逢場作戲遇樂鏗鏘問如何是七寶池師云果熟花香進云如何是八功德水師云心清意潔進云白玉池摘一枝蓮供養和尚乞一言師云不帶塵泥不染水毘盧頂上任[撲-口+鼻]眠問向上一事即不問千聖不傳事如何師云原非分外進云恁麼金風吹玉笛那箇是知音師云會打鼓的能識唱進云人人皆有冲霄路師云玉殿金階誰敢行乃云無論中途半途只要肯行行必到家那管法身報身誰敢承當當即受用七寶池全身暢快八功德水四海流通此般造化妙難窮皆是人人真受用舉杖云會麼步步黃金頭頭白玉橫順手眼無窮精翠古人今人一般雄志煉石補天推山填地莫學狂頭採藥補氣外烹五金內運三昧子午卯酉抽添辰戌丑未進退坎離非真水火乾坤作假鼎器只待神全氣足隄防堅守如意狂妄邪心忽起霹靂一聲粉碎聞此嗅此若迷嘗之噉之同醉渾身透徹通神雖仗龍天覆庇唯我祖師直指獨悟清高證去舉杖示眾云唯有者箇金丹與牟尼寶珠兩下元來無二。

上堂云數日說戒不曾侵禪腳跟點地不妨向前問世尊說法四十九年如何是真實語師云如是我聞進云如何不真實語師云依教奉行進云如何教外別傳師云七尺烏藤八面禪龍問三心不可得過去心何不可得師云泥牛吞卻海底月進云未來心何不得師云冷灰埋豆不肯徹進云現在心何不得師云鏡花任憑摘僧作禮師云做賊人嘴硬如鐵乃云鐵嘴禪和不識心擅來座下妄分諍攔頭皆打三十棒頗恨皮毛太厚深切莫棄溺投火方知火即是燈山僧大開法門接利十方闊展紅爐鍛煉三有百尺竿頭宜

進步絕頂懸崖休撒手一問一答超過三百餘會之糟粕一棒一喝斬斷四十九年之葛藤英俊子目前領喏論甚的今朝明朝伶俐兒直下承當說甚麼此時彼時舉世尊曾問大眾人命無常在幾問答十日間或云七日間或云飯時問世尊云俱未為道後有云呼吸間世尊云汝能為道試問大眾離卻呼吸以何為道眾無語師云向者裏只得鉗口結舌山僧為眾頌出日日日出扶桑月月月圓十五天青水綠地黃虛空面目誰睹當知長蟲是龍大蟲是虎切莫昧燈求火騎牛覓牯揮拂示眾云會麼會得千了百當不會千生受苦百億門庭難逃一塵。

上堂問鳴鐘集眾和尚陞座為王祝壽一句如何道師云慧日當陽進云何為王德師云剎照塵照進云何為王福師云前有後有進云何為王壽師云東山西山進云何為王道師云進忠進孝進云如是全仁全義當來作佛師打云妄記於人問三教聖人談玄談妙論理性今日王爺千秋和尚說箇甚麼師云杖撥日月塵拂聖凡功高十萬果滿三千問揚眉豎目乃法身邊事師云還我色身邊來僧無語師打云打破臭皮袋現出本來人問如何是兔角杖挑潭底月師云兩頭看清白進云如何是龜毛繩繫樹頭風師云八面歸來一吸中進云如何是枯木逢春接嫩枝師云萬物定有時進云此是甚麼時師云龍將出穴鳳欲離巢問如何是王爺求福處師云十方界獨敬三寶進云如何王爺求壽處師云百法門不離方寸進云福壽兩全還求甚麼師云國泰王豐民安物阜問佛從何方來師云佛本無方豈有去來進云說法也未師云石點聾聽頑皮未信乃云聽得著耳根圓通睹得著頂門眼開如壽星燦燦四海交輝德風威威八荒寧靜深喜我王文通孔孟武及孫吳三教九流總包括諸子百家一目覽祇有四箇字纔是我王真受用且道那四字忠孝二字註青史千古不磨德行二字傳世間百世馨香唯有壽之一字稟命于天隨德行而增長明造化以天齊今朝千歲千秋無以慶賀只好說句無生話如何為無生良久云亙古不老山青永遠長流水綠不增不減虛空無去無來真佛以拄杖一卓云隱在三三顯於六六。

除夕上堂云袖裏乾坤藏日月壺中世界隱山川須知箇事無寒暑更有逍遙一洞天若把就中者事明白釋迦老人劫劫作兄作友從此不了閻羅老子生生為冤為讎休怪老夫如此說奈乎三十臨頭閻老飯錢毫不饒未嘗不帶兩眉愁祇園老漢則不然殺人放火成佛成祖看經念佛作馬作牛不若兩頭齊放下大家打夥學拋毬好節好時休錯過得風流處且風流呵呵梅花片片飄街頭下座。

元旦上堂云一年日腳從頭起萬物逢春長玉蕊金牛米熟成香飯雲門餅濫如臭屎拈起香示眾云還有得聞麼若從者裏聞得著受用無窮者裏不聞無窮受用何得如此切不可從口嘗鼻聞始得祇園堂上拈爇爐中供養佛祖三教聖人同一坑土當今萬歲永為人王帝主荆南當道宰官長作萬民父母合堂聖侶願此真香一普十方聞者謾道粗鹵七十二行各有清楚且道祇園清楚在甚麼處震威一喝云一喝粉碎虛空一棒依舊填補。

解制上堂云三載航海九年面壁斷臂安心曹溪分席五葉花開三拳結實直至斯時吼喝如雷振八方拄杖似麻懸月日雖然如是幾通消息墨煤未分烏焉莫識豺豹作儻狐狼群集所以山僧正要在者攪雜離亂中整理法門沒箇知音同心協力枉勞一場空虛徒張聲勢何益看起者些懨懨何常半點意氣若論結制萬緣放下一念真純入道之初名為結制提起本參晝夜切磋琢磨千生業障一刻冰消瓦解悟道之終名為解制果到恁麼田地纔不辜負己靈亦不空消信力山僧者裏不結不解作麼生理會呵呵一窩惡水休潑盡更留幾杓待知音。

康熙十九年庚申十月住遠安三化山朝陽庵開山云荊棘劈開建法幢無邊妙義廣含藏今朝就裏親拈出一段光明照十方揮杖云拄杖撥開千手眼金沙湧出白蓮香次年二月進院山門云遙來佛址正當陽內結蓮臺湧道場左列青龍拱瑞象右排白虎朝師王堂中盡是伽陀客世外並無狐野狂從此今朝開法後燈傳綿遠道風香近座云退隱居山卻世繁風聲鳥語太無端今朝只得應時節箇事從來嗣有緣陞座拈香此瓣香不同四季榮枯相豈受三光秀氣粧朝陽堂上親拈出端祝皇圖永久長次拈香云此瓣香描不成兮畫不就十方法界同香臭法筵聖眾得聞聞自獲神天垂默佑復拈香云此瓣香驚嶺分枝曹溪發幹濟北花開萬峰果燦今從三化山上重拈出供養先師敏老漢斂衣坐白椎竟問答未錄乃云辭卻祇園住大平一方應跡一番新竿頭撥轉潤三有拄杖挽回利四生方便先傳根本戒開爐後煉礦中庚平生不說二乘法頗賴利鈍機淺深所以戒者乃小乘毘尼而為裝嚴外表法身內純心地禪者最上一乘無極之道悟之者超脫諸有故此今朝先傳聖戒而為進道之基後示心宗永作出世津梁由戒生定發慧見性明心莫不由斯戒也。

上堂云莊嚴聖戒精同禪會得過來無二三檢點現前真作用百千三昧一毫端試問離者一毫端又在甚麼處呵呵謾道老僧不道破道破依舊惹人嫌識得的兩腳著地不識的雙眉朝天多嘴阿師實道出方知鼻直兩眉橫當初只為分南北直至而今落二三者裏有不落二三者麼出班領戒。

上堂云拄杖向東南鉢盂朝西北曇花晝夜繁總教人識得且道識箇甚麼莫不是善人發大菩薩心來此飯眾聞法得省父母未生前面目者麼若論者箇道理自幼未出閨門時梳粧臺前見過了也呵呵百年三萬六千日返復原來是者箇珍重。

上堂揮拂云會麼此是禪耶是戒耶若道作戒觸犯不得若道作禪逆背不得不觸不背喚作甚麼一喝云不是戒兮不是禪無繩自縛討縈纏袈裟三領遮千惡錫杖一莖斷萬緣絕是絕非忘四相離聞離見了三玄從今不墮有無見一味平常悟性天。

上堂云此箇清幽絕學門十人進步九難行實是吾家真種草豈肯虛張留浪名今朝陞座無別蓋緣眾善聞老僧刈草立標竟誠來辦齋堅請登座說法老僧到來無法可說祇好唱首太平歌以酬信供有耳者諦聽師良久云聽麼文詞將近梵音深遠。

上堂云白牛牽轉耕心田一顆菩提子種堅只待開花結果日不勞舉步到西天昨因眾善至此老僧將西天一夜移在目前舉杖云見麼若向者裏見

得八功德水平地湧出九品蓮花滿地放開從此不了葛藤遍地長荊棘滿山生。

上堂舉杖云高懸慧日明暗色空俱照萬物光輝揮拂云甘露一灑山河大地清涼含情霑潤且道還有照不著潤不到者麼擲下拄杖云木上座疾速去遮天蓋地掃盡狐群狗隊貴乎天下太平。

上堂云贊不喜兮毀不嗔失脫楊枝有淨瓶雖然無有觀音願慣好人間保子孫但有至誠懇禱者自獲熊羆夢裏驚今朝山僧不吝囊藏開大便門效我觀音大施慈悲亦作三十二應凡有希求必獲如意名題張居士特因祈嗣來此若合符呵呵雙雙蝴蝶庭前舞隊隊麒麟堂上威離愛割親龐善人求緣祈嗣張居士一箇是開籠放雀一箇是垂鉤釣魚謾道其中無縱奪但觀舉意動機時。

南漳臥龍寺紳衿監院因佛誕迎師至山門云佛祖門庭表裏相稱瓦子外敲主人內應賓主分明理事清正優劣雖分智愚同性雖然如是權把智門暫放開後任世類一齊進天王殿喝云幾箇村夫形勢太麤威鎮山門莫妄征誅摧邪輔正沒箇親疏老僧至此轉法輪遣任遣兮呼任呼至大殿門云惟有到頭一著難剛纔擬動落言詮不聞不睹難思議仰則彌高鑽則堅撒手懸崖轉步易到家祇在剎那間至佛座喝一喝云大膽太麤心三界獨稱尊兜率不消得娑婆賣風聲拈花略些子亙古遺禍根今朝覲面親相會只得躬身禮拜尊展具三禮據室云摩耶室而原窄祇容百萬人天有請彈指說法無事高枕[嘆-口+鼻]眠調和六味濟饑寒免教人人少欠監院興安辦齋請上堂至座云異響天樂法螺法鼓齊鳴此箇法王寶座不免老夫親登青獅白象一齊吼狐兔群邪膽碎傾震威一喝便陞拈香云此瓣香葉覆大地枝滿乾坤信手拈來奉為當今滿朝文武邑郡紳衿法筵善眾一火動蒸只待菩提道果熟永證金剛不壞身斂衣坐白椎竟若觀老僧第一義未出丈時以全備既登無畏法王臺信手拈來無不是若從者裏犯鋒鏑一棒虛空都打碎舉拂示云會麼以拂一揮云回光覺照易向外馳求難昔日優填王思佛刻梅檀處處遺蹤跡教設顯實權利根演直指鈍頑說二三普眼觀色悟觀音耳根圓拈花安心事平空把人瞞四喝與八棒三要及三玄既道無一字何故落言詮天龍明一指一生用不完渠儂分上事不比眾老先未入門時三十棒欲擬開口攔腮擲著有著無盡成非聞聲睹色都是瞎若了明無一法但覺胸中一點恰纔將者點掃乾盡又報皇宮生悉達。

上堂云今朝是佛誕感動眾上善都司張護法同造金牛飯供佛及供僧老僧酬一半還有那一半各自返觀看舉杖云見麼一卓云聽麼若論者箇道理三世諸佛有口說不出歷代祖師有耳聽不入此是達摩西來直指安心教外別傳梁皇覺得後追悔通國人迎永不還面壁九年誰敢怪安心斷臂惹人嫌且問大眾實是安心安耶無心安耶若道有心安虛空面目難描畫水月鏡花誰敢攀若道無心安碓頭米熟三更盡獨獠無故道風旛曹源香水長流永一花五葉至今傳所以山僧隨帶一枝半葉至於臥龍院中欲嗣

一箇知音惟恐大眾道吾私心不然放在拄杖頭上上供諸佛以作慶誕次令法筵僧俗具眼者可觀舉杖云見麼若向者裏見得枝枝葉上立彌陀朵朵花中坐釋迦其或不然方寸田中種顆子因緣時至長靈芽呵呵宏福清福總不差。

上堂云只因懶畫杖頭圈退步閒居三化山晝任風雲簾外舞夜隨星月枕邊旋經行坐臥運時節喫飯穿衣推歲年今幸諸山禪客至一番拈起一番鮮所付者居山日久面塵口[泳-永+(嘆-口)]惟恐方不影圓直不映曲蓋緣諸座而求戒緣眾善來祝予齡只得勉強陞座將二十年前舊家私拈出其前有耳共聽有眼同觀舉杖云見麼一卓云聽麼若向者裏見得真聽得清受戒的不勞披展一時體全祈福的不假布施福壽綿延此中勿論在家出家是儒是玄既到山僧者裏大家共處團團龐公云大家團團頭共說無生話大眾者無生話如何師良久云莫道無生無不生無生話說等知音朝陽山峻路蹊險到此應當續祖燈傳戒竟云吾年六十六世事頗知足富貴如浮雲榮華若電拂栽茄不結瓜種豈生粟一顆菩提子阿僧劫保蓄今日拈來供十方人人收斂心田浴至待功高行滿日自有龍天推送出到者裏說甚佛光明放出遍河沙鐵笛橫吹還鄉曲。

上堂云冬九嚴寒萬物休漁翁罷釣挽舫舟若無獅子不張網既有鯨鱗可下鉤所云者惟政禪人自丹徒數千里遙來乞戒重請陞堂先說戒中消息以便行持何也戒有兩般心無二用兩般者心戒相戒二用者體持用持戒者心也衣者意也心意相連戒衣不二心舉意動心定意寂意如野馬心似墻壁意若狂猿心能拘執渾然無心大事已畢此乃心戒也相戒者三衣鉢杖儘有收放披則禮佛酬則架上觸衣褲子紬布一樣若著此裳斷見疑謗不著此裳盲跛失杖戒如將軍衣似護將將若出師良馬先撞將軍安營四顧堅壯日謹看煙夜謹觀火晝夜提防六時躊唱退則歸隱進則開創凱角一聲幾生幾喪此戒此衣如將軍披鎧努力前上永無退轉之心必得取勝平蕩心戒相戒一復如是戒有鈍漸持有次第比丘戒若舉子菩薩戒猶進士禪師乃法中之王不敢輕自妄諭視聽分明出班受具。

復回祇園上堂至座云無為為座性空作臺試問阿誰原人再來陞座拈香云此瓣香世出世間全體獨露劫前劫後迴脫根塵今朝拈爇爐中奉為當今皇帝各府王公楚屬尊官本郡紳衿法筵善眾伏願壽同海嶽福與天齊斂衣坐云者遭不比那一遭一番提起一番高有問老僧的的句一棒到頭一箇炮問今日打明日打不知打殺多少人師云頗恨不上心進云學人上心如何師云上心必死問和尚此復回何其太惡殺師云當初攝魚上鉤而今敲骨打髓進云聞者耳痛近者腦熱師云曾不下空鉤沒箇魚兒有箇鯁問趙州狗子有佛性為山牯牛有也無師云雖有佛性皮毛太厚進云魚無皮毛和尚可教麼師云一釣便上鉤進云上鉤時如何師云鮮炒熟賣乃云閒來無事四方釣魚龍螃蟹一齊罩魚化為龍志氣高蝦蟹成蛟皆悟道為山水牯性氣粗趙州狗兒怪亂噪此回敲骨打人髓惡辣臭名識者笑野馬

野牛喚不回畫箇圈兒任[跳-兆+孛]跳舉杖云會麼唯此者箇無毛大蟲三世諸佛捉摸不見獨我釋迦老人雄才多諸方便先將五戒縛定六根次以十戒惡轉十善二百五十條條緊綁再加四百密扎一遍返復自問罪從何起仔細推敲毫無些犯覈定罪福無受無持一身潔白戒純自斷持戒原係鐵石人參禪定要金剛漢擇身心如皎月陞堂入室方纔算。

辭眾上堂同居荊楚已多年不忍分星眾了然噯寧可攜風帶露走安能倚草傍蘆眠從來海鷗嫌天窄自古井蛙喜地寬幸有漁樵來接引一層波外一重天諸兄弟聽吾言苦口叮嚀告眾賢莫把光陰錯過了掉頭不知甚麼顏任憑八萬四千門脫卻輪迴第一禪勤苦戀急窮研不明生死莫貪眠話頭一舉疑情起緊把繩頭著意看工夫做到兩忘處自然有日得輕安得輕安莫放鬆猶如烈馬去追風追到無涯盡底處急加鞭更向前沖兩腳踏翻銀鐵壁一手扭著主人公哈早識鐺頭生鐵瀉方知佛殿是泥龍若還不識主人面取箇譬喻與眾見大塞乾坤細微塵體若虛空形似幻難描難畫自如如長短方圓隨物喚一毫頭上放光明六根門裏神通變聖凡分上無增減諸佛眾生同一岸老僧今日分明指行行句句如秦鑑扭轉機關消息子貪名圖利精扯淡頌曰授師密教到荊襄惡辣鉗錘鍛十方煉箇師兒眼孔窄稍纔得意逞輕狂不如退步回川去自有諸方論短長法嗣算來五十四塔前幾箇去拈香。

上堂至座云寶座威威瑞氣生如來留待老僧登今朝佛誕正其時直上拈香報四恩便陞拈香云迦毘羅排芽摩羯陀發叢波羅奈開花拘尸果紅手疾拈來先奉蒼穹三教賢聖人王一同但願聞香凡轉聖三塗八難不相逢斂衣坐云愍念眾生嘆苦哉別離兜率出凡胎諸佛降生於此日普天匝地供香齋所以德明叨為佛子無何報恩營經磕頭化眾信心營齋辦供供佛及僧三宗有益九族無驚聞法信受漸長善根有力施於三寶地掉過頭來享現成。

上堂問今日壽星親降臨和尚可見麼師云見進云向甚麼處見師云鶴帶雲飛鸞隨風舞問一部藥師經能延多少壽師云字句行行算清報來向汝道進云句有長短字亦無量師云福有厚薄壽無增減乃云佛法周旋宇宙為人增福延壽求男求女求緣只在一經一咒若遇無心道人稍靜剎那百就一般喫飯穿衣功悟淺深薄厚縱有擎龍縛虎手水中捉月不能搆識得玄元真奧妙海作福田山作壽。

康熙二十二年癸亥自楚回川僧俗請仍住聖壽石牛寺三月初十入院山門云法門高闊原無禁星月風雲任往來照顧腳跟妨滑石休行傍側踐蒼苔至天王殿基云分明本是天王殿四聖何方去顯靈佛祖宗風重整頓速來聖壽鎮山門至正殿基云虛空作殿住千佛日月為燈照萬靈天垂寶蓋覆大覺地湧金盆托真人無為真佛坐其中妙性圓明不露形顧視左右云見麼若向者裏見得勿勞插草焚宮竟纔舉新符萬物春者裏不見正好其中具隻眼同證金剛不壞身舉杖云還見麼無為真佛從老僧者拄杖頭飛

在諸人眉睫上放光動地總教人人覲體承當休錯過徹底掀翻可放心若信人王在世佛當知法王出劫尊進法堂云多年行腳身居外今日方知得到家經歷十方留正眼任回西蜀利三巴利生且止如何是到家一句良久云青山綠水還依舊世事人情毫不差即日眷眾辦齋請上堂至座云老衲離鄉十八春四海攀留獨捕麟百計千方隱不住任回聖壽顯精神喝一喝便陞拈香云此瓣香不老不嫩無舊無新拈爇爐中奉為聖君滿朝文武闔國公卿西蜀尊官文武紳衿諸山耆宿合道場人大家伸出補天手早悟伽陀身外身斂衣坐白椎竟師云四方經歷覓投機不識其中更有誰真實餐松飲露者如今正是出頭時有麼問和尚仁慈浩大經歷兩京十省幾許學人當機師云說禪的似牛毛悟道的如兔角問和尚到京師受王候供以何酬答師云平常但無心日費斗石金進云今日聖壽又如何師打一棒到頭一跡痕問因甚麼獅子窟中無異獸師云百鳥豈肯棲鳳巢問佛性平等無有高下因甚商虐周慈師云佛性本不二天性各有殊進云佛性既無二何言迷乃眾生悟即是佛師云分別不少進云望垂明示師打開頂門眼佛性無迷悟逐境情緣生脫空曰自度乃云自度度人人自度生死關頭無兩路豎起一條鐵脊梁六門緊閉牢拴固一朝嚙破鐵饅首扶起放倒任渠做須道老僧行腳兩京十省週轉一為先人命令二留名跡施展學道先存利生遞傳心印法眼一棒打箇唧溜漢何愁法門不高顯青毡須去黃貂來豈肯邀譽圖近冕貧衲近將七十旬回川尋箇老落點孝順賢徒賢孫至意誠心厚款從此師徒團圓早晚切忌疏懶二時佛事精嚴堂中勿缺鐘板時時舉起正念工夫漸漸前趨一口吸盡西江莫枉回川一轉獅子窟中獅子吼鳳皇巢裏鳳雛閃古古今今一般手眼。

上堂云今朝盡道佛生辰宗匠原頭第一人特此拈香動鼻孔誰知面目太羸生三祇果滿超凡世一念歸真出五行拈花出自無心舉十方因此俱稱尊四七二三分兩土塵塵剎剎鼓風聲七十正傳歸聖壽慧燈續燄永長明今朝幸我孫居士上供拈香慶世尊香爇爐中供諸佛法宣座上示當人拈起香云者是香如何是法佛云止止不須說我法妙難思多寶云快說快說願樂欲聞拘此者二大老一箇止說一箇快說且道說的是不說的是今朝在山僧分中勿論說與不說是與不是兩片口皮嘴上生一莖白棒手中利上柱諸天兮日月星辰無二光下著匝地兮艸木叢林有四序運轉五湖四海兮指定波瀾清透底週旋四山五嶽兮化頑為賢愚轉智龍吟虎嘯兮三乘五果齊俛首獅子奮迅兮魔佛諸天俱退位撥轉天關兮大鵬展翅飛千里挽回地軸兮香象林中無雜類呵呵常聞諸方好說箇末後句山僧喜道出身句如何是出身句震威一喝云大千沙界舉目盡在掌中心百億須彌剎那不離方寸地。

楊王吳蔡席十月初五日稚髮上堂至座云古人以法空為座拈花微笑當奇貨山僧以座空為法彈指光飛遍塵剎若向者裏會得恒沙世界派派水流歸巨海百億須彌朝朝日出轉扶東者裏不會且向崑崙山頂剷青草阿

耨池中魚化龍便陞拈香云此瓣香無相福田布種三界火宅排芽人我山上茂長名利場中開花今朝覺得果熟捧來呈獻釋迦先酬國王水土次謝親師教奢從今跳出樊籠去歷行直到家斂衣坐云佛祖門庭高峻四眾均皆有分無為僧有疑向前請問士問在家能修得行麼修行勝出家須識火裏長蓮花進云願求自行如何師云出家修行勝在家一身潔白玉無瑕士問業緣深厚不能擺脫和尚如何方便師云再在做一場夢來向汝道進云弟子晚晚有夢師云夢拾金銀麼進云或時夢有或時夢無師云有時收存待醒時用進云夢中收斂一醒盡空師云從此知覺長醒醒著不復做夢自然解脫聽頌不貪名利不求榮須學老僧道不貧夢裏般般皆稱意醒來不見收金人問如何是西來意師云通國人追看不見進云如何是祖師意師云立雪齊腰通身顫進云如何是和尚意師云眾生度盡方滿願進云如何是學人意師云徹底掀翻救一半進云居士出家是何意師云鬚髮落地塵緣斷進云出家後如何師云一把鑿鋤三斤半荒田荒地都耕轉乃云荒地荒田總教人人下些好種下種得真莫枉辜負前程學道門獨趨悟的一字別求深進都是傍門達磨來此只說個安心心之一字了不可得造化合符霎時風雨聚會機關撥轉剎那星曜呈祥急水灘前撥轉梢頭牢把舵孤峰頂上踏翻海底湧波濤萬仞崖邊退步方識根源深遠百尺竿頭轉身足見意氣清高法門正要剛斷果決漢眾居士不知誰是出格英豪料想眾居士自念鬧市場中無休日閃爍光陰有幾何趨進三寶而求出身路也麼喫門裏出身易身裏出門難若還欲到平安地預先咬破生鐵饅所以宗門茶飯如同鐵釘飯木楂羹嚼來嚼去沒滋味若到者沒滋味處正是好境界不生退志終成大器所以老夫預先告過莫只到萬里不生草大地無寸土那時悔之莫及聽老僧授記出家不是當尋常如鑽鐵壁與銀牆大鞴爐中鍛煉出何愁不作法中王。

師誕日上供云不覺行年六十八復轉聖壽沒偈[仁-二+(天/圭)]不得孝心幾位徒顯把諸方都笑殺老僧此一回川者特為料理先師語錄兼且拜掃祖塔煩累眾家賢徒生了許多躊[躊-采+千]不然還往行腳十方任我週匝有緣撞箇趙二王三羅七丁八只待虎嘯龍吟任我興宗揚法一時權衡在手別有無限機括今朝多承盛設不免愧情受納。

即日傳沙彌戒上堂云人人有箇圓明珠埋藏線下兩相疏聖壽今朝親拈示方圓長短任憑呼或呼為主者可作三界內外萬物之主或呼為奴可作世出世間偷天換日之奴神龍識得飛上天都朝廷識得萬代山呼宰官識得為民父母庶民識得為真丈夫僧眾識得聯芳千古眾生識得退卻凡軀唯有老僧識不得結跏趺坐嘴嚙嚙成住壞空全不昧只今亙古永長殊。癸亥住華嚴上堂拈香白椎竟斂衣坐云芙蓉錫躍步華嚴在處洪波白浪掀雨洒何須風拂地雲飛那用幕遮天威威獨步潤三有迴迴孤圓照大千凡有一方未點化普心豈肯放私偏所以十方諸大菩薩端以利生之心為心山僧遍通法界亦以行道之念為念今見密沩上人貪不妄無怒無嗔

老僧一見甚喜獨不喜者科頭跣足謾道科頭不是行心地不明枉苦蹭蹭到皮穿幾見骨因緣福報不須問。

甲子歲上滇看望將軍蔡巡府王二位護法就便上雞足古庭當家徹俊同往俊云和尚拈香處處垂語以留宗眼迦葉殿云自從那畔威音別直至而今符合節千里遙來無點獻心香一片爐中熱伏望華門早放開接引眾生出火宅賜神通救末劫何須執定等彌勒七十輩孫來到此只得精心恭敬謁九首至金頂拈香云此瓣香莊嚴劫前下種賢聖劫裏花開世尊昔日拈示百萬人天俱歎贏得尊者笑盈腮亙古遺留禍胎展具合掌云任憑化身塵現剎現無量現道澄有塵說剎說無量說是則須是唯有笑的一字口似懸河說他不著顧視尊像云何為不開生藥舖單單好賣死貓頭至華首門前有尊者像師云常聞尊者入定在內云何還在外問不在內不在外實在甚麼處師震威一喝云且道在內在外呵呵云不在內兮不在外剎塵塵剎身心在三災劫火俱為塵獨此華門永不壞。

迦葉殿建鐘樓鼓閣請師陞座師云慧燈發燄正當陽遞代相傳列有行東土二三如麥粟西天四七若麻糧崖窩水洞成名剎平地高山盡覺場遍界塵沙諸佛子淵流始末豈能忘所云者雞足山吾祖隱身入定之道場時遭劫火以傾隕幸此達一行者經歷四大名山至此募化十方建成四印圓寂尚有未了公案又作麼生以拄杖一卓云鐘樓鼓閣有孤月掌管常住況無能料理當家且太虛仗力十方共湊成以拄杖指梁云分明本是棟梁材卻逢良匠巧安排幸遇老僧敲打過十方雲集俱和諧一棒打開智慧眼二棒擊醒活如龍三棒東倉西庫滿四棒南庄北畝充五棒五宗花葉茂六棒六和道業濃七棒七佛恒住世八棒八荒來歸從九棒燈傳續久遠十棒頓超十地空今日輕敲重打過為梁作棟各西東當陽為主鎮山木輕輕陞上坐居中只待功成行滿日香名自獲十方充金鐘左撞如龍舞玉鼓右敲似虎雄驚醒人間瞋眼夢方知日出不離東當陽寶鑑無私照宇宙山河色色空有時尊者定中出不鐘自鳴不鼓磬以拄杖一卓下座。

十八離雞足轉大理府挂錫大悲寺大眾留住傳戒提臺桑護法請師進衙齋次逐一將出家得法根源細問一番辭出即日辦齋請諸山就大悲寺相陪齋次小參云山僧舉動因何來隨喜四般瑞色堆六月雪山真奧妙九冬花樹甚奇哉波濤不散海中月風閃難搖枝上開真乃上方仙佛國檀那有福物情該正所謂有福之人能坐有佛之地故此桑護法不昧靈山付囑現宰官身心慈意善敬佛法僧毫無羈慢整理塔廟裝修庵觀恤鰥憐寡寒衣饑飯不惜珠資孤貧普散斷除諸惡常行十善天耳遙聞佛眼觀看利名掃得開愛根割得斷纔顯人間大丈夫為甚癡呆等大限佛出皇宮入雪山至今千古免塗炭既為人臣公事先幹本分一勺回光自判仔細思量無了期何須苦苦往前鑽呵呵那箇男兒不是漢。

上堂至座云拄杖恒開不夜花特來此處覓生涯烏藤不肯擅輕舉一棒到頭一作家便陞拈香云此瓣香寂寂無言下種惺惺擬動發生劫前劫後不

減者畔那畔豈增拈爇爐中奉為當今文武百官大理紳衿雞足耆宿洞府聖僧伏願拄杖振開正法眼當下發明妙覺心斂衣坐白椎竟師云竹筇芒履到滇南覓箇知音豎祖權當機一拶渾身汗和盤托出為君傳以源流拂子傳下座付石鐘後閣覺愚更號興隆德旺禪人囑云世尊正法眼藏付與摩訶迦葉遞代相傳在老僧處正傳七十代老僧行化四十餘年行年七十應當交付於汝廣行流布勿令斷續珍重問答未錄乃云七十涉滇為利生芒鞋踏處細叮嚀拄杖頭邊暉日月分明照透當人心以杖畫一圓相云會麼從前不會打之邊勉強畫箇元字腳惟有者箇圈[口@石]軒昂孤聳舒暢識得的喚作大圓鏡智不會的認作裝米籬筐人人好似蛀米蟲只知喫飯穿衣那管末後郎當正所謂衣架逢飯囊相見笑一場煖飽無別慮唯妨病臥床眼前混得過難哄老閻王業鏡無私僻照透肝肺腸善惡從心起一見自慚惶閒時不問歸家路行到中途向那廂幸遇老僧親指點無影山前有座無縫塔安身立命第一風光有問老僧清淨戒杖拗豬頭供十方傳衣竟下座。

上堂云強人嘴似釘拍案問主賓齊到一齊打兩來兩處侵機關若會得棒喝有重輕舉杖云有縱有奪無疏無親具眼禪和休辨假真問四大本空如何是真師打云知痛知癢略傍相應進云不著痛癢如何師云土木頑石打碎無益問四喝八棒何處分賞罰師連打云前賞後罰更兼活殺問畫虎不成如何師云脈絡不清進云何日魚化龍師云上方欽賜過雷鳴雨現成乃云風過雷鳴普降霖寶主了然歷歷明角虎入山憑躍舞珠龍出穴恁飛騰甘雨潤四洲慈雲覆萬靈草木逢春慍花果遇秋凝老僧知足入山妙留箇清高香美名拽杖下座。

上堂佛開八萬四千門南北東西任往行作福年深生福地行凶日永磊凶墳四生六道隨心轉十惡八邪任意輪死去生來無了日輪迴週轉不暫停非是山僧不教化無根破謗亂云評善哉如來慈愍故隨類脫生改姓名趙李張王可貴賤周楊孔呂任富貧高卑妍醜遍通應掃盡煙塵更起雲欲把眾生普度湖海山岡一掌乎所以世尊悟日云未運眾生性情暴惡難調伏化即今看起薄惡剛強之世不忠孝逆尊卑訕謗三寶嫉妬良善惡如狼毒似虎想起佛語其實不虛大眾佛昔用盡方權菩薩種種應現引入法門尚且返來爭雄並勢山僧有何德能敢向其中興波作浪汝等懼怕三災劫精進勇猛超出劫外頑皮不顧性命吾莫如之何也古有云父子上山各自努力聽吾一頌打不醒兮罵不羞在伊輪轉何時休老僧退隱歸山去一任癡心隨逐流。

康熙二十四年住溫江華嚴寺七月二十四日入院山門云大地盡成古道場隨心到處雨花香進門勿論長和短一味酥酤供十方土地堂云既作山門土地莫圖閒消歲月時時點檢常住刻刻巡察真偽善的讓他進來惡的速遣出去不可私受人情功高天曹詔敕二帥殿云哼吼二將英雄高曠鎮佛頭門眼孔嘹嘍善惡人行不可輕放只待功成圓滿日千古垂名於法藏天王殿云四大天王威勢昂昂欽善伏魔扶弱除強回光返照拋棄刀鎗皈依三寶鎮山門敬佛法僧同受香古佛前云者箇古老行事顛倒靜處不居淫肆攪擾逢人便笑有些機巧弄盡若干鬼眼睛卻被豐干點破了點破了一陣哈哈悄地逃正殿云萬劫不磨之尊十方證盟之主說法四十九年肝膽腸肺盡吐世號三界醫王又名四生救苦拈花續脈累兒孫袈裟磨破教誰補方丈云既云是方丈又有觀音像觀音與老僧唯恐不一樣他有三十二應利生我獨一莖拄杖收放若論人我是非劈頭三十痛棒今蒙眾善恭迎通身手眼殊暢咄大家勇猛不許放曠結冬上堂拈香祝 聖竟乃云即此華嚴結制就裏無窮旨趣一開人天正眼祖道宗風垂世拄杖不順人情掃清法門真偽狐狼埜干潛藏邪魔魍魎隱避智愚引上菩提惺者送入祖位珠龍方許吞鉤角虎收入網內龍行雨潤四洲虎吼驚人夢寐喝出如雷震天聞者魂飛魄墜棒下似雨激地著者皮穿骨碎諸方聞得伸舌打退不如嚇退。

師誕日上堂云謾道老僧今日生隨機應世就凡情玄靈一點無來去動靜兩行有假真性共虛空函萬象心同日月星三明今朝不表深微理但只拈香報四恩拈起香云此瓣香根長透過龍宮海藏顛高伸出三十三天層層葉上有華藏世界枝枝頭邊現諸佛法身今朝係是山僧初度之辰連枝帶葉和根拔來焚在光明普濟爐中專伸供養十方三世恒沙諸佛諸大菩薩聲聞圓覺四果四向一切賢聖伏願諸天天人聞此妙香不墜凡塵大地眾生聞此妙香悟徹本根地府一十八界含情聞此妙香出脫幽陰今朝辦齋傳居士聞此妙香家旺人興貴祿齊臻法筵宰官居士聞此妙香五眼同明一味馨香無雜類見者聞者入覺地同證金剛不壞身共明般若無生顧視左右云且道如何是無生義良久云分明渾若太虛空知見忽生山河地傳戒竟下座。

上堂云青山綠水古人意翠竹黃花道者心三大阿僧劫火盡古人心意何處興呵呵有物先天地無形本寂寥任憑劫火盡如如迴獨高幸我王善人來此堂中修齋設供更添一層水山且道者一重水山是甚麼人之意聾一度水山一度奇兩輪造化轉璇璣東西南北分辰宿獨有玄元不動移。

上堂師云推倒扶起無非為一大事因緣出現於世一往一來不箇因正法眼藏流通即此華嚴結冬集眾安具亦是發明諸人本地風光舉杖示眾云會麼者是風光向甚處發明一卓云日逐休忘卻穿衣喫飯時同行住坐臥共話語施為。

上堂云心高氣傲勢力豪雄大蟲不避荊棘頻冲真是丈夫獨站高峰是則須是足下無雲豈攀桂手中少箭枉張弓只須向我秘密門中參實悟討箇端的始得即如做箇圈套粧箇模樣只好瞞俗子難瞞智眼不啻喚作修行而返招愆惹罪我此法門真參為本慈悲為宗勿分貴賤那容強弱貴乎見性明心千了百當時至到來利生為本利生且置如何是見性明心咦打破砂盤走出鱉觸穿甕子魚翻身三斤鑊一箇鑑溪邊林下等知音。

上堂云出家必要先持戒戒與禪兮同一派戒精禪悟鬼神欽善果圓成超劫外出了家圖自在不參禪不受戒百姓光頭好潑賴有朝魔業來相侵三宗九族都拖帶老僧說法不容情智者來從愚者邁若不頓超三界去生生世世串皮袋辦齋禪者為求福十方檀越仰遮蓋諸禪德勤精進莫懈怠當下徹明了辦去免勞拖欠一身債舉拂示眾云會麼若向者裏會得鐮頭本是生鐵瀉泥餅原來是土塊者裏不會分明慧日光常暉卻被癡雲來覆蓋有禪速去參禪無戒出班受戒依文傳衣竟下座。

上堂云者段真風不用猜尋常勿外動中乖百謀千算渠先識一念回光萬物諧雖然如是東廊不打鼓西舍怎知音堂中纔擊磬彌陀十萬聲生鐵不經爐錘難作農家器頑石不琢磨何為鎮國寶蜚螳悟蛟龍而飛騰驚天動地人有真參實悟焉不成佛作祖成佛且置今朝是我德進居士發最上心而求無上菩提者麼呵呵擬求菩提尤更遠若得無心心自明忽覺翻身枕头墮滿床自獲現珠珍。

上堂云吹毛打地祖師禪至理原來無句言拄杖頭邊開正眼利生只得露方權舉杖示眾云會麼橫擔杖云見麼以杖懸空畫一圓相云如何向相內著一點云若何若論此般作用三世諸佛有口說不出千手大悲有手摸不著不免老夫為眾表白豎窮三際兮鼓揚先聖先賢之直指橫遍十方兮開化眾生正知正見之玄微大圓鏡智兮者段家風人人本有中間一點兮分明黑白是誰知想必非洗禪人久覲老僧聊通一線者麼呵呵聊通一線何稱奇徹底掀翻大有為只待頂門開正眼聯芳千古永無移。

臘八上堂拈香竟乃云今朝盡道佛成道老夫聞得一場笑佛字西天之梵語唐土翻成覺字叫覺得自心原本佛是誰向外分三教道字原來不屬修成住壞空永無休道若虛空無形貌亦無名目亦無號道如明月照秋潭方映方兮圓映圓道似日輪邊須彌明暗色空盡光輝道如五嶽鎮乾坤東西南北坐中心道若五湖四大海無窮珠寶任憑採道如苦海渡人舟直撐到岸方可休道如救苦之良藥三災八難都解脫道如甘露救饑糧眾生得飽潤焦腸道如將軍護身鎧刀山劍樹任憑擺道本清淨無長短道不遠人人自遠道大包天能裹地宇宙山河收斂備道小含藏芥子中微塵剎土盡皆

通道無陰陽不無有也無貴賤及妍醜隨物安名任呼舞可以能作萬物主
君王有道天下安雨順風調廓疆土宰官有道盡力忠不假弄權辦事公士
庶有道家門興敬老憐貧教子孫眾生有道安本分早完國賦孝雙親老僧
有道應群機語默千行任展施舉杖示眾云會麼者裏會得千邦有請千邦
貴萬國來迎萬國尊者裏不會吸乾江水掬明月掃盡煙霞賀太平且問大
眾如是此道實有所成是無成若道有成青山照舊青山綠水依還綠水若
道無成青衣接引五八成人會得牽連四鄰不會遺累己身傳衣竟下座。
上堂云會中誰是打不退罵不嗔穩若山不動深似海不竭出頭來將者箇
擔子放在肩上橫順顛倒恁憑收放取捨縱奪隨情活潑顛拈倒弄擎龍驚
鳳長說短說誰敢譚博惡說善說迷徒開縛識得的盡是諸人受用不會的
返道者老漢出言無文少學拈弄的全沒下落孰不知頭頭上有殺活玄機
句句中有絕學直指試問大眾既是絕學還指箇甚麼以拄杖一卓云身寒
想衣穿肚饑思飯喫為宰為士民莫不亦如是辦齋李居士即此求端的且
道如何是端的一句咄過河縱不露泥水步步行來有濕跡。

上堂師云像季之際說禪者太廣講道者甚多不知如何名禪何者為道必
要老夫批判咦禪之一字本來空道隨人轉立宗風隨機拈起隨機用不與
九經三藏同若還紙上搜尋得達磨是必不來東禪慧無眼古今一覽禪聰
無耳嘹喨無此禪通無鼻香臭先識禪智無舌兩花疊疊禪空無身塞滿乾
坤禪心無意通天徹地根塵識盡人我法忘名之曰禪虛空量盡物情俱空
名之曰道心廣體胖量包沙界名之曰佛萬物諧和理事融通名之曰法禪
道佛法者實乃為一經云除此一事實餘二則非真舉杖示眾云會麼一喝
云會得其中不二禪隨機拈起得方圓孤光寂寂人難識不遇知音不與談
且道者裏有知音者麼呵呵謾道此處沒知音九曲黃河水未清下座。

上堂師云參禪須報祖師恩遞代流傳燄續燈紹繼華嚴三十二枝繁葉茂
固根深從前決志山林苦覺得如今遍地金所以古云不是一番寒徹骨怎
得梅花撲鼻香果到恁麼地頭方敢言箇報佛祖之恩且道如何是報恩一
句舉起拄杖云杖頭能代千年燭照定乾元不老春下座。

上堂師云學道要明心參禪宜見性一行三昧中拈起頭頭問掃開雲見天
斷盡惑無紊者段妙明無減增只因染汙忘方寸粘泥帶水迷深厚正法流
傳不肯信如同古鏡復重磨真方妙藥纔療症揮拂云識麼一掃塵沙惑盡
消方知古佛傳新令。

上堂云老僧昔日因傳戒平地惹成天大害而今欲脫不能脫只得一肩挑
起賣賣處無人買買的沒處賣冤家來就頭兩下齊暢快買得的佯佯悄地
而去未得的忿忿平空捏怪若效諸方勿論瞎驢跛鰲一齊收拂子源流船
車載石作玉銅為金可恨兩來沒眼睛一盲引起群盲走失腳不知落火坑
金沙玉石匱圖混自有明人辨偽真老僧若不豫先說唯恐一粒老鼠屎打
穢一鍋羹啐任他敗任他興隄防一日大翻身以拄杖一卓下座。

除夕上堂云唯有者箇三十不比尋常往日盡大地人人腳忙手亂獨我宗門禪客眼橫鼻直腳尖上嘗具雪峰踢毬之威手掌中恒存壁魔擎叉之勢有向者裏當鋒者喪身失命從此間錯過者也要粘些毒氣老僧今日放假會拳的出來踢箇四門斗底有藝術的不妨各現手眼顯些精粹是則雖是只許壁上畫龍行雨描鳳展翅不許使鬼弄傀儡以作頑童之戲不然唱首無文曲子同樂太平之歲且道如何是無文曲子題目良久云龜毛索上打鞦韆兔角匾擔挑日月拽杖下座。

上堂師云不寒不熱正好參禪光陰錯過不是等閒況且內外簇齊前後次第法法見成事事如意忘身忘體拼命做去諸兄弟聽得老僧言語精心盡力做一番自然有箇擣斷日子若到那時節黑臉老子無如你何誰來管著豈不快暢橫行直走放逸自由自便即若在此堂中千斤重擔有老僧挑著指望有一箇半箇出頭來為老夫鬆箇肩子看起來欲罷不能老僧豈肯將高就低定要見地清楚德行孤高肚量寬洪見識廣闊人品端正戒行精嚴學業等齊方能授手何也見地清教後昆德行高不犯囂量寬洪眾可容見識廣有含養人品正紳衿敬戒精嚴不受讒學等齊志不愚如是此等長老縱不能頂天立地可作僧中標準此中有也未若不妨請出來站箇丁字腳扯起陰陽手擺就些雄勢且道如何若何打起精神顯出本領將老僧者莖拄杖輕輕拈入手中不啻大眾欽伏老僧滿心放下若無過後謾道老僧不識好惡不辨賢愚聽吾一頌續祖傳燈非泛常戒精德悟學慈良人天路上和為本解脫場中名譽香現前堪作傳燈祖過後遞代大法王。

德穩艾居士傳唐巾上堂師舉起巾云會麼識得的千兩黃金求難得不識的三分白銅未稱心此是唐王親敕賜滿朝文武齊頒行軍民有道因當頂屠獵無知莫妄訂菩提場內分愚智涇渭河邊看濁清有道君王興大善存仁官長護培增前朝聖主留傳世代代遺流敢不遵今朝捧出授居士永作法王之子孫舉衣云者件長衣表裏光輝法界併寬虛空等齊外無瑕玷內有珠璣凡夫少有佛子得披覆蔽道體莊嚴塔基至待功完行滿同證無上菩提即日取名偈曰本來佛性未曾迷切忌當頭一著棋急水灘前穩把舵欲登彼岸豈為遲故贈法號彼岸。

解制上堂云九旬爐鞴扇真禪惡辣鉗錘煉十全鍛就金剛不懷體鑊湯爐炭任盤桓俱向十方行正令莫孤山堽費心田諸禪德出堂去更精嚴休與世情絞一團行到懸崖撒手處纔把一生大事完那時節取自然方知古聖不虛傳試問大眾傳箇甚麼震威一喝云一莖拄杖如獅子伏虎降龍不用牽擲下拄杖云有力兒郎擔荷去打風打雨任縱橫拈拂示云把柄還在老僧手好事豈能擅讓人下座。

師誕上堂云年年此日華嚴叟歲歲今朝空老人慣好人天開正眼孤高應世足稱尊老漢今朝七十一舉棒勞手力動喝費精神豎指拈拳尤恍惚親切道處甚分明試問道出箇甚麼轆轤運轉日月無暫停後浪催前浪新人攢舊人曾記當年騎竹馬堪堪就是白頭人啐虛度千生與萬生。

林賓哥稚髮上堂云舉目觀空空寂寂底頭覷色色壅壅法門不是善輕舉
撥轉機關處處通業海眾生夢未醒利名羈鎖忘來蹤老僧愍苦開慈門棒
喝如雷不徹分可見皮毛深且厚方權設盡枉勞神若無居士啟深信走脫
泥牛沒處尋出了家晝夜勤緊閉六門莫放行心不動耳不聞主人端坐正
中宸白玉冰清無雜隙蓮花出水豈沾塵一箇鐵饅緊琢磨六時挨拶休昏
沉參到忘人忘我處如同卸甲脫網繩精神抖擻輕通快甚似觀音灑淨瓶
從今後草木靈遍地黃金不受貧呵呵宗匠堂中添一人。

康熙二十六年丁卯九月十二日鄆崇縣主丘闔縣紳衿居士功德主葉張永并及善姓等請開建古道場蓮品山法忍寺至山門荒基眾善左右禮拜胡跪合掌云願聞法音師以杖指云門庭高聳通天地道場闊大納乾坤恒沙諸佛一齊到棒喝如雷接梵音是則雖是未入門瓦子敲打門以開直入無把賓主和打成一片千手眼難辨真假通方士稱佛稱祖難索摸呼牛呼馬那管他稱孤道寡只要我得意脫灑得意且置如何是入門一句荊棘關開張大道杲日當空獨照明拄杖頭邊懸秦鏡微塵刹土盡通靈至正殿基仍禮跪云願聞法音師云唐宋元明古道場幾經興盛幾經荒朝綱紀正官民善國泰時豐佛法彰山僧到此百物呈祥龍吟虎嘯獅吼象狂四時有序八節鏗鏘土地伽藍各安方位天王四聖勢復軒昂監齋護法晝夜巡察法忍佛法從此興揚若論佛過現未來十方一切諸佛盡在人眉睫上運用神通放光動地無一時無一刻不是佛之興處也切忌當面錯過若論法三藏十二部一切修多羅海藏靈文盡在諸人八識田中隨心所轉隨口所宣無不是法揚處也只須返聽自聞且道法忍佛法興揚一句作麼生道乍觀鵬飛如雲集忽聞松聲似海潮至靜室佛前以杖指云惟有者箇古老一生行事顛倒皇宮不會享福靈山受盡苦惱夜睹明星悟道就向十方打之繞四十九年說夢末後拈花弄草惹得五千退席彌勒迦葉笑倒一箇斂衣雞足走一箇收囊兜率跑喜得西天四七有六宗東土二三出五老到如今普天之下豎刹竿高山平地長香草唯西蜀遭劫殺處處荒殘者老漢好造化通身光皎非是有作有為蓋因無機無巧為人只要箇心好劫火到來全身得

保十方到此禮也是好不禮亦好以拄杖^①云只好向者裏大大畫個圈兒勝如泗洲三島獻珠進寶據丈云盡大地融通個方丈一架蒲團恰好儘擠搆放晝憑白雲垂幔挂簾夜有明星代燭照亮睡來時高枕[嘆-口+鼻]眠醒起時撫蓆歌唱有問祖師大意覲面便喝驀頭便棒因甚如此只為當初說禪說道受盡多少憎嫉訕謗到如今那管他是他非但覺自收自放住山林豎甚麼門庭求甚麼名望落個安閒自在隨心樂曠老運亨通玄鳥代唱即日著老葉施主辦齋請上堂師至法座前云法忍千年旺檀那萬輩榮道場行正令古刹住原人僧仗十方集佛從本地興遼天拄杖從今豎直指門庭不順情未入門時三十棒但能擬議隔千程若問山僧親切句法王座上聽分明陞座拈香云此瓣香天降明淨真種地長玉葉金枝玉葉中藏法界金枝上挂玄機拈爇爐中祝延當今萬歲萬歲萬萬歲皇后齊年太子千秋滿朝文武添壽闔國公卿增籌伏願國泰時豐仰德化海晏河清四野謳次拈香云此瓣香長短不樣大小各般堆積滿爐不然再添奉為西蜀

文武大小尊官併及本縣仁慈萬民真父母大海波濤星月亂邨崇慧日獨高明復拈香云此瓣香生長盛茂於娑婆根種源頭在那畔只因葉盛枝鬚廣東西南北發藤蔓山僧信手頻拈起放在爐中金光燦奉為崇邨紳衿當機請主遠近檀那諸山耆宿法筵宰官居士等伏願同登覺地共證菩提再拈云此瓣香不從皇天后土而生豈受雨露滋長驪龍腦上拈得獅子項下獲來爇向爐中供養先師敏樹大和尚用酬法乳之恩只為當初驀頭一棒命根斷覲面喝雷翻轉來道行七十報恩盡宜當恬靜學癡默斂衣敷坐上首白椎竟師云若觀山僧第一義今歲是丁卯後年乃己巳前日初九今朝十二僧俗共同期凡聖本不二不二之法門切勿妄輕視世尊一生說未曾道半字祖師立棒喝無非方便示舉杖示眾云山僧者是倚天劍八面玲瓏有不懼鋒鋌者出班問答機緣繁未錄師乃云一生行道為人忙忘卻劫前古道場現現蓮山元日所明明法忍舊時方葉公本是布金土丘檀祇陀護法王眾善雲來重聚首眉間同放白毫光舉杖示眾云會麼者段光明人人本具箇箇不無自從靈山同一受記生生不昧劫劫難忘見此法忍古佛道場荒蕪多年躬請山僧住此証盟修建者麼既請作証誠意諦聽帝釋插草梵宮已竟凡夫愚鹵逐句訊問栽梧鳳棲開池月映人傑地靈風恬浪靜百靈相助群識幫襯四海歸宗八荒聽信天降飛符帝傳敕印那箇時節還須隱遯三宣四詔只得從命從前不敢輕妄舉謙下堅持守本分且道本分一句如何道豎指揮拳俱造次饑餐渴飲聽時音以拄杖一卓下座。

師誕日上堂至座云宇宙之內三寶為尊佛法之中聖諦第一喝一喝卓一卓云且道者一喝者一卓是為尊耶第一耶呵呵是法住法立世間相常住便陞拈香白椎竟問答未錄乃云者段光明無減增隨機應世恒沙春百家名姓重重數內有如如不動尊舉杖示眾云會麼者裏會得鍾離仙乃漢時大將孔聖賢周末明人釋迦不受皇宮福願向十方度眾生者裏不會山僧只得指點分明蘋果香圓樹上結五金八石土中生耕地犁頭生鐵瀉兩箇八兩是一斤山高大能藏金獅玉象水深闊可住驪龍神鯤人上人有佛心天子賢中賢有出劫之尊天崩時女媧鍊石能補地動時未必鰲魚轉身若論天地出處青氣上陞為天宮濁氣下降作地府三界原來不久長毘嵐風起無寸土三災劫火一齊到有情無情俱受苦。

玉皇本是萬仙主飛去西天求佛祖眾生貪戀網羅中如魚湯鍋任燒煮只教法筵善姓念佛參禪見性超三界明心離八苦眼前不受閻君氣自有光明一段普甘草和根甜黃連帶葉苦。

上堂師云德發出家不用修一句彌陀百事周而今覺得尋蹤跡四生六道一齊休若不尋條出身路水底游魚終落鉤去去來來無了日鑽胎入腹幾驚憂舉拂示眾云惟有者箇道理無來無去不古不今出自威音虛空共體日月同明月有缺圓日有降昇唯此者箇無減無增包羅天地載覆乾坤若向者裏會得三途六趣化作極樂世界十方剎土盡是蓮花化生者裏不會

便把黑臉的呼成夫子白髮的喚作老君常聞世俗語遍地有黃金成仙成佛人修去只要凡人肯用心。

上堂問天垂寶蓋祥光遶地湧金蓮猊座新林德覺薦父母請師上堂轉身踏著無生地其意如何師云最尊貴進云泥牛啣月沉海底木馬常嘶午夜風師云休造次進云某甲不然師云汝另開鼻孔進云有水皆含月無山不帶雲師云誰家簾外無青天問八面玲瓏事如何師云顛倒騎牛看威風問踢起無油燈照透石人心師云鬼火草不驚乃云平日世尊無卜度雲從忽湧在兜率大乘般若利諸天涅槃報恩為母說大孝目連願海深度盡眾生成正覺雖然如是父母深恩尚能報六道眾生亦可化自性眾生欲度難何也多劫染習深厚者點業心如輥珠何時停佇亦如灘下漚泡速滅速起無有了期不遇明人點化風捲波濤無日休欲報父母恩者莊經造像燒香燃燈為父母出家參禪學道佛言一子出家九族生天為父母修齋辦供敬佛法僧舉地藏菩薩前身為婆羅門女時憶念生母誠詣覺華定自在王如來塔前修齋上供哀白世尊作何方便令得見母悲泣倒地如來引其神識到阿羅賴只見洪水滔天汪洋大海海邊鐵圍城高大無門見無數鬼問此是何所我云何到此獄主曰非佛力業力不能到此是冥府第一層地獄女自思惟若要經無間獄不謗如來正法輪我母生前謗毀三寶是必在此獄中遂問無毒鬼王我母在此欲得見麼王曰汝母生前作何事是何名姓女曰我父婆羅門尸羅善見我母生前行惡譏毀三寶名悅諦利鬼王聽罷合掌贊聖女曰因汝向覺華定自在王塔前修齋上供仰瞻佛力生天三日也女合掌曰佛語不虛假饒造罪過山嶽只須妙法兩三行試問大眾如何是妙法以杖一卓云無心衲子閒談語禪定現前文義深。

上堂師云今朝臘八佛成道十方國土開宗教四十九年無一字落得頭陀悄地笑百萬眾前那一笑四七西天東二三狂徒一夥誼譁譟達磨至此指安心得皮肉骨不成套三禮無言得正傳風恙縛身藥不效無纏無縛欲何求前言老也後言少米熟候時用節簸三振錫鳴述讓號西川走出馬駒來耳聾吐舌一齊到脅下三拳北闡宗名垂千古三玄要正傳三十二歸農隱入蓮山因耄耋堂中個個要參禪參禪須把話頭抱抱話頭萬緣斷工夫定要打成片趙州四十心無雜勇猛精進如交戰抱話頭莫放鬆一日精勤一日工兩手撥開牢關鎖一腳踏乾水晶宮抱話頭要斟酌斷妄除貪掃雜學但起纖毫乖巧心鉤引群魔難擺脫抱話頭如聖旨日時限定全終始倘若遲延事未完苦惱逼身怨自己抱話頭看端的拈柴擔水承誰力一時不在如同死撚指光陰休可惜抱話頭直如鐵幻世情緣盡勦絕千金難動道者心直證菩提方可歇抱話頭站鐵石莫被虛名浮利歛自有隨身無價寶磊山金換不能易抱話頭要細心坐臥尋常辨假真忽現佛魔心不動穩若泰山誰敢侵抱話頭少輕狂伶俐十分莊老郎疑團不破休開口問千答萬不為長抱話頭如錠釘錠釘入木不移分工夫稍得輕安處先報國王水土恩抱話頭如走路百尺竿頭更進步剝盡芭蕉再下手自度度人人自度抱話

頭萬事灰四大幻身假臭軀借假修真得妙悟法身處處放光輝抱話頭如護珠切忌尋常有玷污心淨即同佛土淨半點瑕疵不丈夫抱話頭似秋水滿月當空照徹底分明好顆夜明珠水深手短難拈起抱話頭真佛子要將十二時辰使喝轉黃河水倒流崑崙嚇退三千里抱話頭如猛將單刀匹馬冲前向快駿加鞭得勝歸進爵陞官欣快暢抱話頭凡轉聖成佛成仙自己蹭輓芥投針毫不差頭頭拈起頭頭應抱話頭決證果工夫融化無人我忽然拶碎鐵鎧首方信燈光原是火呵呵一生勤苦從今妥偈曰因緣時至悟門開萬丈火坑跳出來從此不疑心佛物孤光獨照物情諧物情諧慢受王公虔禮請先入深山保聖胎貴賤智愚皆有分除聾瘡啞與癡呆縱然不及佛神用悟明心地躲三災珍重。

上堂出家人好似冰凌高上行荊棘叢中過萬仞崖邊立鑊湯爐內坐眉毛剔起觀橫身不搖簸性命呼吸間懸絲頃刻蹉千日一齊明放下塚頭臥任憑天地老那管乾元破消磨塵劫非蕩盡恒沙錯古云不是一番寒徹骨怎得梅花撲鼻香分明一箇凡夫俗子若不百折千磨安得成佛作祖豈非容易小可譬如礪石入於高廣大爐鞴煉成生鐵復入紅火地爐炒成熟仍過鉗錘敲打九煉成鋼方纔造成器皿還要更加切磋琢磨細細刨刮無斑痕疤缺內外光亮美玉無瑕時人一見便生歡喜愛慕之心方可中用器也是寶劍賣與烈士農器賣與耕夫刀斧賣與樵子鉤釵賣與漁人獵戶喜的利器武將愛的鎧甲一物必有一主舉起拄杖示眾唯有山僧者件寶貨不遇知音誰能酬價不如拋入長江大海免遺形蹤惹後昆論是道非擲下拄杖下座。

上堂師云拄杖近來不值錢盲龜跛鰲索同然蹉跎蹶躓皆如此耄耄扶行童作頑除惡除兇方士柄打牛打馬牧童權如今棒喝終何用高枕無憂樂歲年返觀自性佛腳下有燈傳拽杖下座。

上堂云不是世人不善修蓋緣近惡以成流住居邊地性情野生在中華仁義周所以人心如同輓盤珠活潑潑動玄玄東蕩西蕩無暫停止又如高山池水決東從東流決西從西流即此謂也向下流者易昇上一步難隨流造業易群惡獨善難修行念佛易割愛除貪難跳出火坑易真參實悟難剃髮染衣易得遇明師難站定腳跟易錯行一步難包含萬象易開口說法難若將十難易頭頭拈起步步著那怕不與三世諸佛同一鼻孔出氣如或未然業海無邊肯求渡火坑萬丈跳出頭醉夢不醒吾何奈南北東西任遂流世常云醫藥從來不告門茅廬三赴制乾坤世間之事尚如此出格威風豈讓人一卓下座。

上堂云利生設盡多方權鐵壁銀牆誰去鑽獨喜高強貪富貴教分三路任君攀所以藥師經云求壽男女富饒官位種種可得除魑魅夢魘魘件件可消若要打兇霸惡欺良壓善殺牲畜害命不向外未乃是自作受豈不恐懼乎驚怖乎善哉善哉螻蟻尚且貪生畏死人乃萬靈豈不慚惶聽頌不貪世樂

不求榮地獄天堂一坦平十惡門關行十善思惟一切自圓成舉杖示云唯山僧者箇道理不假思惟何也但能纔擬議甚隔千重山呵呵下座。

上堂師云昔日老胡語絕文梁皇聽得返沉吟藏形隱跡九年後直指安心返故循米熟三更傳鉢去滿堂撩亂四方巡追巡庾嶺鹵將舉物認主人方可擎自愧無容為乞法一言提惺復回程曹源分派五家師雙桂濟宗第一人逆順化方難摸測到頭一著甚分明吾擔敏祖千斤擔十省兩都歷化行身住寶光心未了不知何地展經綸願分肢節供諸佛頗恨一身徹骨貧舉杖云幸得還有者個在一卓下座。

康熙二十七年紳衿都綱留住寶光禪院辦齋請上堂至座云今朝初到寶方說動佛法馨香既擔祖師慧命只得代佛宣揚陞座拈香云此瓣香武則威風凜凜如虎文則壯氣昂昂若龍拈爇乾坤鼎內普願子孝臣忠禮樂尊卑次第通國精勤道風斂衣坐上首白椎竟師云第一義中人少知擬若知之落二機語默中間尤未也利生不免弄玄虛問釋迦老子夜睹明星悟箇甚麼師云六十甲子不管五濁陰陽敢侵進云拈花不得隱光力滿目慚惶沒面皮師云木童竹女打鼓燈臺燭架燒香烏藤陞座說法頑石點首承當問高提祖印寶光重興祝贊 當今一句如何稱揚師立身合掌云萬歲萬歲進云世尊入雪山苦修睹星悟道因甚麼說箇未出母胎利生竟師云曾來濁世八千番醫方說盡病餘深進云道本無言今於座上說箇甚麼師良久云會麼進云不會師云止止不須說我法妙難思問四眾雲集將何法接引師云水深搭橋山高修路挑燈撥火尋常照顧進云古人拄杖分賓主和尚拄杖是賓是主師云坐覺一身行知兩腿後山礮石前溪流水不識廟中是神是鬼問世尊未離兜率已降皇宮未出母胎度生已竟雪山夜睹明星還悟箇甚麼師云只為黃河水不清青天白日起因塵進云依教奉行倚籬靠壁直指單傳節外生枝不依教指作麼生理會師云孤光獨耀高卑齊照蓮花出水隨處得妙問天上天下惟佛獨尊為甚麼卻被文殊折倒師云趕虎帶傷追賊見賊千古敗缺退步良方進云笙向天外響琴從月下鳴師云也是篋絲葫蘆七漏八穿問和尚說法的是肉身如何是法身師打云有體則有用問答處分明進云如何拄杖落點處師打云打破腦蓋見血淋乃云打破腦蓋見機括歲歲今朝四月八午時星斗現位烈遶週匝人人鼻孔盡撩天唯有瞿曇眼刺瞎四十九年弄伽陀說了許多奧妙法不向源頭覓本宗數墨尋行討飯喫一人逃走隱雞山遺下賊種二十八又來東土用機謀想把眾生盡吞殺幸得一莖硬拄杖撐著虛空天不塌教眾生業根拔免到三災劫盡日有無情識遭磨擦出三界有機括名利場中看得空一切有為兩手撒舉杖云尋常識得者著子超劫如同卸鎧甲以拄杖一卓云唯有山僧者一卓三世諸佛舉掌合何故如是諸佛成道菩薩證果定要明此者一卓苦海眾生長劫輪迴迷此者一著且道者一卓有甚奇特會得價重三千不識豈值文錢遇著知音結成連環今朝是我無說居士識價到寶光飯僧請山僧上堂說箇不沾泥水句者麼呵呵蓮花出水不沾泥明珠離海本光隨麒麟走上琉璃殿杲日當空顯二儀傳戒竟下座將欲到方丈前王居士向前橫路問世尊成道即不問和尚陞座事如何師云認病下藥看貨還錢進云看病且止未上座時無位真人與和尚道箇甚麼師云不怕笑中

刀須防泥裏茨進云恁麼退後三步時如何師云臨陣脫逃軍令難饒士喝師云者一喝落點在甚麼處士無語禮竟師進方丈。

禮萬佛上堂拈香白椎竟師云從前一字尚嫌多如今遍界是藤蘿融通識得真三昧正打旁敲唱哩歌問白玉辦齋迎和尚陞座說個甚麼師云人不回心草木知春進云佛說三種人難度是那三種師云勢大才高酗酒惡八苦交煎抱佛腳進云屠兒最惡因甚放下刀云成佛師云為汝放不下世人放得下無一不成佛問十方諸佛雲來集和尚如何相待師云一心五體投地進云禮與不禮如何師云禮則互相敬不禮獨稱尊乃云山僧今若獨稱尊草長堂前數尺深放下就時猶尚未和泥合水約人心未入門時觀動靜進堂三日察原因咦相機就世設方權莫教鈍頑以作難若將中下一齊利萬佛堂開結普緣有奮超生脫苦志勇力同登般若船念佛一聲隨口應禮佛一頭就首還如月千江連浪穩似鏡懸空照醜妍舉杖示眾云見麼十方諸佛諸大菩薩雲集在山僧拄杖頭豫先知寶光設大勝會恭請證盟道場各依方位次第而坐凡有希求必獲如意且問大眾求箇甚麼眾無答師示偈云梁皇曾白西胡禪建寺供僧廣結緣造像諷經功有未答云實實枉徒然所以古人出言太直硬無融化故此武帝不理在山僧分中則不然若問福功有也無洪福齊天難證菩他若問求菩一字驀頭一棒辨精粗。

上堂師云四喝若雷操祖業八棒如電整宗風豺狼狡兔夥群隊野干狂猿村市充佛法不親覲王法道眼不明貪嗔通此等眾生無法救三塗地獄何時空剛強暴惡無忠信逆霸橫行任自兇彖積如山毫不跋埋頭喫飯等待終故此世尊未出雪山觀此末世眾生暴惡難調化我寧不說法尋念過去佛幸傍帝釋三請利生法揚四十九年三百餘會止教一箇半箇顧視左右云識麼若不識聽山僧頌出一箇隱山待慈氏華門內更別天日半持衣鉢利群生換姓改名人不識鼻祖來指破爛紙錢不值下座。

上堂問世尊四十九年未道者一字因甚麼教滿龍宮師云未曾開口週沙界剛纔擬議振大千進云雲門有三句在那一句得妙師云字字中間都有妙不明一點難通竅進云明了時如何師云虛空無形貌問天垂寶蓋地湧金蓮是甚麼人境界師云紫微出現眾星拱真人擬動百靈隨問涅槃生死等空花時如何師云事從妄有夢猶想生進云無夢無想時如何師云吸乾水無月擊破鏡有形問如何是寶光境師云天牙永受人天供八角樓高迎八風進云如何是境中人師云晏寂如山靜說法似雷鳴進云和尚登寶華王座四眾圍繞以何祥瑞利益人天師云烏藤舉時六種動白拂揮處五花飛進云還有向上事也無師云澄清絕點無二乘覲面不親枉勞神乃云覲面不道有無古人一句絕精粗因眾善禮躬請拈出將來作話圖且道是那一句法華云若人有福曾供養佛我昔曾供養今後還親近今朝朱善人誘引五十三位正合先古五十三賢同日發心修行同日證無上菩提今此者夥英雄毫傑莫不是那般應世同至萬佛堂中營齋上供為求福耶為求無上菩提耶若求無上菩提向古人句中更續兩句以證心印若人有福何用

浮塵空碌碌曾供養佛識得自心毫不屈人人有箇光明臺向外馳求內埋沒欲乞當來真佛田慳囊打破供諸賢救饑拔苦濟貧之遍界黃金步有蓮賀賀造化全同上金剛般若船。

上堂問世尊未離兜率已降皇宮實為何事師云開正路撥慧眼進云脫胎七步指天地是何道理師云未開生藥舖豫先挂招牌進云世尊與和尚是同是別師云任伊卜度都綱含潤問若有一法毘盧墮入毒海若離一法普賢失其境界有無即不問戒與禪是同是別師云水出崑崙雨降虛空萬派千流盡歸海中進云釋迦老人如何自稱獨尊師云成都豈有兩箇寶光進云和尚今日千秋四眾雲集道箇甚麼師云百年三萬七千日返復原來是者漢進云如是則和尚壽量同虛空師云山海虛空同劫盡智光寶燈永長明問千山起舞賀壽域萬派江聲祝聖恩錦城緇素臨筵慶壽星一句如何明師云壽星品中問彌勒千光王時有觀音進云恁麼則慈雲普覆大地霑恩師云知恩不忘稱俊傑忘義失倫豈呼人進云破戒比丘不墮地獄清淨梵行不入涅槃是何意師云只因打不知痛罵不知羞頑鐵堅鋼劫火無憂進云一句迴超威音外象王行步絕狐蹤如何師云君不言而自聖佛不威而自尊問飯王太子指上指下寶光和尚說東說西即此二義是同是別師云佛法無二權實多方進云昔世尊張弓四十九年只射一箇今和尚拋鉤四十九日能釣幾何師云不是鯨鱗豈上鉤乃云日月星辰天地眼風雲雷雨乾坤機施為動靜情同妙花果放收物共威萬般難離格子眼一塵不立以何依世間難得無心士剛到無心落依稀平生不作有無用豈與人天辨是非前三十年成滯頓後三十年弄玄虛如今已此七十四宜當退步逸山居雖然如是者莖拄杖必須也要尋箇交代是好舉起拄杖云萬佛堂中有承當得者麼靜融禪人近座展禮云昔蒙和尚披剃此段大事因緣敢不承當師以源流拂子袈裟拄杖一併交代云昔日釋迦世尊將正法眼藏百萬人天之中交與迦葉為初祖西天二十八代菩提達磨至此土遞相傳授而至渠儂正七十世源流符印法王座上憑眾付授於汝汝當傾心盡力行道流傳正印勿令斷續珍重。

上堂問飯百阿羅漢不如飯一阿羅漢有甚差別師云雞肚不知鴨事進云飯千阿羅漢不如飯一無心道人有甚奇特師舉杖云且道者是有心是無心僧無語師云不識奇特磚石頑鐵乃云說者奇特果奇特三世諸佛難摩測去來無跡亦無蹤呼遺如風遠近徹大包天地細微塵方圓長短厚寬窄世間無物可能比知機煖飽暑寒熱有眼不見耳不聞大悲千手尚難得天地得之分陰陽志士得之識皂白諸佛得之利群生菩薩得之超三劫眾生得之脫苦海聖人得之出火宅揮拂云試問大眾得的是箇甚麼呵呵山僧不說眾難曉指點分明慢艸草日逐返觀念佛誰東方日出震居卯以拄杖一卓下座。

上堂師云直指門庭法不多一言之下定干戈尋常識得無文句大千沙界盡包羅舉杖示眾云見麼一卓云聞麼若向者裏見得真聞得清欲飲西江

水連星帶月吞雖然如是金剛云凡有相皆虛妄且道向甚麼處見聞聲若雷電若閃速起速滅何處見聞復舉杖云向者裏見而不見聞而未聞即是辦齋居士真受用諦聽不睹不聞真福田當空杲日獨優然大圓鏡裏誰加點唯有寶光喚作禪拽杖下座。

諷華嚴上堂問佛未出世祖未西來戒實有耶無耶師舉杖云者是是有是無進云有無即不會師云有無不識成佛已竟進云蒙師受記師云莫效釋老在處弄巧後有達磨一旦盡掃乃云看起達磨單板禪嵩山豈不受熬煎為人活潑如秋月方應方兮圓應圓閒暇思量無一事安具過夏諷華嚴禪能直指菩提路經乃人間良福田到底看來沒一字信知鼻祖不虛傳舉杖示眾云者裏是有字耶無字耶若向者裏會得字字慧燈開覺路行行苦海渡人船者裏不會金鉅不辨匱圖混墨煤未分黑漫漫今朝是我無說居士都剛含潤智能宰官居士留住寶光辦齋堅請上堂不敢輕易提持無言句之文章暫作有形象之佛事且道如何為有相佛事諷誦行持非分外數墨尋行點畫清謾道釘椿搖櫓漢聖人原不礙聲聞揮拂云有文有學號儒賢無字無言名曰禪出水青龍須仗水入山白虎靠由山涇渭河邊看的確方來趨進寶光壇黃河九曲天生就設便門庭難得關。

佛誕上堂問答繁未錄師云佛曾兜率發慈心愍念眾生業海深降入皇宮為太子雪山六載證金身西天說法千年後東土漢君感夢欽五里一菴千里寺晨朝朔望祝皇恩一人有慶萬民樂四海無風百物春普願含情開正眼脫離三界輪迴坑一聞千悟超無上劫火到時不受驚此是如來一轉化威音那畔尚難陳分身無量恒沙界焉得具同此日生法華經中佛云吾從無量劫成佛分身十方世界教化眾生處處名姓不同若論此語年年佛生之年月月佛生之日日日佛生之日時時佛生之時揮拂且道者是甚麼時正是世間廣種福田之時況且當今親奉三寶大小尊官敬賢愛民宜各傾心向善盡力修行以體聖人之德方酬遺教之恩且道如何是報恩一句經宣無字接三有法說有心利四生彈指已超空劫外剎那不覺恒沙春下座。

上堂師云入廬垂手蓋緣播揚祖師演一乘之旨趣權實並行無非導利眾生出三界之正因邪歸正魚龍變化凡轉聖仙佛翻身涇渭江邊分清濁選佛堂中窺假真今朝是我王居士辦金牛香齋烹趙州茗茶供佛飯聖眾請陞堂山僧到此只好說箇世法平等大眾凝神諦聽師良久提起拄杖一卓云聽麼山僧思忖揣摩一番病從口入禍從口出不如不開口為妙承此信心只得歡喜納受惟者笑的一聲始得呵呵下座。

上堂師云多聞強識未為賢廊下賡題得自然陸地打車求轍快磚磨鏡照無生顏縱橫窮通三藏十二部之奧旨貫通九經十數今古之玄文到頭難免三大劫之苦辛必須斷除塵沙細惑之肴訛參進透骨徹髓之精微趨入無上甚深之直門方能超過三世諸佛說不到之受用舉杖示眾云惟有者箇道理通天徹地縱橫無礙有無俱不立迷悟兩頭除因甚麼前人道個有

物先天地無形本寂寥所以古人拈起即是取來必真胸含有箇悟字無處不辦今人開戶便錯動念乖真堅隔執箇迷字不肯直下承當若以山僧論之只教隨緣消舊業切莫造新殃雖然如是惟恐打在無事甲裏是必要箇把柄在手始得若無把柄如大海孤舟一日狂風大作無方爬岸必遭沉溺之患幸我釋迦如來廣大慈悲權實兩立頓漸雙指先持淨戒以煉基平後載道如豎搭正受戒竟明示一頌曰持戒觀心心不動六根清淨道基全定能發慧慧開性見性明心成佛源一卓下座。

上堂師云看破浮塵世事拋或登鷲嶺或蓬瑤靈山學佛出三界蓬島學仙上九霄無未國中開飯店有炎路上豎茶標三千行滿超無上八百功完入蟠桃出家必證菩提果不枉空門走一遭即若袁居士生長世宦之家學習詩書門第妻死俗緣完名成書債畢但念生死無常投入三寶門中求師指條明路出身免墮輪迴之苦既真出家諦聽後頌出家定要丈夫兒不是丈夫莫強為剃髮染衣為佛子經行坐臥習威儀早參晚課形端整持咒諷經音梵齊亢混只圖延歲月驢年沒箇出頭時擲下拄杖下座。

己巳正月二十五日文哲相公為母初度於寶光請就大慈寺上堂師至座執啟云想是者箇包裹字句文行安妥山僧素入葛藤達磨聞得怪我不免附與維那宣過自有一段批頗宣畢師云既請山僧上堂何其不面商量月映千江體正法分萬派馨香自古法王住法位梧桐一定棲鳳皇若識山僧真實義棒頭之下細參詳陞座拈香云此瓣香無聲無臭不改不遷文成武就葉正根端花開明秀果熟香甜拈爇爐中煙結紅蓮先酬天君後謝椿萱臣忠國富子孝家寬道合三才能化育德容萬象可招賢斂衣坐上首白椎竟問大道本無生云何道有壽師云壽道不為有無眾生見識分別進云既然如是量等虛空日月同明師云爬著痛癢問萬仞峰外還得進步也無師云險僧喝師打進云三世諸佛被我一坑埋卻師復打云唯救得汝一人出頭來問靈山記前幾多年一度相逢一度歡此日佳辰重禮請雲門三句乞師宣師云逐一道來進云大道沒遮攔如何是函蓋乾坤句師云一粒粟中三大千進云色身俱不到語默絕言詮如何是截斷眾流句師云一葉落天下秋一塵起萬物收進云有水皆含月無山不帶雲如何是隨波逐浪句師云羅叉國裏有觀音進云以上蒙師指報恩之句作麼生師云放下人我山耕轉自心田多少名利客不忘根本關乃云萬般出沒有來因水問源頭木問根子孝臣忠大節目讎將恩報菩薩心西方正法傳東土只教孝忠斷愛嗔後到達磨指絕學一塵不立出迷津嵩山面壁等時候熊耳俟誰續祖燈幸有神光投應機渾身雪積夜更深自從斷臂安心後四海五湖皆共春識得午時星斗現方知子夜日紅輪山僧若不用揮指辜負時人錯用心堂上雙親真活佛扇枕煖被感神欽尋常仔細看端的洪波海裏現觀音欽哲萱堂初度日大慈禪院建延生恭迎山衲頻登座拈片名香報四恩三界之中孝第一十方法界佛為尊至誠奉佛即行孝竭志養親勝誦經十類聞經生極樂九幽聽法盡超昇珠龍出穴雲雷助角虎入山草木驚九州三島仙能

會千載難逢長壽星今此吾徒初度日壽星降此指添庚師舉杖示眾云見麼若向者裏見得壽星面目方能見得三世諸佛面目見得諸佛面目方能見得父母未生已前面目若不見聽示父母未生面目看取虛空形局識得虛空真容方明性空常住一卓下座。

上堂問世尊陞座天雨四花地湧金蓮和尚陞座有何祥瑞師云滿空星斗現刹塵獅象鳴進云眾善辦齋請師陞座與他明箇甚麼道理師云不屬庚甲豈有五行強安名姓號曰覺靈進云恁麼率土歸王化莖艸丈六身師云是星朝北是水歸東問從上宗乘即不問今日上堂說甚麼師云三界猶如夢魂臺愍念眾生魂不赴體夢不得醒進云夢若醒時如何師云老夫憂心放下進云放下撒步歸轉隨身是箇甚麼師云無毛鴻子進云滿目青山如何是道師云生鐵饅首好看不好喫進云禪道蒙師指末後一句作麼生師云池成月自明梧茂鳳來臨乃云泯跡玄元不屬文三教典章沒處尋如蓮出水不沾水似玉落塵豈染塵曠劫居塵忘歲月恒沙住世失秋春時逢國泰仁風正拈舉寶光照四英舉杖示眾云會麼者裏會得形山之寶有方所放光先照六根門者裏不會掀翻倚案尋元主波濤吸盡問觀音辦齋居士識些子萬佛堂中種善根以拄杖一卓云佛可讓你作只要不退心拽杖下座。

上堂問分明好似九霄月一段風光處處輝和尚千秋即不問今日陞堂事若何師云拈起虛空有眼難識放出萬象四類皆知進云如天普蓋似地普擎時如何相見師云隔牆見角休疑馬水面泛波必走鯨進云恁麼物物有佛性頭頭現真如師云毫釐有差天地懸隔問和尚七十已前事如何師云放之彌六合進云七十後如何師云卷之藏於密進云陞堂施戒是放是收師云眼見若盲口誦如啞耳聽甚聾手執無把色空無著誰辨真假乃云真假不分無今無古本無囊藏只得盡吐老僧不覺行年七十五至念存詞貓捕鼠一世進燎兩箇字苦辣酸甜甘受楚四方行腳訪明賢踏遍州城邑鎮堡試問四來直指禪高山平地俱皆土知燈即火冰皆水方識大蟲便是虎自家堂上有爹娘何必他鄉尋父母顛預自性天真佛要作傳燈續脈祖剛纔紹得法王位就想阿誰接後補仔細思量無盡期天地壞時法亙古所以佛法無盡山僧利生亦無窮盡年年此日歲歲今朝陞堂說戒上報四恩下資三有具圓者出班傳衣竟復云已上戒品過去七佛遞相授受傳流不絕山僧得此不吝慈悲一旦相授諦聽後頌戒若持純四相空一念如如道自濃線下牟尼親指示放光只在尋常中此戒者一名心法藏一名智慧田一名般若海一名菩提山一名寶藏樓一名光明臺一名無盡窟一名百靈王一名千聖尊一名萬物主十號具足一旦授汝晝夜殷勤點檢時刻提撕琢磨一朝迸破蒙天網山川社稷盡光明珍重珍重下座。

上堂云不立一塵鼻祖禪禪床撩倒祖師關會得目前真作用山間林下即西天到此禪不用參若參矢上加尖敲破甕子走出黃鱔道不用學若學畫蛇添腳擊碎虛空通身是藥者事要說有好似坐南看北斗要說無天師門

上鬼畫符所以佛法原無一定說有不得說無不得不有不無亦不得古今因學人問狗子佛性一答有一答無若論此語令後學者起疑惟者疑的一字萬無一失何也上古云大疑大悟小疑小悟不疑不悟只須向行住坐臥發起疑情畢竟是箇甚麼道理直挺挺一心撕挨做去自獲有箇擣斷日子那時如暗投明如貧得寶豈不快暢者哉。

庚午年禮萬佛傳戒上堂拈香白椎竟師云老僧應世七旬五叨進法門入祖譜說法利生數十年膽肝臟腑盡情吐三年禮佛功圓滿以此功勳報父母恩報已竟兩手撒開不恁麼幻圖斂跡聽顛舞現前大眾乞聖戒暫代波羅打口鼓傳戒竟下座。

第杜二位居士請上堂拈香白椎竟師云百億那身現丈六為度眾生受委曲人間天上獨稱尊大覺金仙號曰佛人人盡說今成道山僧聽得一場笑大通佛世利恒沙兜率陀天闡聖教哀憐含識降娑婆皇宮脫質何奇妙假此雪山故出世慮乎末運人驕傲四十九年無一字安得渠儂不動笑道不屬修豈有成譬若虛空何像貌如同皓月映秋潭玄穹杲日當空照大納乾坤世界中細如微塵毫末竅世間萬物俱融通假安名號隨呼叫宗師呼曰禪法師號曰教律師名之戒道者為至妙舉杖示眾云且道者箇呼作箇甚麼若論者箇乃是山僧掌中之物任我呼名呼號一曰撐天二曰著地三曰探竿四曰敲椎五能引瞋六可代老七為扶弱八為助強九作牙爪山僧喚作權衡又為遞代相傳把柄十號具足最不可呼作龍虎二字若呼為混江龍攪擾江海水族不安若呼獨角虎擾亂疆山走獸不寧仔細看來是箇頑物止好呼箇箇[口@突]蟲豈似第杜二位居士方知造惡有罪作善有功誠詣寶光飯眾當酬一偈飯眾結萬緣六度上福田飽餐以何酬三文大光錢。

寶光禮萬佛竟上堂瓊樓閣上瑞雲鬢說法堂前結五彩諸佛菩薩眾會時寶蓮艷艷布西海忽然平地變黃金纓絡雨花遍界洒感動無非一點心珍饈天賜不須擺眾口同音稱禮讚多生愆咎盡消解又能種下菩提種佛性現成豈外買諸佛護生若已子眾生聞法如娘奶二足神全教十方八德調和化四海從今不捉者條蛇任世貴高永不采下座。

上座云老僧住世七旬五日用全憑靠施主說法利生四十秋皈依弟子難清楚數年在外回成都只教觀心禮佛祖千佛萬賢參遍過八難三途來救苦三年口頭已周全山中採藥培基土養得還元任復初玄穹日月從頭數呵呵月月中間有十五下座。

上堂從今不說口頭禪飽食煖衣高枕眠無事於心忘歲月少夤緣處度時年風來拂地帶雲舞水去興波攜月搏壁上畫龍行兩普碑頭鐫鳳御書啣古人三詔不倏睬我有何能望上宣退隱居山皆本分草衣木食不為艱所以老夫掀天揭地四十餘年未曾暫息而今自覺慚惶稱此耳不聾時先退步眼不花時豫抽身直指祖禪禪難進精嚴聖戒戒不依除此兩般無法說

椅案掀翻各東西一句無生話保重聽其時以拄杖一卓云時到花枝滿緣來不假思下座。

上堂云老僧佛法無偏私如日高懸月映溪情與無情同化日世間出世共玄機如如一點通三教湛湛兩行合九師直教人人惺惺著煙塵拂盡得光輝善來四眾弟子想是翻身枕头墮驚惺夢中人誠來法會中剃髮出家受戒而求出身者麼是則雖是出家容易受戒恐難何也受戒容易信心長遠守戒難古云出家不受戒遇便行憊懶地獄由爾去法門從此壞汝實誠心向上出班剃落傳衣竟復云出家受戒已成僧須效古人行處行八萬行中勤點檢三千儀裏牢拴繩心猿走出無方覩意馬溜韁何處尋地獄天堂隨業轉九幽十類任機輪若還放逸不收斂枉爾今朝入法門聽得老僧真切語牢牢記在肺肝心功完行滿知端的步步黃金豈讓人下座。

康熙三十一年十月初一日松月禪人請住荊州西城聖壽禪林山門云秘密門開接引眾生退者則賤則卑進者得貴得尊山僧到此不進不退又作麼生以拄杖一卓云一點如如無進退眉毫轉動遍三千兩花開放杖頭潤覺得時來萬物鮮殿內云牛大漢馬老先威靈赫赫鎮山川異姓各名同佛性慧眼看無二三老僧就此顯權化聖凡鼻孔一串穿據丈云者方丈太高曠維摩室沒兩樣文殊獅普賢象百萬人天盡收放師王踞處絕狐蹤佛魔到此驀頭棒無事[欸-口+鼻]眠有請題唱六門有鎖無輕開四海無風不起浪。

上堂至座前云法王法座鋪設中央世尊坐時廣說眾生之心病山僧到此無非為眾生說些藥方此方端治人間膏肓病藥引必須問杜康陞座拈香云此瓣香莊嚴劫前平地布種排芽賢聖劫中慇懃發蔓開花即此花香果熟捧來供養釋迦復熟乾坤鼎內奉為當今人王佛滿朝文武闔國菩薩荊南當道宰官居士滿堂羅漢及羅叉普願同證無極共入龍華斂衣坐明旨大師白椎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云若觀老僧第一義棒頭有眼休懼退一棒到頭一釋迦一喝入耳一祖位魚躍龍門正是時莫待點額大沒趣僧問慈心普利萬劫難逢坐斷荊南聖壽說法利人天句子請師拈出師云魚化龍飛九霄去進云孔子曰吾道一以貫之曾子云唯得不得師云得不得時自心知老子云眾妙之門門在甚麼處師以拄杖一卓云向腳跟下看端的進云三教蒙師指示末後一句是如何師云烏藤一肩擔荷去進云聖壽禪林來雲紫雙桂堂前瑞氣濃師云任你稱羨乃云玄穹深奧露三賢雨順風調樂泰年四海三江同至化堯天舜日禹周全師以杖一卓云若論者箇道理人人本有山僧到此沒下開口只好說箇日用尋常精進抖擻日用尋常有兩般肚饑思飯喫身寒要衣穿行住坐臥審端的迎賓待客問根原果是吾家真種草聖壽堂中把心安山僧自川舉動欲到普陀進香幸此嵩月禪人眾家賢徒居士誠念山僧年大湖海霜風難敵共商本郡宰官縉紳長者居士留住結冬堅請上堂止好說箇順善二字以酬眾善誠心言到心的一字以心作箇題目世間行善作惡以強凌弱莫不皆由此心高貴卑賤無非同此一竅門風正大譽名馨香見地孤高得受訓教為臣者必須盡力進忠為子者盡力進孝有讎有害莫相還受恩受惠必須報欲求出世越三界預識其中一點妙者點妙迦葉聞之依舊笑三世諸佛說不著冷灰埋豆時來爆一卓下座。

臘八上堂云歲歲今朝佛道成不知瞞過許多人道同日月方圓應不變不遷亙古今且道此道是有成無成若無成悉達宮中何越城離親割愛猶閒可斷臂安心痛絕情若道有成千古雪山有幾人間雲挂在樹顛上枝枝葉

葉放光明舉杖示眾云惟有者箇道理三世諸佛千說萬說說他不著歷代祖師橫拈豎拈拈他不著山僧不惜慈悲和盤托出總要世人直下承當會中有承當者麼出班傳衣錫竟下座。

除夕上堂近座云一年已到頭減洩人間籌愚頑一面喜志士兩眉愁跳出三界永不落閻浮當陽一喝振天地驚醒無生火白牛喝一喝卓一卓陞座拈香白椎竟乃云盡年盡月法無盡窮水窮山道不窮初一數來三十盡來朝新舊一般同舉拄杖示眾云山僧者箇道理在新在舊想是大眾不能擇辨諦聽山僧一頌不從新舊看端的一法了然萬法通有問終年親切事家家門上賀春風結椎下座。

元旦上堂近座云日月從今起不被六時使使得十二時萬物俱合體上堂無別說無非者著子以杖一卓上座拈香白椎竟乃云過去一年更有年乾坤好似畫龍船穿江渡海無休息幾度方兮幾度圓癡眾生自受瞞人頭肉臉不近前只待改頭換過面欲聞佛法難中難聽信山僧真實語忙忙跳出金剛圈世上人人當作佛只在尋常看的端的端且置如何是新正上堂一句一卓云說法利九有拈香報五恩國泰民安樂共享太平春結椎下座。

上堂拈香白椎竟師云四方揮弘法化者無非上報四恩下利群情不枉出家虛消信施空費天年既若如是且道如何是利生之句良久云不惜形軀四海遊撞逢龍虎問根由皮毛披到何時止劫火逼身速轉頭今朝是我現前大眾根基純熟受戒時至恭請山僧陞堂傳授心地法門者耶試問如何是心地法三衣鉢具為其體不滲畦田道種生傳衣鉢竟下座。

解制上堂問答機緣未錄師云百日禪期以此周多仗眾檀諸比丘全憑吾徒勞心力自有韋馱默佑酬休怪老僧不放釣不遇鯨鱗豈下鉤不比諸方輕妄舉好歹不分胡亂收法門敗缺皆由此千古臭名無日休水到渠成月自現何須勉強用機謀本徒本是三生定不是冤家不就頭老僧不忍亂宗旨直語任憑呼馬牛雖道如是再聽老僧後語傳燈續祖實非輕行悟兼齊見地清正大寬洪人相具胸襟廣闊根機深通身手眼先存德滿腹經綸理路真大鑪中幾度煉喝轉黃河且算僧縱然如是還喫老僧三頓棒始得何故如此復云三千公案頭頭徹八萬門庭處處尊一口吸盡西江水山河大地變黃金果到恁麼見地處謹守保重只待韋馱推送出頭方纔接物利生拽杖下座。

小參

師住敘州府象山云前後釋迦大小彌勒難道不同山僧者箇豎掌云且道者箇是甚麼三頭六臂支持不下九膽七心豈敢當鋒活落落歷劫出沒無來無去脫灑灑今古升沉不減不增吾今為汝諸人推倒觀音淨瓶打脫彌勒布袋變大地作黃金攪長河為酥酪只教大眾咬著些子一場快活吐著些子滿面春風不枉來此粧模作樣做者場懣懣境界出者番男子形殊俱各要同志共膽協力忿心努力一番敲脫枷鎖拔出牢關唧唧溜一聲迸開漆桶[跳- 兆+(天/ 韭)]踢跼幾步跳出三界豈不快暢者哉諸禪衲休怪山僧口踐若不從此幹辦明白日後有人收拾渠在推倒椅案歸方丈。結制落堂云人天交接之處不比泛泛尋常之所剔起兩行眉毛如同兩陣交鋒相似堂分內外各執一行見丁著役切勿推藏把著便行沒箇商量稍生擬議犯吾鋒鋷過鼓落堂滿腹愁腸那箇時節難辯高強如羊伴虎只須隄防動著山僧惟恐難當預先告過總略提綱凡百細心切忌倉惶戒須嚴持如固籬墻禪識放收如樂鏗鏘三學業畢無限馨香與條拄杖續燄祖芳謾道滿口深許須過幾經風霜。

壬子八月江西南康府石塘瑞龍庵文湛及眾善請師一喝便坐云數年未弄伽陀山僧佛法陳懇惜乎出在行腳凡事不周不備無非觸境逢緣只當遊戲三昧眾善虔誠禮請兩片口皮鈍滯試問參禪工夫其中不容半字但只萬緣放下隨心拈起即是若論最初入門必用話頭一句一歸何處審觀晝夜疑來疑去拶到無人無我自然心空及第放則彌滿六合卷之收藏於密青山綠水吾心翠竹黃花祖意伸手推倒須彌捏著虛空粉碎撫掌呵呵唱太平大地山河成白玉舉起拄杖云會麼若向者裏會得饅頭是肉做拈來可充饑者裏不會火珠求水臨渴無依山僧過此施方便若不力行悔後遲。

江南江寧府大山鋪徐胡暨眾善信請益師云登舟度嶺自南來豈獲中途遇善臺綠水凝冰無月現青山磊雪有花開故此法無一定有虛則有實無假不顯真師撫案云且道者是真是假若道者是假山僧尋常祇當耍若道者是真眾善誠凝仔細聽山僧有句至切語不了生死輪迴坑張家死李家生或男形或女身只看善惡二字有淺深大善昇天小善人間大惡墜地小惡入迷深無物可論只好向者裏畫箇金剛圈無論久進初進都向者裏蹀跳從此跳得出即丈夫跳不出即凡夫。

堂眾為工夫不進師進堂嘎嘎發一長笑云久曠大眾敢當受請只得就頭講話是則雖是山僧平生不慣理葛藤止好直道一句兩句而己且道一句

兩句也是多了的三世諸佛說法不過利益三有歷代祖師垂手無非接引群生山僧今到此不得已鼓兩片口皮亦是挑撥大眾只得向無言處發言無說處起說無章句中表出章句無作用顯作用無把柄設把柄無道理拈道理豎杖云且道者是甚麼道理呵呵若論者箇道理三世諸佛取證證此者箇道理歷代祖師了明明此者箇道理十方菩薩苦行行此者箇道理一切比丘受持持此者箇道理現前大眾參悟悟此者箇道理大地眾生執迷迷此者箇道理所以云在聖未曾增一絲毫處凡何嘗減一分寸良由此事在天即高在地即平在人有迷悟在物有靈蠢一切眾生皆有智慧德相只因污染貪愛妄想執著故不明者箇道理佛觀眾生性羶狹劣難調難化而自思惟我寧不說法尋念過去佛即時天主帝釋三請世尊轉大法輪我及眾生願樂欲聞莫不聞此者箇道理說法四十九年末後拈花示眾也只是者箇道理惟此者箇人人本具箇箇不無總要直下承當返觀自看活潑潑無名無相且道是箇甚麼道理咦林深幽遠無人到古路坦然我獨歸。

因事落堂云山僧欲不說只見眾中七零八落雖厭煩絡索不得不說既到其中只得翻藤理葛此間結制未必是山僧有甚麼私事甘撿箇白炎頭瞞得那一箇無非為大眾一大事因緣故有甚麼私心偏意耶有甚包藏耶頭頭露出法法現成應用現前無處不有無所不周日用尋常了然大快道豈遠人人自遠也因甚麼不肯自惺自覺慣論他是他非攪群亂眾磨牙咬舌此等[仁-二+庶]儻傀儡之徒不生忸怩之心工夫不上緊逐日嘈[口*卉]如此用心迷雲愈厚若海漸深爬得出頭日已西沉勸爾有知慚識愧之流正好向此倚眾靠眾堂中柴方水就衣食自然做些現成工夫把者大事見箇明白了得乾淨一出堂去橫行直走纔不被天下老和尚熱瞞亦不受黑臉老子勾引如或未然提起本參豎起脊梁自然話頭親切咬定牙關捏定兩拳何愁大事不徹若將已分一著明了千處萬處齊明話頭看破古文今文齊破豈不快哉何須今日問話明日轉語或棒或喝枉爾受痛揚眉豎拳恍然瞞過若知痛癢的工夫有些入手不識快暢的問話止圖好看如此見識不能了生脫死而返招愆惹罪不聞前人錯答一字尚墮五百劫之狐形豈不懼哉工夫可著實行去話頭要本分道來就從答不去轉不來處起疑捨死逼拶來逼拶去逼到無絲毫擬議處切莫放捨與他廝挨如此用工出身不待時節徹頭止在剎那若到者般田地劍樹刀山即刻灰燼銀牆鐵壁當下冰消那時間開口吐氣出乎自然如同往日做就一般相似豈假安頓鋪排脫或未然直須吞洋銅汁服熱鐵丸更向大冶爐中另鑄一回換過者一幅心肝始得。

激勵大眾落堂云邇來一輩參討之客全不的當今日窮廝煎明日餓廝炒不肯向衣線下透脫將去甘作一等盲修瞎煉之徒做到彌勒下生一無出頭日子祇恐閻家勾帖到來無常殺鬼卒然而至那時饒渠有滿腹文章蓋世辯舌總是他人人口角邊覓來糟粕狐涎到此亦難濟事正所謂食涕唾鬼空費生平伎倆若是頭正尾正的漢子直須向三世諸佛說不到處歷代祖

師道不出處猛著精彩究竟看是甚麼境界自有擣斷處譬如百尺竿頭更進一步一步一步又一步只要進到無地可進處方名孤迥迥地如此方許大休大歇連聲喝出。

在家七眾取名請益師云爾因何所事兩次三番地若問請安名拈來無不是一名曰才一曰法山僧有才法二施一名曰喜至此聞法歡喜一名曰戒令爾勤修戒定慧一名曰息從此息滅貪嗔癡一名曰時時下明心見性一名曰立立地成佛作祖以指畫一圓相云任他是佛是祖是凡是聖都跳不出山僧者圈子在箇中還有跳得出者麼自代一喝云任君用盡千鈞力終是無如一指何。

茶次云者裏喫茶大家動口徵驗工夫用力少有精進的如錦上添花懈怠的似瓶中插柳此處不分清濁去迷頭依舊東西走。

江西奉新縣不然李居士取名云了了分明無覆藏尋常日用出誰覺六門晝夜自光明動靜施為毫不錯不遷不變一如如無去無來活潑潑在聖不增凡不減物物頭頭看下落今朝分明說向伊三世如來難摸索此中有摸索得的麼震威一喝云罪福若空花何處起善惡說下千言萬語要明打頭一著。

湖廣遠安縣方護法供養衲頭師云金針透出罽龍眼玉線牽回八面風織就森羅統萬象縫成八卦領九宮內函日月星辰燦外顯山河社稷雄始自頭陀親手造樹下一居食一中青州止有七斤重遠安信力數無窮老僧披說無生法功勳福德讓方公且道如何是無生法大眾沉凝諦聽待老僧說無生師良久云聽麼若向者裏聽得三滿多鉢怛囉者裏不聞唵嚩唵唵[口*曼]哆那娑婆訶以袖一拂歸方丈。

七堂云者箇門庭豈等常無端名跡播諸方鉗錘不惜勤敲打留得聲名四野彰仔細看來大地無寸土眼底無一物且道彰箇甚麼莫是德相華居士辦齋供眾向頂門著錐腳跟知痛大眾得饗飽居士賺受用若論山僧此語也是一舉兩得且道居士得箇甚麼咄識得老僧一轉語方知受用無休日。

命長無過百歲壽夭無非六九富貴多生修積因緣前世培有非時不可栽松當道方宜插柳任謀膏腴千莊不如心田一畝卑賤安分悠長高貴難保永久惟此僧道兩門巖窟草窩苦守只待大事分明放下渾身抖擻上古餐松飲露名揚千古豈醜今人跨駿穿綾犯法如同芻狗知足除貪稱俊傑迷徒任向東西走自覺醒來參老僧未曾喫飯先學嘔試問祖師直指安心法八面成半斤十升為一斗。

祇園解制晚茶次辭眾云山僧止得一幅臉皮不喜重說繁說但出一言半語聽在耳受在心依而行之大家有光彩出言不聽不信不行使我自羞自愧深悔從前煎逼大眾晝夜不安覺我過也凡有出堂者萬望包含休取我咎幸甚幸甚老僧更有幾句痛心之語出在口邊不得不言未必眾中與我有甚麼讎恨故不忍我慈心只得說出僧者三寶眾中之尊多有王侯公卿

求之而不得既叨為佛子必審其祖宗之淵源如何修行如何悟道如何度化利益一切眾生傳流不絕宜當細細省察未必做箇不肖的子孫任其憊懶而不羞恥豈不玷辱宗祖若是臉上有血色的一聞此語悚慄一番終成法器賴佛逃生的附之度外所以古云把手牽不行自肯乃方親。

擺脫塵勞求出家彌陀池長白蓮花一心向上勤精進八德池中結煙霞只待功完行滿日花開露出金襴袈裟十方諸佛同聲贊善哉奇男坐寶車所以出家二字莫當輕小出家一日夜二十劫不墮三惡道出家之人能離五過失得五勝利世尊曾住劫比羅城時說此出家功一時國王王子百官庶民信善男女俱求出家何況末劫將近莫到苦來逼身覺得遲也既得出家要持戒參禪悟明心地纔不辜此初念諦聽頌曰出家定要了生死一念參差被鬼使剔起眉毛捏緊拳瞳開慧眼咬唇齒忽然迸破太虛空一腳踏穿慧海底橫走直行任自遊十方刹土如彈指果到恁麼田地纔不辜負今日念爾如或未然信施空消尚且罷火池跳出墜泥坑。

昂昂漢子迴迴丈夫只為英雄二字牽在名利場中爭論人我剖判是非不覺光陰瞬息日月如梭一息不還如同灰壤名如電滅利似冰消不如皈向三寶門中暫不成佛證仙亦不入牛胎馬腹聽頌佛仙本是凡夫修看破浮塵如電漚樹老山崩海有竭人生難保百年周出家不望求榮貴脫俗但緣造業休學箇蒙聾癡呆漢到頭一定上天兜。

辛未二月陳居士落髮師云人生浮世如同夢千算萬謀前後弄弄到神疲氣不接一團白肉土坑送癡眾生宜保重靈光一點真如性三世如來同我共悟成佛迷走空串入輪迴火宅中三界堅牢無隙縫魚變龍雞化鳳蛟欲飛騰破鐵甕人靈自棄不前修直待臨危受苦痛聞佛法莫放縱把著繩頭敢放鬆鐵牆銀壁一時迸跳出乾坤三界外自獲天人來敬奉十方佛刹任優游那管風搖天地動聽頌出家如鳥脫羅網除卻貪嗔癡妄想五蘊塵緣色色空寶光堂上作標榜。

饒居士落髮師云既來出家落髮尤勝將軍卸甲亦如雞鳥脫籠躲離刀砧煎[榻-木+火]收入三寶數類勤修禪道佛法禪悟通天徹地道明證越塵刹法雨普潤大千纔成釋子機括若不見性明心生死輪迴何拔奸狡癡詭紊亂出家有甚悞[仁-二+(天/非)]依舊百姓光頭圖名不在里甲此等無智凡夫枉住叢林梵刹自古佛門寬廣進出毫無逼壓好歹預先告過任憑揣摩籌察果是越格丈夫沐首洗心剃髮。

人人有塊膏腴田春布秋收不記年天上人間俱饗遍此番果證作填還亮大德結人緣若到風雲聚會日清高逸樂莫忘元且道如何是不忘本元一句雨花落處非真際一念無生證涅槃。

圓根祝髮師云人同四海魚狂舞想跳龍門睹天府貪餌吞鉤入網羅終須難免庖廚楚莫是當來有善因感動寶光來救苦既來歸在祖師門勝似嬰兒得見母大鑪中鍛煉出永證金身作佛祖。

徹明禪人辦齋次師云瞬息光陰如射箭白駒過隙似拋梭霎時不覺七旬已晃若閃光一剎那幸此得叨三寶數不然虛度一生過年年多累眾兄弟歲歲難當孝順多你敬老僧人敬你屋簷水滴舊坑窩老僧更有兩椿事說與賢徒慢琢磨若是蜀中緣不就依然芒履受奔波行到水窮山盡日那時必定得諧和言不盡慢蹉跎隄防碗箸動干戈大眾請茶。

念慈禪人辦齋次師云人生於天地之中蒙乎不知天有何高地有何厚既不知天地高厚必須要明自己源頭一著始得且道如何是源頭一著生來時審問來之起頭死去時追尋去之落腳若不明此者著甘受人間饑渴正所謂成都一隻鵝東門攏下河流入東瀛海渴死豈奈何莫至臨渴掘井及至井成必不能活病急尋盧醫病危覓扁鵲縱有回天揭地手病入膏肓難下藥老僧囊有返還丹總為時人犯執著舉文殊問善財指地云但是藥扯來財信手扯一莖草與殊云無一不是藥師云大小善財也會弄乖遍地俱是信手扯來不識通身藥治通身病向外馳求都是錯呵呵錯不錯切莫忘了穿衣喫飯者一箇速向明明路上行休從黑漆桶中坐。

德福余居士設齋次師示云雖爾持齋學念佛過重功輕有斷續六時返復細窺審未必主人常住屋光陰混過事非小走脫靈猿沒處逐緊隄防休謾忽眼前若不了明白掉轉頭來何面目。

福超禪人設齋次師囑云行孝江流第一人哭振山門天下聞看罷世間能有幾吾徒算起可比倫是則須是有始要有終開花須結果老僧僅七十收元之日何安妥。

德果王居士受五戒齋次師云既為一箇丈夫漢何故勞形挑空擔要了撒開一切了莫效藕斷絲不斷現前若不了明白掉轉頭來何臉面三十閻羅算飯錢唯恐一時難湊辦幸到華嚴來請益暫且許渠了一半還有那一半不免要向老僧熱爐煉。

榮經縣仙衢大德師云代佛拈花法鼓鳴不惟榮經普天聞奔途千里來求戒足見真心一片誠線下牟尼親指示生生世世不愁貧。

除夕晚參師云儒釋道乃當今之輔佐佛法僧係國家之祥瑞戒定慧修行人之階級仁義禮智信是大人君子之紀綱貪嗔癡愛是愚夫小人之謀略積德修因乃善人之良方殺牲畜命真惡人之尋常世間有小人纔顯君子無暴虐那論良善老僧者裏佛法平等勿論上中下貴賤愚賢一例均資普種善根如法華云大根大莖大枝大葉中根中莖中枝中葉小根小莖小枝小葉一雨普潤各得增長試問大眾古與今接物利生是同是別若道是同東西文武分雌雄象王不入獅子窟參商二星豈相逢若道是別百川流水歸大澤高山平地皆共春千江水月一月攝若道不同不別一菱花燦五葉西天四七東二三不離拄杖頭邊徹撫案示眾云會麼向者裏會得聲聲爆竹送舊歲片片梅花迎新節者裏不會一年三百六十日數到頭來十二月道人不比世相同長明慧日無休歇。

吾徒彼岸十四母難說句淡話以為慶讚乍作長老只恐不慣既到空門貪嗔愛斷本地光明晝夜輝燦無字真經時刻追念人法兩忘凡胎轉換主人正坐空王宮殿運用神通剎那周遍不得金丹親點化頑石瓦磚何日變。

入堂挑撥工夫

底事無別譬如塗毒鼓聽者耳聾又如栗棘蓬吞者難吐吐得出便是出格高人聽得入纔成天耳圓通到者箇地頭還是神識邊事濟不得甚麼要一字不挂一物俱無離心意識參絕凡聖路學如是三二十年不離叢林趙州四十年不開口向後佛也奈何不得噫堂中道侶話頭未嘗純熟蒲團未必穩當何故日逐三三兩兩亂鬥機鋒且問大眾如何是機鋒眾齊喝師云且道者一喝是機是鋒眾無語師叱云者般見識只圖苟延歲月有什麼交涉若是真為生死的安肯把光陰錯過必是抱定一則公案決要與他逼拶討見明白所謂暫時不在如同死人豈肯和身放蕩若略有些悟頭即便自足譬之土羹塵飯非竟不能飽人而且自塗面目者也古德云學道如鑽火逢煙切莫休直待金星現歸家始到頭。

堂眾放逸師云參禪定要了生脫死大休大歇那時方可任意縱橫而今看起一般人纔上禪床如同酒醉相似左摧右倒前仰後撲摧得幾頭過香一炷忽聽一椎餃子響過睜起眼來恍恍惚惚昏昏懵懵但不知此何時且不管經行就把世情談論了無休歇東單幾箇談古論今西單幾箇講文解義自不知慚愧可憐可愍者等見識并不依規體制寧可辨是論非不思檀信脂膏行人血汗當想輪迴遷流生死逼人況且自己大事不共他有未必是做來與人看的頑耍兒戲的如此頑皮不透無帽討帽無罪招罪也何不稱此色力康健尋條活路做去要知此段工夫如剝芭蕉相似剝了一層又一層剝了又剝剝到無下手處便是打頭一著如行千里貴乎最初一步直至到家還要討箇行履畢竟如何結局撫掌云莫把綿蠻鳥當作鳳凰兒展袖出。

問即心即佛則不問如何是非心非佛師噴嚏一聲云自從舊歲掬水著一驚直至而今傷風過了又要咳嗽僧作禮師乃攔頭一踏對眾云者僧那來的擅到老僧處之乎者也且道是忤逆耶親覲耶若道親覲赤手空拳無襯若道忤逆低頭禮拜如是仔細看好似螃蟹下湯鍋爬者裏不是那裏不是試問大眾如何是僧眾齊一喝師云盲龜跛鰲齊張跳瞎驢瞎馬亂胡跑張口無交涉不語見地高。

同堂經行共單打坐兩餐粥飯早晚功課十二時辰瞞得那箇僧禮擬開口師震威一喝云尋常說話妄來參座犯吾鋒鋦一分兩墮老僧若不抽身出攪起滿堂都是禍侍者捲簾師歸方丈。

進堂作哭聲云老僧欲生生不得欲死死不得今朝為甚麼活活坑陷在恁麼田地橫擔竹篋云倘有一箇半箇向前接著暫且鬆口氣僧近前擬接師

云汝是一箇半箇僧擬開口師打云汝非算數笑出。
諸仁者莫以靜默為禪喧譁為鬧如此用心工成兩斷猶如背溺投火終不能得雖道以動為病以靜為藥假如動靜二相了然不生又作麼生咦莫道輕安猶是快輕安且過一重關。

機緣

康熙十二年癸丑二月廿六日工部擎安迎師至衙內佛堂一夜清談但蘇王欲來省師安傳白塔住持速去收拾方丈迎師進院。

千歲好來相會少坐間 殿下即至師欲下床。

王兩步參前滿禮竟坐師云殿下乃千乘之體貧衲無非山林丘壑一拙禿子敢當。

王駕親臨榻下 王曰久仰和尚宗風孤峻特來親領大教師云貧衲久響 殿下參禪打坐做工夫即此一路來時還有工夫也麼 王笑云望老和尚指示師云坐臥亦非禪施為不是工但得心無事杲日現當空此箇天真妙不昧尋常中只看日逐尋常是箇甚麼道理 王曰此事不越尋常但尋常造諸孽如何師云永嘉證道歌云無明實相即佛相幻化空身即法身任他善惡業捉賊捕巢穴跡在牛還在貫穿鼻孔拽 王曰拽得轉頭便好師云殿下已離宮卻在貧衲丈中 王曰蒙老和尚者一呼師云善哉王推眾官請益問答繁未錄 王滿心歡為住持云本藩留和尚供養爾可早晚殷勤吩咐竟近前辭云暫別老和尚師欲下床送 王辭云不必下禪床師為住持曰真是菩薩應身今乃一會如故遂請師進府齋次云望留筆跡供養師云十二歲出家獨識生死兩箇字 殿下欣喜不免寫上。

雕梁畫棟勝瑤蓬暖閣煙霞瑞氣充赤壁階前立萬土玉堂門外坐三公悠清恍若神仙府自在情同淨飯宮剎利靈山曾護法而今依舊占高峰書畢。

王曰真乃一味本色不假思惟請師就華家寺上堂問答法語編入上堂錄中。

康熙十三年甲寅 王出師湖廣荊州府迎師南門茶庵正與天印法姪接談忽報 王駕親臨謁見和尚溫慰問安竟茶次 王曰特覲和尚適遇者位禪師相談佛法可得聞乎師云若論老僧佛法未出方丈未面 王時早已說過了也 王曰必求再得一聽師舉杯云若論者箇在昔趙州凡學人來參便叫喫茶去但不知印禪師分中如何示學人印答話從口出師云出後何如印云遇客拱手師對 王云若論從上諸佛諸祖佛法隨物應酬見機而答即同如是不識在 殿下分上又作麼生理會 王笑曰願聞印云兩眼對兩眼師云畢竟要知落處始得印云伸手只在縮手裏師云必須要 王口親道出始真印云一切諸法藏盡在不言中師云可見 殿下穩

如泰山戶部喇居士云不說而說已師云即今說的甚麼話士云諸佛諸祖不得而聞師云正所謂無言無說處纔是 殿下真受用。

夜坐次西堂云看起者事不與世物相同眾不語師云古云青山綠水祖師意翠竹黃花古佛心那些是你不同處堂云諸佛有口說不著大悲千手摸不著師云原來是箇鈍滯貨堂無語師云猶然修靜主云請師飲過者杯茶師對後堂云好箇趙老消息卻被旁觀看破了後堂云夜久更深明日再判師與劈面一掌云要了當下便了說甚麼今朝明日。

江陽胡居士問弟子雖持齋不知心從何明性從何見師云且先喫茶後喫飯士禮云生死不明乞望指示師云老僧者裏無生死可了以偈示云問生何曾生問死未嘗死動靜中不識腳跟下薦取使得十二時不被二六使踏破鐵草鞋出言合性理從此不問生亦不覓其死黃河徹底清諸佛亦如此。

問此挂鐘板是禪期戒期師一喝云是禪是戒進云如何是三聖境師指庭前桂云著眼進云如何是三聖人師云覲面不親僧作禮師云錯會不少。問為山牯牛請師牽出師起立以兩手按法几一喝云會麼僧云不會師以偈示曰分明大白牛天地暫為稠全體獨露出為甚眼無眸。

僧進方丈禮謝和尚示偈師以偈中語徵云汝識頂門眼否進云和尚喚甚麼作頂門眼師拈扇搖云隨拈即是眼扇頭通身涼風從花裏過馨香遍十方。

問如何是禪師家行履師云時時恒存抹殺人的心腸進云請和尚從何處下手師云已此血屍滿地進云學人未見端的師亂打趁出進云抹殺死人師呵呵大笑云死不盡的狗奴亂嘍。

問和尚隨世亂否師云隨著世亂進云因什麼不定師云因不定進云何故隨宜答人師云故隨宜進云不隨宜如何師云不隨宜僧拂袖而出師亦拂袖隨出進云作麼師云隨宜得妙。

問弟子遠來瞻禮乞垂開示得霑雨露師云汝昔曾何為進云惟求念一句佛師云念佛的地獄有分進云參禪如何師云參禪的作牛作馬進云和尚如何師云山僧成箇鞭策士僧作禮師策之。

士問世人俱來朝見聖帝可能了得生死麼師云惟恐不能親見帝面若能得見未有了。

僧問為長老家何得自忙師云吾不自忙誰為我忙僧禮竟長住不語師呼侍者傳拄杖過來者僧想就計較禪和不開口諸佛難下手老僧正要向諸佛難下手處正好下手其僧茫然而出杳杳無蹤。

士問開口即二義如何是第一義師云未開口薦取進云漆桶未開時如何師云風來隨風雨來隨雨進云開時又如何師云山即是山水即是水。

聯芳頌古

毘婆尸

前作莊嚴主後為白丁漢望空說罪福平地長荊蔓識得人王即法王踏
翻彼岸明公案。

尸棄

七萬壽嗔少一句法嫌多拘利分名相芬陀出愛河只為當初不納性和
身輓入是非籬。

毘舍浮

四大假空無因緣和合有罪福兩消忘通身便是口不住善燈無喻城好
來現箇千人醜。

拘留孫

分明迦葉兒本是婆羅種佛不自稱佛何言獨高聳蕙蘭昔日不多生芝
草而今遍地茸。

拘那含牟尼

應機清淨城說法東西陌魚躍龍門高幾能未點額無影樹開不夜花熾
然灼灼是誰摘。

迦葉

不貪梵德財惟覓奈城佛撞著禍殃頭平空漲瀑[泳-永+(嘆-口)]地
動天搖三界空至今拈起無一物。

釋迦

生來自道尊何事入山村說盡世間法有無一口吞獨有拈花微笑事百
千萬劫難酬恩。

迦葉

飲澤太癡獸慣遊香智胎懷因九十劫賽會禳天災掃邪歸正識花笑入
定雞山慈氏來。

阿難

智慧超天人自欺禪定否幾乎墮術師幸有楞嚴叟倒捲恒河徹底清分
身四供利三有。

商那和修

六年墮母胎一世忘機略咤利物生色罽賓王福薄柴扉水徑長蒼苔衣
架鉢囊棲鼠雀。

優波鞠多

行化震波旬神機驚六欲度生無量籌求嗣一童俗弄盡許多鬼眼睛到
頭好事一條軸。

提多迦

父夢湧金日阿誰辨假真縱知六劫事怎不表聲名脫皮換骨幾千番既
若不迷誰是兄。

彌遮迦

梵天最上首來此作何幹者箇攪家精兩頭三處絆纔舉利生接物心撲
頭撞箇洒糟漢。

婆須密

從來不識佛自古未聞禪放下酒鍾子方知壺外天雖然未服參蘇引以
此調和脈絡傳。

佛陀難提

本原姓瞿曇花開三界瑞帝釋眉毛空諸天鼻孔閉只為利生智力高一
時權署法王位。

佛陀密多

乾坤有定方造化無能測默識五旬春遇師譚道德不會知音口不開至
今千古作奇特。

脅尊者

六十入胎遲八十出家早誓限三年悟孤光一輪杲真是人間大丈夫而
今幾箇奮心老。

富那夜奢

平日無欺心禮師地變金臨機難讓著花種固根深遍地黃金人不識波
羅奈國覓知音。

馬鳴大士

珍重毘尼王攬行奪市位須弘二諦法看作圖名利不因扶教伏魔冤仔
細看來兩沒趣。

迦毘摩羅

假鹿成真鹿為魔亦作佛偷心是慧心馬腹若驢腹百謀萬算總是空異
眷三千同一目。

龍樹

千年樹神麟五百龍孫兒從此具圓後清規萬莫移忘卻山中辛苦日且
彰座上月輪時。

迦羅提婆

須知福是佛不識星明心謾道薦隨賤攝乎輕者欽者段風光憑自得已
連名節到而今。

羅喉羅

誠然大快事獨許石人見定住毘羅城鉢擎募梵殿父子登科天下有無
字文章誰掌選。

僧迦難提

此翁不納實生下即能言火宅難成道深山易養元秋去步觀翠竹長春
來遊玩百花蕃。

伽耶舍多

聖化不同凡或多亦或少七期足誕時如月琉璃皎到處持圓賣百歲平
來不怕傍觀誚。

鳩摩羅多

諸天厭久樂三惡愁長苦爪破面如蓮膽羆貌似虎當初錯用者場心相
會兒孫無面睹。

闍夜多

智沖驚宇宙法說動人天細推有三學新拈無一宣化緣將盡於羅閱互
古香名遍大千。

婆修槃頭

盡壽行頭陀不忘前七劫紅爐煉精金白日消冰雪明暗二珠晝夜光群
生隊裏分優劣。

摩拏羅

謾道寶王迎十方憶即至一心無罣礙三界任遊戲分身塵刹老禪那不
識誰來月氏利。

鶴勒那

千聖金光子生來叱廟神膽大包天地眼空納萬嶂須彌頂上不消住慣
到人間弄鬼睛。

師子

從前錯用心冤對豈容躲揮劍問空麼昂頭答無我幸先分二支向後任
君剖。

達磨達(旁出)

一坐任千年到頭不識禪定珠豈內外心月映方圓當知佛法原無執語
默誼譁處處全。

婆舍斯多

道行迦勝國法弱而魔強隱入於天德術師嗔復良 焚衣便把密多赦可
笑可悲戲一場。

不如密多

龜蛤納明珠羽毛含大意龍蛇攪雜處凡聖交參地因師囚禁若冰消梵
志化山如粉碎。

般若多羅

堅城食有餘香至國王迓獻上牟尼珠一時起變化三十七光射雨泉二
十八燈傳大夏。

菩提達磨

六宗無異見三載會蕭昂金陵不契機拗履返思鄉任從兩土風波起單
指安心無別方。

慧可

昔日欠珍重今恐錯上瑩疾刻煙風起暫下可憐生辨和興謗如甘露邑
宰非刑似雷鳴。

僧璨

北齊尚難藏後周豈易躲不因續祖燈無可無不可為道惜身如護珠全
忠顧命若關鎖。

道信

法門孤峻漢千古老[仁-二+幻]頭巖作無窮庫山為寶藏樓綵詔三頒
懶赴命冷坐灰堆炮芋頭。

弘忍

問處不清頭答來未落底半斤稱八兩推倒又扶起當來續化讓阿誰得
骨尚難豈得髓。

慧能

擣春八月米超過九年壁不懼萬人迫惟恐一箇逼范陽正在獺獠邊乍
見土紅作赤壁。

南嶽讓

威儀縱三千不識天外天細行全八百何處看交涉不為曇花遍地開而
今幾箇分優劣。

江西道一

滿堂師子兒一百三零九輕動些鋒鋸幾人是敵手露爪張牙無爾分住
山依眾聽時苟。

百丈海

禮佛剛擬議一喝落魂魄纔識天尊高方知地卑闊只想那時作笑柄誰
思今日為長策。

黃檗運

若問前程事腳跟親點地到岸不須舟歸家豈用駟聞聲吐舌失威儀一
世孤高全大義。

臨濟玄

在處兜人打隨方惹禍害一條硬拄杖天地不能蓋說是說非取自然捏
妖捏怪無何奈。

興化獎

連打連聲喝驪龍珠被奪錐鋒一處筈箭矢三頭掇既是孤高不恁麼何
其末後著魑魅。

南院顒

一團赤肉上八面玲瓏襲線下藏牟尼千峰萬仞立只為當陽多受風若
還潛影有何急。

風穴沼

棒下出無生荒田處處耕謾道去住印厚重何能輕踏倒須彌全殺活掀
翻几案覺縱橫。

首山念

慣宣無字經有耳不能聽拈口分明說揚眉若彗星拂袖昂頭翻祖案轉
身依舊獨丁丁。

汾陽昭

碧潭水界月撈底掀翻掘袖展體全露風光無休歇不遇知音莫妄舉嘗
聞獻玉足三刖。

石霜圓

俗流之鄙事與佛法無二拈起共禪心放開同祖意勿據空空與不空隨緣處處真如義。

楊岐會

關甚不容針海寬納萬嶽既知般即是何必再諄斟放開宛轉物如法收斂融和佛是心。

白雲端

在上豈非眼眉頭頂襍冕謾言腳在下履底外車輦不識真空妄捏角笑穿鼻孔無深淺。

五祖演

足蹈手支舞將何物作主百千方便門一段光明普打破冰凌到處天方知星斗現當午。

圓悟勤

試問西來意亭前指柏子腳跟未站穩一見談空理登山涉水有趨向佛法程途無定止。

虎丘隆

竹密水渾過毫釐無阻播山高豈礙雲宇宙成功課祖脈懸絲險若危虧渠鼎力一肩荷。

應菴華

有意及無意四生同妙智孤高一性靈頂天壁立地曇花不夜至今開心上菩提無內出。

密庵傑

徵詰既無痕如何道破盆擬開口即錯不動獨為尊徹底有條潔白路當來切忌走荒村。

破庵先

風生水有紋煙起爐添焚木落秋空寂火升暑氣斂一窟風光萬物主千崖雲彩眾山臣。

無準範

者事何分俗石頑能抱玉廁中拾得劍無榮亦無辱明明造化隨方圓杳杳虛空無直曲。

雪巖欽

一箇鐵饅首何如下得口咬穿爪牙多平地翻觔斗至今到底沒巴鼻慣在人前現箇醜。

高峰妙

好夢不多寢翻身弔下枕瞠開眼細看只見滿床錦扶起將來自放收醒醐上味是誰飲。

中峰本

討男無可度竹篴支持駐塞破太虛空全憑自照顧半邊鼻孔長流水八面行來依舊路。

千巖長

合眼倒身臥鼠掀貓器墮黃梁夢未圓方髻一齊破徹頭徹尾沒些些仔細看來是者箇。

萬峰蔚

風息水紋平漚消徹底清遊魚安自逸船子得容撐釣竿垂入秋潭裏既是真龍豈受驚。

寶藏持

佛法須是海江山亦可改鴻濛未判時一段光輝爨不掃地時不起塵擬
即干戈天下鎧。

東明岳

何能破虛空水流還在東不從知見立日出紙窗紅山頭雲疊安無雨水
底波濤定有龍。

海舟慈

毛能吞巨海芥可納須彌兔角為籬棧龜毛作網麋雖然是箇拏雲手不
遇知音何足奇。

寶峰瑄

異境縱同風堅牢必不空登山問土主涉海告漁翁扁鵲盧醫不識病水
簾洞外訪仙童。

天琦瑞

阿娘認作婆鬼母是妖魔觀音非是女修羅豈頭陀金沙玉石休胡混心
佛眾生重揣摩。

無聞聰

知燈即是火一妥一切妥心同世苦樂意共山花果千江有水千江月造
化無窮總是我。

天心寶

未生已前姥安指火中釜菜被水流去怨聲冲斗府遍地蒺藜難下腳通
身栗棘誰輕侮。

幻有傳

日月任橫擔乾坤何處涵當陽懸古鏡毫髮照秋潭方圓長短高卑映青
白赤紅不現藍。

密雲悟

惟有銅官山出林虎帶班柴堆突露出壅塞兩三灣
煥然大地平沉底空手出門滿載還。

破山明

大地如平掌午時星斗朗一交跳起來通身俱輕爽
腥臊之氣人難聞不識逆行過後想。

敏樹相

法藏和心藏兩頭齊快暢掀翻無一字光遍河沙
放行藏不合古今同天上人間無比樣。

空自頌

生成箇俗漢無定亦無亂任佛任魔來不毀也不讚
隨世和流遍十方心肝鐵鑄人難換。

聯芳偈

付淨凡任禪人

天童中毒入膏肓三聖堂求解毒湯一味酥酡親點化
將來拈弄療諸方

付惺來正禪人

虎雄法令正當權不許尋常佞口便辜念棲山苦淡
久安心且去守時緣

付佛山清禪人

爐開廣佛接群英凡聖從今鍛煉清鍛箇掀天揭地
土一莖拄杖續傳燈

付滄璣逢禪人

數十餘年向外馳如今獲得正逢時縱將兩手吩咐
去是必老梅發嫩枝

付菱南真禪人

南旦脫跡入西乾隨處分身事理圓揮拂煙波彰祖令慈風德雨潤巴川

付參石峨禪人

象出嘉州勢占高峨峰頂上伏群豪自從聖壽親分付一坐如如萬佛朝

付暹明開禪人

一世孤高不入流忽聞聖壽兩眉愁通天拄杖玲瓏眼拽向十方任放收

付徹明現禪人

自從廣福轍身來一到芙蓉花正開臨濟家風親密付因緣時至任安排

付普拙正禪人

山林獅子勢高雄豪氣迴威超碧空動徹天人及萬象燈傳正印嗣無窮

付明旨善禪人

雙雙嫩桂多羅識直至如今方印證正脈綿綿傳亙古朝朝
天子來封贈

付揮印位禪人

祇園應世重拈花比昔頭陀笑更奢先付袈裟定祖位法輪常轉遍河沙

付璽旨勤禪人

二十年前向外勤歸來忽覺息聞聞祇園不惜重加棒柏子頻拈天下焚

付念如酬禪人

平常語默勝戈矛一喝當陽幾度籌獨取臨鋒無懼怯祖燈千古永長流

付香林仁禪人

道基穩厚德仁全博古推今悟理圓遞代真符親交付張開口任喝人天

付珠林海禪人

竹密任憑四海流汪洋正好養龍虬知全頭角珠鱗備特助風雲近
冕旒

付古燈昌禪人

濟北宗風煙水忙陽和一曲甚馨香佛祖位中留不住白棒付伊續桂昌

付興隆旺禪人

石鐘敲動雞開口驚惺頭陀出定走識得拈花微笑意相傳遞代利三有

付任展理禪人

千里奔途為法來現成公案不須猜有朝踏著青雲路不假思惟得偶諧

付翀霄頂禪人

金鱗誰識顯坡頂山大水深安益穩擬欲興雲潤四方河沙法界盡春景

付湛清儒禪人

棒喝門庭不順情皮開血出定輸贏驪龍頷珠擎入手可向金階利貴人

付徹通融禪人

三年航海九居嵩未立雪時徹骨通一遇芙蓉添造化剎塵國土闡宗風

付雪居陽禪人

門庭高聳正當陽濟北家聲千古香法忍寶符親囑付頻拈上味供諸方

付智能賢禪人

達磨航海為安心佛祖聯芳胤道成重遇智能皆印證將來萬化繼千燈

付靜融興禪人

佛本西天大聖人拈花微笑續傳燈達磨到此安心後濟北家聲千古興

付含潤慈禪人

曹源香水滿天湖流入西江萬派殊任教玉瓶收不住興波捲浪壯
皇都

付雲峰隱禪人

佛祖名山隱智賢機緣相合印心傳老僧符柄親交付拈向鑒華利大千

代峰頂徒付惺悟柱禪人

師在宗門子續傳天居上也地相聯挺身擔荷千斤擔密印祖燈即孝嚴

付玄明方禪人

鳳凰飛入金毛窩珍重皮毛本不多堪受老農之棒喝將來他日唱玄歌

付中先正禪人

軒昂獨步到西川無限普賢駕象喧惟有華嚴行正令一莖拄杖付中先

付見雲聖禪人(住艸市)

林下久居養聖胎常將本分自安排古人有句合頭語說與兒郎仔細猜

付應天香禪人

法門不是當尋常養德存仁待日張符柄縱還把在手龍天推出纔馨香

付光輝淨禪人(住靜海)

近時佛法正當機放出金毛獅子兒掃蕩群邪四海淨
皇恩佛敕法幢輝

付窮通指禪人(住山東)

祖師豈肯擅歸東直為蕃籬指路通面壁九年得法嗣相傳遞代永無窮

付正宗印禪人(住和融)

單傳正印別家風拽轉轆轤豈算功拄杖禪家之手眼剎塵國土現神通

付古佛綱禪人(住清溪)

五葉花開亙古香隨緣拈起供諸方投機言下親交付海宇播揚佛祖綱

付神悟真禪人(住遠安)

寶光開放一枝蓮香透十方葉覆乾神悟才能得大用宜當速去利人天

付能仁威禪人(住湧蓮菴)

隨行到處雨花飛遍界威風壯祖基此是能仁當出世天垂寶蓋地產芝

付高安興禪人

梁時老漢太孤高單指安心出九霄脅下三拳興北闕兒孫遍界騎金毛

付智潔清禪人

古今鼻孔一般同凡轉聖兮魚化龍智潔神清入祖位遼天拄杖快如風

付佛海禪擎安居士

雄雄宇宙一輪孤幾箇男兒真丈夫惟有擎安見地潔一聲響唳絕精粗

付永明昌汪居士

盡性為官見性佛揚塵舞蹈有何屈將來護法讓阿誰特此印心一柄拂

付冷觀胡居士

進門滿面笑顏開擬是頭陀應跡來鐵笛橫吹遍法界風聲遠播振金階

付洪通房居士

高懸皓月照渝村餌在鉤頭水面渾惟有合肥機量闊連星帶浪匳圖吞

付剛直趙居士

昔日世尊正法眼人天百萬授王公寶光信手頻拈起親付剛君紹祖風

付佛應德成陳居士

洞徹三宗可印心靈山曾種菩提因護持佛法不遷改聖壽收回上祖燈

法偈

示惺來

踢翻漆桶欬然惺推倒禪床直下開龍躍山前一轉語虎雄堂內幾兢哉
曹溪嫡脈稱魁首臨濟正宗羨智才有問當機何所事青山綠水表西來

示佛山

鯨鱗出現日昇東朵朵桃花映水紅兔角謾言不值價龜毛信聽快如風
珊瑚葉瘦根蒂遠瑪瑙枝肥花果充世路宜當退一步法門不許自私通

示明旨

荊南風化永昌昌語默行藏讓子強勇猛立身傳正脈丈夫豈肯坐偏傍
錄傳天下祖燈定德布十方世業長惟有當陽一著好落花流水自馨香

示璽旨

上上根機占步高法門興盛且雄豪清規端正人天仰戒德精嚴祖佛褒
赤足兒郎行密行白頭老漢不辭勞郢州景邑物生色出箇金毛獨占鰲

示滄璣

頭陀幾次化娑婆曾記拈花事也麼近日鋒鋷渾厚少將來法道太戔多
胸含萬卷休輕訊日顧千行莫妄叱養德存仁時節到任從海宇唱高歌

示參石

恰恰無心得上風量天尺子不同弓達磨本是西方祖臨濟無非東土公
借手拈香為後學轉肩挑擔接當雄峨眉凡聖交參地玉石金沙各不同

示普拙

聲名播在祖師基天下宗風無二施奮志莫忘授手日傾心行道兩光熹
波平風息可垂釣月朗山青任展眉架上金雞催早醒簷前靈鳥噪春枝

示揮印

奮志來參是必誠恨能得法疾時興冰心一刻忘奇路窮骨暫時思艮庚
冷淡家風常寂靜誼譁世界幾播驚榮華富貴前修定幾箇石崇財帛星

示慧眼

法門總要立端地理正情真人敢叱缺德鮮能慢出頭全機大用急前趣
龜毛小利污清名兔角撐天顯妙志道義知恩有幾能冰清玉潔無方譬

示量洪

世事稱心懶向前既叨祖位不同頑法留三藏成宗眼名播十方希正傳
他是男兒你是漢渠能妙用爾能玄大家伸出拿雲手各有神光一洞天

示念如

江頭正好下釣竿莫待金鱗轉下灘把斷要津顯妙智放開化路現奇鸞
登峰纔算拿雲手下海方知搏月端同氣連枝眼孔窄退身一步自然寬

示輝海

昔日今朝事不同簷前棲鳥枉張弓擒龍縛虎無渠分布霧舒雲有日紅
急水灘頭撈皓月孤峰頂上捉旋風既無煉石補天手須到芙蓉全始終

示念萱

謾云坐享以稱禪如世功名磨硯穿考試榜中入幾號凌煙閣上名高懸
祖師法令如王旨豈肯因循緩刻延時豐道泰當洪化傳燈正脈誰爭先

示香林

千古宗風誥賜山含情草木盡和顏全機不用輕敲打滿面春風化世間
無事於心天地闊有求注意過重關勤操拄杖搏龍虎那管黃河有幾灣

示心一

在處安身即是家切須休弄兩頭蛇打開明路不前進閉卻迷津沒處巴
依得始初說的話機關撥轉毫無差東方日出已將午急轉頭來看落霞

示珠林

分明好隻畫龍船可恨丹青描未全龍臥雲中纔有兩虎行風裏得方圓
何妨直入西流水那怕漩歸東激泉輕舉簦竿已到岸渡江少欠三文錢

示古燈

走盡天涯難合符一聞聖壽駛奔途進門不道路程語出世先言到岸敷
祖代相傳頭尾正師親授手的規模打開寶藏隨拈取將去人前任展舒

示興隆

雞足名山老比丘劫前種下有根由芝蘭自古不多產香水而今太廣流
從此印心揚法化佛恩祖德宜當酬渡江不許用蘆葉行到其中有扁舟

示任展

倉忙趕到碧璣關攜手同遊獅子山次往勝音留過節復歸曲靖卻辭還
方知的實為生死纔覺真心求上攀愍念至誠途遠送預書法偈把心安

示翀霄

脫俗修行奮志高全憑道德伏群豪孤峰晏坐非推懶平地施為不厭勞
接物句中誠實語利生言下無虛褒逢君休說二乘法直指明心越九霄

示湛清

誤入修羅覺出家征袍放下披袈裟了明心地何生死脫盡皮毛沒點瑕
前為進忠後進孝初能栽茨末栽花從今荷得祖師旨生鐵饅頭也教葩

示越能

江西侍從到京都早晚殷勤未放舒情性孤高兼直傲心腸潔白更親疏
無心戀世來棲洞有意看鸞去種梧效古溪邊養滿足出身一日萬全殊

示松月

欣羨情懷道念長深知不把祇園忘志高豈肯落人後勢大應當騎象王
絕頂孤峰纔顯俊懸崖進步足稱強孝師信友大機用自有清名響四方

示徹通

江南江北任舒張吳水安同炎水香若遇赤礪須下馬但逢綠柳休乘涼
人情嬌態少濃厚世事誇張莫當強舉步常防泥裏茨稍能滿載便回鄉

示雪居

生在江南死在川死中得活一莖竿風恬浪靜釣明月兔走鳥飛莫妄攀
山裏有蹤纔布網水中無影不安筌有朝一日因緣至君召王迎懶受宣

示靜融

遍界煙塵沒處藏算來三寶地清涼埋名隱姓趨安樂斷愛除貪坐穩航
德厚仁慈僧會寶才高志大法中王傾心將錄刊流海續脈芳名亙古香

示含潤

二諦衡權兩著碁正從忙裏好添錐追風快駿見鞭影出穴蛟龍望海施
祖令行時無二用紀綱威處豈三思世間出世頻收放急斂繩頭莫待遲

示佛海居士

本受靈山懸記來而今應世百般諧王公化作菩薩面侯伯教成羅漢胎
若遇智人談性理已逢聖主論雄才先將諸祖錄歸藏纔顯德禪正眼開

示永明居士

全仁全德忠義真一片冰心無舊新世利世名隨本分進忠進孝必恭遵
修行之理莫如是慕道工夫無過諄看破浮塵空幻境菩薩應化宰官身

示佛應居士

威儀跬步到祇園想甚機謀別有便喝轉狂猿多住宅呼回良馬少馳塵
現前德布清幽地過後身居化樂天莫與眾生結垢網回光返照佛齊肩

示一念居士

向道之心不厭勞筆頭落處有龍潮七通八達孝忠貴三界十方仁義豪
求壽求榮積德妙悟仙悟佛疑情高自從皈敬在三寶一喝當機獨占鰲

示自靜王居士

不明生死須參禪一句話頭無雜繁萬法歸從正念上六時仔細看精研
看他起處從何起疑情片片打成團急急掇無容處懸崖撒手自如然
一朝打破疑團子三世諸佛把手連到者裏莫問佛休言仙一段光明晝
夜眩

示萬融

子孝臣忠理正綱青雲一路有宮商聲名富貴已生定造化合符豈問康
運至雲開星斗現時來霧揭太陽彰瓜甜果熟歸全處元日靈峰乃故鄉

示灼然

虛靈曜日最清高千古香名在一朝文曲傍飛群識闊紫微正坐眾星朝
仁風陣陣迷雲邈德雨颼颼暑氣消萬種慈光無可答尋常合十心香燒

示西傳

岱嶽天齊鎮海疆無邊國土來貢香風調雨順萬民樂市旺村興四海彰
水土俱霑
天子福物情全仗帝王襄地靈人傑般般秀德厚功高事事昌

示胤兆

黃天大道本無私蠢動含情共覺知悟者高飛迷者墜智能上進愚能嘻
披毛戴角造何業高貴聲名修甚的當識前賢勸善語心空及第上天梯

示宗胤

紅福盡時何所依預先想箇退身居三間茅屋神仙府一箇蒲團道者基
渴飲清泉如玉液饑餐胡栗勝黃[廿/(齋-示+貝)]正心頓悟超三界
斷盡凡情忘臭軀

示全慧

男兒有智早尋安世事浮漚併不干高閣瓊樓宇宙窄孤雲野鶴法身寬
三黃五帝名垂永四聖六凡歸復還入定比丘多進益出身長者莫疑難

行由

師住成都內江三聖寺結制堂眾披衣一齊進方丈展具禮竟云和尚大悲仁慈有請則至有問即答是否師云是問來有疑為決進云和尚禪道佛法施矣戒德持矣未晤和尚行履諸祖出世皆有行由師嗣敏樹老人而紹繼臨濟正傳三十二世祖位因緣續接之原與昔年操履漸次和尚姓氏福造乞垂開示使我弟子等暨將來大眾知其和尚進道之初出世之由日後好來依期頂敬師呵呵云者些醜態何須也要說出汝既誠請不得不然待茶罷落堂為眾表白師入堂為眾云若論諸祖行實山僧未嘗行虛若論諸方嗣人山僧自合嗣法若論修行操履漸次慧日高懸不托依止山僧分中豈有漸次若論庚甲管窺太狹鐵樹開花不合春鴻濛未判我先生若問行手有幾何虛空原與我同庚據理而言此即然也若以實情論之眾皆諦聽一一為汝說過自山僧出家前後參師訪友機緣問答事事太繁難盡吐露略為表之以成來原山僧原宗楚籍寄寓忠南父楊母汪生年丙辰十月初九母夢風雲雷雨護送金龍入宅覺而生焉自幼持齋念佛雖狂而不至顛非而不久戀忽一日見諸含情返觀自嘆曰六道四生一切羽毛無非從人道中墮來從上諸佛諸祖諸大菩薩皆自人倫中修去何其坐觀成敗不自覺悟只恐一失人身萬劫難復每自刻念在心若不求脫俗塵罪孽日作日深忽於眾中不由自嘆云幾時歸入深山修道方滿其願眾有云往日為狂子今朝發顛語又有云此子出得家鐵樹也開花此子出得家遍地是釋迦又有云事怕起心和尚原是人做的所以山僧始因眾中一句戲語幸得傍從痛處加鞭故爾佛法世法正要如是胡不聞男兒漢大丈夫要了便了要斷便斷遂辭雙親遠塵離垢徑抵黔地熊家寺參禮靜主悟修師求度其年正二六修云子實為生死出家必要參話頭發疑情方纔得悟予云既知出家即不迷矣何處求悟修開示萬法歸一一歸何處話頭日夜提撕忘形寢食未至一載覺個輕安辭修復轉忠南住鐵山黑林寺墊江接住熊家寺鄧都十方堂鐵和尚處受沙彌十戒梁山龍潭雪和尚處具圓每日只覺目前浮逼逼地那問東西南北虛活活地誰聞人我是非工夫縱有幾番進益不敢對人說破予從百千眾中未擅夾雜半言豈肯交談一語連年累月如癡如聾如愚如啞經行勿禁晝夜似迷似醉似風似顛見者云是[言*((舛-夕+(一/口))/隔)]子又道是個蠢才任憑世人卜度一味成個憨獸忽聞墊江木頭灘月竹和尚結制亦往參謁近前如利器鬥鋒鋸羚羊破金剛龍珠既到手又要兩無傷期終轉大竹參禮萬峰師太峰云此處無佛法至此何事進云有佛法處不住特覲師太峰笑云好好老僧建福恩養老隨眾作務

自然有益進云學人尋常不求自得何希圖益遂轉廣安龍臺寺參見象崖和尚崖云甚處來進云大竹崖云大竹多少大進云遮天蓋地崖云隨來有麼進云有崖云獻出看遂呈密祖訃帖崖云幸得上座傳音進云和尚切莫顛倒崖云世禮不可缺遂開孝滿堂變白旬日間地方變遷辭向峨嵋跋涉穿州過縣循循然一句話頭為伴侶悠悠然半個蒲團常隨身不問路途遠近那觀日出高低晚倚崖樹神祠日靠村落止饑昏昏然不覺至於富順硐雲寺其日住持禁足守戒三年滿請同住大家硐同參數十僧禁語打七各執一警策互相逼拶無有透漏半點不覺一日疑情觸發放下千斤重擔覺得快活自由自在方是山僧放捨性命時節欲上峨山轉南方省諸尊宿看他是個甚麼面孔從峨轉到敘府僧俗誠留住安邊白象山每早瑞雲結集光現室前感動兩岸善信朝覲絡繹不絕自思愧曰分身無量難報諸佛洪恩故此朔望落堂開化僧俗俱要參悟為第一法華云除此一事實餘二則非真收拾欲下江南蜀中忽遭大變遍地澆漓黎庶奔逃山硐老稚饑殍於坵壑村落常聞鬼語城市盡是狼聲可憐可愍百無一存山僧只得朝東暮西兵馬營中亂穿混走殺人場內橫行直行逢惡不驚遇善來迎方纔化為極樂國土即時變作劍樹刀林大眾那一番險惡境界石人垂淚木婦悲傷不是具分鐵鑄肝膽被此世情搖惑所以古云八苦交煎鋒刀[金*解]體時要作得主宰看有許多大志氣量人卻隨世情牽絆去耶若山僧由此那有今日總要腳跟立得穩當原日念頭真確正從顛倒世中淘汰淘出人來方纔成得丈夫彼時只得躲入鎮雄隱居一載土人不聞佛法之名僧相何為開口唧唧[口*窠][口*窠]形貌古古怪怪衣帽不同語言不識聞得四方稍靜遂出盧衛中和山住靜剛未多久招安官兵忽至地方苦狀不堪想是難逃往業拈香啟白三寶羅網得脫盡力行道報佛之恩次期無限兵馬鋪山蓋地而至軍中一官人姓張近前問答機言相投接入營送至仁懷後入花壩山隱居大眾此非等閒諸方被他劫奪綁縛進營擔負山僧感他恭敬禮請進營供養何也莫不是山僧素行一點真實不遭此凶神惡魔而返來恭敬護法彼花壩山係綦江仁懷桐梓三縣交界實乃夜郎總府趙檀之地初進山時淒淒而上捕鹿跡而跡漸至山頂倚樹相依剛坐間猛獸臨傍人不思議色空無相定諸境潛藏邈無形跡如是住三載種種辛苦未有剎那不在本念所以古云大事未明如喪考妣大事已明如喪考妣或時站立懸崖或時經行露地客來無迎送饑寒失其時行則直直無回互坐則死死似癡愚無理事不舉有益話纔言此是山僧數年前害的執著病後轉綏陽李總府及楊趙留住萬佛山預防人情難避又恐攪繁嘈雜即相謂曰山僧係是郊外蘆蓬之客不熟人情遂吾之志方可住耶答曰隨師何志無一不從遂住三載不下山後又綦江程熊張王李五位總府接轉花壩建修功果未就仍遭饑亂四方磨折不得已下山轉桐梓蔡李求度同開佛現山權住守時雖道山水不分貴賤人情須看賢愚復轉遵義高坪金宋蔡周鄧楊饒眾善一會山僧如同舊識誠留住彼與趙文學閒遊舉首四觀遠望一山諸

星朝拱宜為梵剎不期一日上高坪場對眾談論間一人旁立聞語向友曰此師何方來行坐威儀言談有益於人可得近前求教麼友曰可雖不知來歷亦大慈悲無論上中下一切平等可當禮敬遂而恭身近禮曰弟子欲迎至舍設供未卜許否予曰素未相識即承盛設何敢克當齋次曰留住否予曰未有長行而不住者也未有長住而不行者也逢順則住遇逆則遷是我出家人棲世之道也遂引上山正合遠觀之意明有七星暗藏入水又如三星伴月五老捧壽可為梵宇即為地主黃曰天上是星拱北世間是水歸東名曰七星山滿月寺自此開山後百般稱意萬事遂心莫非得此山水奇秀之應以遂山僧履雲接日之志正所謂人傑地靈也一日當家夢雪設茶請落堂白云眾望興慈開甘露門普霑雨露之潤乞望垂施聖戒予曰自逃亂多年僅存皮骨剛得安身脫灑稍纔快活幾日那有閒腸與眾絡索此事不比尋常輕輕提起便放不下一出頭去無有了期四方俱有安禪說戒之所待眾別求吾實不作法不願為人師但得草衣木食安樂無事遂其願耳曲曲堅請難脫只得人天路上搬鉗弄錘孤峰絕頂呵佛罵祖如是五載嚴規整範鼓勇是非為他自忙將來有何交涉世情不定難下兩都省觀諸宿退轉峨山草衣木食無限香美在此虛心勞力身體疲困若不續祖傳燈白闍一場血盡無益深山常聞鳥語猿音資其正性行至仁懷安村境福兩處留結制傳戒上堂云這場絡索皆自七星山病根遺累不知何時是處在處禪他不脫者裏那裏被他牽連情不得已只得鼓扇是非無可藏避期竟欲行又承魚溪屯眾請住道成寺其寺名正合山僧二字遂爾忻許住後不料他方逐戶起兵人民逃散只得出來住此內江三聖寺十方仍舊雲集院主率眾進方丈禮跪白云學人隨侍和尚多年常觀和尚仁慈濟物利生德名深重十方播贊若不紹繼祖燈眾弟子何以為望老僧云昔為眾道過若續佛慧命是必有時豈妄奔途遠涉時節到來不假些力又有一論近日世情淺薄佛法凋殘法門攪入許多虛妄奸詐之徒紊亂宗風真偽難分寧隱山為妙攬個甚麼擔頭汝等欲散者散去山僧自有把柄大眾無言而退次後再三堅白愍我等及至當來遂告眾曰吾離福恩久矣縱然要去以何為供養雖老僧開堂說戒多年除衣鉢之餘分毫未蓄寒徹骨髓窮盡毛端不然從原日開堂處轉看眾戒子送個盤費方纔入得雙桂門仍從仁懷遵義桐梓綦江重慶不覺水陸兩阻退轉建修虎雄禪林安止大眾不覺兩載忽一日七星山當家迴超持書進方丈禮跪白云恭惟和尚萬福因住持事繁少侍左右恕徒千萬罪又一事白敏樹老和尚今在堂中每問和尚有書請回一會望發慈駕予時云不是冤家不就頭三生與他有何讎祇道雙桂有獅子者個老賊也同流執意欲往雙桂不期敏師每對吾徒月輝道及山僧人情不慣熟佛法理地清若在門牆下實算一個僧故此勉強而為法嗣只得就坐拈香示眾云者個道理出自無心得不得想處來陽回萬物和春到百花開惟有者個囊藏對眾打開看個精詳宣畢眾禮贊曰恭惟和尚無量寶珠不求自得熱惱眾生更添一枝蔭庇所以山僧受了許多曲折雖然擔荷佛

祖重任迫不得已論道歷代相續不得不然自忖福薄仗諸德扶幫乃生平醜見識對眾說破免得眾疑雖從凡夫地而入諸佛位一因一著中甚實非容易昔從度師指受一句無滋味之語朝參暮參左挨不是右挨不是直至斯時任橫拈任豎拈自向大家碕中放下千斤重擔子一身輕快歷歷明明如千日齊彰無纖毫滯礙又如月映波心蕩亦不散開言吐語出其自然一切公案洞然明白問答語偈不假思維方纔言個欲報佛恩方承法嗣山僧雖嗣敏老和尚紹續臨濟正傳三十二世祖位出自無心非心所求非妄而有出乎自然始初欲下兩都陸地不通欲往雙桂江道有阻所以事無一定會即有時想處不成起念便差此事不待思維擬議時至自然契合雖然如是山僧不過為諸仁者權做一個轉局漢倘個中若有腳跟點地者腦後見腮者七通八達者千了百當者出頭來同打逍遙鼓共唱太平歌良久云雪後始知松柏操事難方見丈夫心遂歸方丈。

行狀

四處投師九住靜廿年四十處陞堂出家二六崇禎帝生自丙辰萬曆皇母族姓汪為上將父誠祈嗣忠州楊飛龍入宅母之夢托質山僧沒覆藏。

離成都聖壽石牛行腳

老夫六九去行腳不識他方何下落順拉蒲瓢一路圓橫擔日月兩頭灼芒鞋兩片跡殊厚敝衲千條影陋薄口渴江中掬水飲肚饑樹上摘枝嚼辭親割愛為生死涉水登山求解脫久住情頑自覺非深交人熟明知錯有緣到處唱新歌無事隨方品舊樂鼓打口皮接十方禪談心法度三惡集如群鹿聚荒丘散若孤雲離野鶴獅子出林不借威象王入市豈相約慈風扇動乾坤彌法雨灑時天地擴走遍天涯帶露歸石牛千古受封爵呵呵一莖拄杖為生活。

方外自敘

出家六九學操方杖拗瓢囊遠故鄉巖直嶺彎路徑窄坡高河闊水紋長岐峰葛繡虎威猛老樹藤穿龍勢昂麋鹿如牛遍地走豺狼似犬滿岡狂身正行眼顧旁猿嘯鴉飛鳥打咤肉疏皮乍意無忙飛禽隊內有神鶴走獸群中出象王常把直心行正道同居霹靂何疑妨出外人太淒涼發言不敢高聲舉動足那容大步量不為朝山睹聖境三宣不肯登皇堂報君德別有長蒲團上面忘人我無字文章念一行任是天高地厚德剎那寂定盡酬襁方上苦不尋常無事安能進客店有錢纔許入茶房苦辣酸甜都受盡清香美味或時嘗獨嶺單村沒客店千山萬水自徬徨到夜來沒好場坐在臭蟲蚤蟲

鋪臥間瓦子石頭床者般苦甚難當大事現前不早辨何時登脫臭皮囊兩肋疼四肢尪思得一鍾鮮米粥芝麻菹豆胡椒湯拏起銀錢沒處有勝如六月覓冰霜者苦情告上蒼蒼天不管人間事還要自家有主張朝山不若朝心地心地平和自放光孝師長敬十方憐貧恤老行方便勝似焚燒無價香而今誤入出於外只得肥腸撥瘦腸既在外那思鄉方方必有忠良士處處安無禮義郎想是無緣闡法化尋常幾句利生方勸世人處平常五行八字安排就貧富壽夭豈可量富貴多生修善果貧窮累劫造孽強有德君坐高堂自獲諸星來拱照四方八面現禎祥滿朝文武菩薩應諸佛化身作帝王者夥客非等常齋僧造佛無窮盡作德修因不可量須識靈山有記荊真如佛性切休忘為官的自揣量為民父母行公直那怕芳名不播揚自古公門好積善陰功積下子孫長為商賈要當行拋妻別子為求利雙親堂上望回鄉若是漂花延歲月無忠無孝可憐傷為庶民早納糧先熟田禾供三寶鄰朋尊長大家嘗賊發火起來救護逢災遇難自扶幫為人子少輕狂浪蕩虛花終不實或耕或讀習何方內有一行把到手一生衣食不倉忙為僧的自參詳穿衣喫飯靠施主栽田種地少差糧方前僧道來投宿閉戶掩門裏面藏為僧失了慈悲念怎教檀那信力強雖貧衲朝清涼蓋為文殊七佛師佛法流通祖道場孔聖書成化列國老君丹熟度藩王吾行道報君王每日三餐水土德一年四季荷陰陽本本水源無可答五戒流傳表五常王法顯佛法藏體用雙彰化善惡三教同宗分弱強剛柔兼濟化生易明心見性抱元陽下手工夫無隔別玄關打破一春陽頌曰浮生如夢亦如花春過蕭條安再奢大事不明空一轉未知掉面在誰家。

登峰須絕頂度海決爬岸出世化人天歸家無別幹心猿常寂定意馬豈狂亂智劍斷三惡慧刀除八難恒存道力清自獲心光燦白玉任冰磨黃金憑火鍛凡珠世可易心寶人難換傷嗟世偶人堪歎白頭漢逐想貪名利不將八字筭若肯尋常念句佛積功累行人天贊參禪學道得明心續祖傳燈千古鑑呵呵莫枉世間走一遍生成八個字勉強遭塗炭。

十報恩總頂禮贊

佛祖恩光無盡量道行普利續聯芳天高地厚何能報日朗月明豈可忘八節衡璣旋水火四時造化運陰陽時豐道泰仗。

君德雨順風調仰上蒼養育劬勞如海岳提攜博愛似崑崙穿衣恒念拋梭急食飯常思耕牧忙真琢磨細揣量現前若不明生死累受恩情何日償揮祖令坐繩床傾心行道化諸方教得一人成正覺十洲海宇俱風光一切深恩都報盡甚燒身臂千生強報恩竟無別為道在老農不在渠縱有玄微真奧理深藏謹慎聽其時只待龍吟虎嘯日自然推出一班奇棒似雨喝如雷角虎珠龍前擁躍金獅銀象後跟隨滿堂都是伽陀客座上任拈一味題無雜類旃檀枝隨風吹送到京師供天子福無疆壽與天齊海岳長萬邦進貢

普霑化法政清嚴全紀綱僧道二門蒙護持佛前頂禮爐焚香但願 仁君
興佛業禪師語錄細精詳收歸大藏流傳世 仁君萬劫名同揚山僧法說
無窮盡劫劫常來坐道場。

成住壞空

濛濛宇宙未分時混沌杳冥了不知無極光中生太極有儀象裏破重儀
五行四相神通運八卦三才造化移從此陰陽分已定二層山水一層曦
無邊山海鬱森森景象儼然眾土岑四維上下分阡陌萬國遐荒合五音
天地溫涼分造化春秋寒熱判陰陽蠢動含靈同佛性有無情識共元心
一切眾生妄執迷五輪分散且依誰崑崙山倒須彌化天地冰消世界頽
人我是非何有論譽名聲色毫無遺勸君急速超凡網莫待火風劫壞時
五蘊皆空定不差浮雲聚散點無霞清虛寂寂何寥廓黑暗沉沉無把撾
早示眾生離火宅愚頑浪子急還家阿僧四大幾終始愁殺兒郎笑殺爺

地水火風

如葉輕飄四大洲有無虛實盡包收堅牢全仗金剛柱風起毘嵐一旦休
四海湖江大小川崑崙山下是泉源東方朔見經三次幾度潮來幾度乾
陽燧初出一星圓天上人間到處煙三昧光中生舍利一靈金石結還丹
來去無蹤但識方四時八節有生傷百花畏聚人愁散一息不還失主張

拈頌古

舉外道問佛不問有言不問無言世尊據坐外道云世尊大慈大悲開
我迷雲合我得入外道去後阿難白佛云外道見何道理讚歎而去世
尊云如世良馬見鞭影而行。

拈云。

本色道人原無做作迷雲飛去沒下插腳只得迷頭認影行一夥頑皮都
埋卻。

頌曰。

知音未動已先識頑骨打穿不教疼可憐末世尤難度激起波瀾三藏
文。

舉仰山夜夢入五百聖堂為第二座時有一尊者起白椎云當第二座
說法仰山遂起白椎云摩訶衍法離四相絕百非謹白其五百聖眾各
散。

拈云。

老老大大瞠眼夢話僧墮聖凡一坑埋下厚皮老臉不知羞離相絕非道也罷。

頌曰。

休將寢語誑群英想是識神搬弄卿羅漢夢中舉得座老僧拄杖白蓮生咄又有相也。

舉僧問如何是夾山境山云猿抱子歸青嶂裏鳥啣花落碧崖前法眼云我二十年作境話會。

拈云。

接物還禮天下一體二十年來窮盡到底可見闍黎認得真暢快有終則有始。

頌曰。

聲色何須重著眼是非豈入道人門但灰有念絕無念綠水青山總現成。

舉崔禪上堂云出來打出來打時有僧出來云響崔禪擲下拄杖下座。

拈云。

平地雷轟少雨多風只因不響愧殺禪翁一夥慳懃摸不著切須賊過後張弓頌云。

縱此爬沙而抵土只恐驚起下山虎未曾學得騰身法撾破袈裟沒下補。

舉臨濟示眾云但有問訊不虧欠伊總是伊來處與麼來者恰似失卻不與麼來無繩自縛一切時中莫亂斟酌會與不會都來是錯分明與道一任天下人貶剝。

拈云。

扶起放倒恰合儘好又怕貶剝枉自長老分明好個大光錢落在水中沒處覓。

頌曰。

在地為蜨天作霓青光白日使人迷參商不復重相會做賊門牆整頓齊。

舉鼓山示眾云鼓山門下不許咳嗽時有僧咳嗽一聲山云作麼僧云傷寒山云傷寒即得。

拈云。

想弄機巧惹動狂狡嘍的一聲存牙伏爪得意隨情取自然鋒鋌不利枉顛倒。

頌曰。

降龍容易捉蛇難[罩-卓+丁]鳥未能豈[罩-卓+令]鸞若不扳橈順水轉狂風陣陣起波瀾。

舉興化道此炷香擬欲承嗣三聖三聖與我太孤擬欲承嗣大覺大覺與我太賒不如承嗣臨濟先師。

拈云。

一條赤舌左惑右惑天道南行條欵轉北從來定法不是法事到臨危方解甲。

頌曰。

不入牛胎入馬胎是誰機巧是誰乖衝前未覓躋身地踏破虛空沒處挨。

舉百丈一日陞堂大眾集定以拄杖一時趁下法堂卻召大眾回首乃云月似彎弓少雨多風。

拈云。

虎豹搶攫搏集如枋祖師令舉星火奉行一箭當陽無可敵幾乎誑殺眾生靈。

頌曰。

哭一聲兮笑一聲縱橫殺活不分清哭因獸子狂顛走笑為老兄親造征。

舉巖頭為渡子時凡見人來舉棹示之忽有一婆子抱一孩子來問云呈撓舉棹即不問且道孩子甚處得來頭便打婆云生七子不遇知音只者一個也不消得便拋下水中。

拈云。

舞棹饒舌若合符節龍虎爭戰殃及魚鱉霎時教速還兒來愧殺禪翁養不徹。

頌曰。

不遇知音七尚存而今一個擲江村茫茫煙水東流去那信婆兒帶浪吞。

舉石霜在瀉山作米頭一日篩米次山云施主物不可拋撒霜云不拋撒山於地拈一粒云汝道不撒者個是甚麼霜無語山云莫欺者一粒千粒從者粒生霜云未審者一粒從甚麼處生山呵呵大笑歸方丈至晚上堂云米裏有蟲。

拈云。

笑面虎兩頭蛇當時不蓄竹過後另栽花只想生擒偷米賊豈知伸手沒爪牙。

頌曰。

尋常拈起實無虛勢急理窮愧自迂賊過張弓秋後雨追風老駿不如初。

舉太宗一日擎起鉢問丞相王隨曰既是大庾嶺頭提不起為甚麼卻在寡人手裏隨無對。

拈云。

陛下說話山頭個大饒君提起難得放下不惟天子持心戒讚誦一言千金價。

頌曰。

君臣有道八方清父子無情一旦空首座當時未識醜碓頭過後方知通如今提在真人手那許傍觀擅漏風忽爾三呼齊萬歲金光玉鑑滿朝中。

舉月氏國王聞罽賓國祇夜多尊者有大名譽群臣往彼國禮敬聞法王至彼修敬已畢乃請開演尊者曰大王來時好道今去亦如來時王乃欽伏。

拈云。

千里聞風覲面不薦話說知音逢饑送膳涉水登山不厭煩而今幾個離宮殿。

頌曰。

一處雷鳴天下響十方何地不春風縱然泡大不成水啟動金鰲出海東。

舉僧問白兆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師云自小不歷他門戶與麼則竺乾子白兆孫師云承言喪滯句迷。

拈云。

斷臂安心腰石舂米五葉花開循環如此只須把做一肩承自有擔當人後底。

頌曰。

芝蘭近日香千里惟恨鼻胡起禍端到而今不怨先只得渾身頂著天。

臨濟下正傳三十二世空谷道澄禪師法派

道德圓明祖芳月華瑞映千江法雨彌潤三界慈雲普覆十方甘露常霖
剎利醍醐永灌頂王揮旨流通正印信手拈出心光

開示

師云居士求開示遠立不勞跪老僧拄杖長打起難迴避誠意諦聽字字詳細實乃三界無安猶如火宅劫盡皆空毫無可得知慚識愧覺悟之流當早求個脫頭之方趨個安身之所何故跳在深坑爐炭之中甘受熬煎處於貪愛羅網之內自討纏縛朱衣鎧士常驚青山老衲何畏知足者衣食頗充一生快活不知足的羅綺盈箱滿口稱貧不悟生從何來死從何去只知貪名索利不究本元論是說非光陰錯過若究明者著無限風光倘瞞預佛性虛度一生故經云惟此一事實餘二則非真試問大眾那一事實其或未然聽老僧一頌不是心兮不是佛不隨聲色不同物二六時中未暫離放光常在六門出。

惇持求開示師云以何為起句只好拈起本地風光閒暇思惟慢慢詳憶佛性聖凡無兩樣眾生心起有礙滯佛法無頓漸迷悟有次第念佛與參禪惟求得妙智所以念佛者念自性彌陀參禪者要明心見性兩路行來到頭一智任是千門萬戶皆是一個敲門瓦子敲一下叫一聲主人翁醒也未叫來叫去敲去敲來勃然敲脫牢關鎖打開寶藏庫呵呵窮的任他窮富的在我富喫飯各自飽至親不能顧。

圓現郭居士求開示師云但得皈敬三寶縱不到明心見性一著尚且成個熟因雖在濁惡中何妨修淨業豈不見污泥中出蓮花糞土裏長靈芝喜芝花厭塵糞者貴客之常也惜塵糞棄芝華者農人之常也掃邪歸正者大丈夫之常也有福不享盡者善也有勢不使盡者吉也何有持齋不持齋之說乎持口齋而不持心齋者與不齋有何異哉持心齋而不持口齋者豈不是蓮花出自污泥自然一段風光皎潔分明何常粘泥帶水耶噫高強惡盡底那得善名香縱然不到三摩地五戒堅持生上方。

元旦夜眾請茶次云渺渺茫茫鬧大節聲洪晝夜無休歇此個節人間面上喜老夫心頭熱他道增一歲我言減一節舉杖示云且道者個有增減麼謾道不向汝說也要為眾分疏得好以杖一卓云大眾看則看著即是聽則聽著即是惟有者個道理聖不增兮凡不減不遷不變無來去日用施為處處現成有何不可當須著眼本無年月四時八節陰陽氣候之所流遷不屬紫綠青黃黑白之色相非色相之所流染亦不屬空有空無非空有無有想無想非有無想之所流礙又不被寒熱饑飽造次顛沛之所流轉一切物情理事無礙識麼是處在處了然灼灼隨方入方獨露堂堂在天能現斗府星辰在地能產草木叢林在人能長毛髮爪齒在萬物能為萬物主在朝廷能令君君臣臣在士民能使父父子子識麼而今是一年之首期又不在天上天

下世出世間正在山僧手裏卓一卓云還識麼能為萬物主不逐四時凋一句作麼生道自代云瑞月隨波穩虛空不厭塵竹密不妨水山高豈礙雲舉船子問夾山垂絲千尺意在深潭離鉤三寸子何不道山擬開口子便打山落水山纔起子云道道山擬開口子又打山豁然大悟乃點頭三下且看古聖人婆心為人處畢竟要他吞則吞不下吐則吐不出正所謂殺人殺湊喉救人救到頭且問大眾船子昔日是殺他救他若道救他不因命長落水無涯若道是殺他何故點頭三下想是三生冤家從今償一世英雄到此休。問世間有此種種差別教門師云老僧本不差居士何言別士云既無差別乞垂開示師云佛法流傳三大千河沙世界盡同然周時一鼎分三足率性何常向外傳所以儒則誠以五車博變窮理盡性玄則執以五氣朝元修真養性釋則妙以五蘊皆空明心見性程途雖三路到家沒幾般總不離者一點妙覺圓明真如佛性只要時人直下承當心即是佛佛即是心心外無法法外無心只因世人貪七情迷失本來染五欲昧卻自性隨境入流忘覺照遇風顛倒迷當來又或回頭不逢達人智士向上未遇明眼高人信邪倒見素入魔隊隨波逐流誘引盲師殊不知西天隱九十六種外道已身藏八萬四千魔兵若世人心起邪見魔兵增長光明正大外道潛藏所以云形端直響正聲和誠哉言也故此山僧痛為世間進道庸俗剖露一片真實肝膽若論參禪百中豈有二只教念佛萬裏不失其一念到不念自念不舉自渾忘無執頭頭即佛徹底光明物物皆空佛之一豈安在哉以杖畫一圓相云若論者個說甚三乘果十聖三賢總不離者個圈圓子[跳-兆+孛]跳向者裏跳得出即丈夫跳不出即凡夫山僧者裏無論跳不跳出不出只須喫過三頓痛棒始得。

菱南請茶次云者個法門無論初進後進惟取見也那辨在家出家只須了明見地方為諸祖法嗣了明即是菩薩應身惟吾儕門下獨貴重實為生死助揚法化不在窮今博古廣學多聞單取一念真實一言恰合一語投機言中含剛柔之妙語裏藏殺活之機又要句中有羽放去飛雲變霧語裏無疵收回點石成金放開則大地山河歸元則微塵纖芥所以山僧手握一莖白棒遊化十方但有根信者機言相叩者直下承當者攔頭便劈只得血滴滴地滿面春風潔白白地通身快暢是則雖是休犯山僧當頭始得復示偈云南溟舟盛乾坤寬權以虹霓作釣竿渡盡眾生離苦海磐陀依舊守心觀。瑞蓮李居士請齋次云光明在處有總歸六根門逐物安名相細推為爾評古人飛錫騰雲摘蘆渡江放光明動大地人人皆有逐向爾等六根門頭運用神通放光動地總為世人忽而不覺疑而不決見而不信信而不行行而無恒恒而不徹不惺不悟故有生死輪迴待山僧一一為爾等指點分明以便趨進在眼能分色相在耳能辨音聲在鼻能嗅眾香在舌能嘗諸味在身能觸羶細在手能識重輕在足能知遠邇在意能分邪正故曰一念無生常寂定光明遍照大三千只須一切處歸一處又向一處而無處從無處處忽起一淨心即是無生法忍也。

問今朝眾居士請益以何為開示師豎一掌云會麼進云不會師云山僧開示已竟進云再乞慈悲師乃云惟我禪宗作用未出方丈未登法座未舉棒喝一一開示已竟何須鼓掌豎拂語默言宣豈不重入葛藤更成一番絡索古人縱有千說萬說橫拈豎拈無非為鈍根小智山僧者裏則不然揚眉則風光滿地豎指則妙用無窮拄杖一舉挽回百萬須彌峰現於目前楊枝三灑收轉無量香水海湧於性地總教返觀自看者個活潑潑道理人人本具個個不無山僧不惜者兩片無情口為諸善人說破則不當面錯過只須向行住坐臥處穿衣喫飯處敲檀品竹處樗蒲圍碁處鼓勇勢奮處爭名奪利處仔細點檢返觀自照看是甚麼道理歸得轉來看得端的悟徹明白方知從前一切施為作用皆是自己天真明妙本命元辰菩薩以為遊戲三昧羅漢喚作妙用神通山僧者裏不著於神通不定於三昧單指教外甚麼消息直下一念回光剎那萬緣俱備毫釐機竅參差辜負虛生浮世善字念念歸真自然心空及第十方三界之尊都是凡夫修證若問初進工夫一一皆有次序皈依請益為先真名何須重諭靈山海會諸公哀佛乞請玄記今日貴官禮請山僧必若如是聽吾有偈曰當陽一著無難易大率腳跟親點地鼻孔撩天振四方何愁不長翮霄翅珍重珍重無勞久立。

康熙十年辛亥河南西華縣暹明徒圓孝圓行率領眾居士恭迎齋次齊跪乞開示師云為求佛法路遙來佛在靈山法在藏仔細思量徹底空既無法說表行狀老僧形容漸漸衰邁前後拖欠許多冤債自從海龍與莖拄杖直至而今沒個安載拽向十方接物利生北直山東河南一帶買的無緣難得投機賣的豈肯貴買賤賣幸遇汝等眾家居士向前能有幾個承載咄各守本分觀心勿外稍擬妄動陰魔作怪諦聽老僧行腳可喻修行無外八八造方自愧心上許多耽慮日愁茶飯難就晚憂安單不序度河先問船錢過關全憑嘴利剛纔日面轉西速覓菴堂歇息好的開門讓進接談家常來歷辦供擺茶看單闊床高枕次第茅菴荒涼屈尊留神寬坐幾日壞的遠望人來忙把山門掩閉返問敲門是誰開口惡言罵詈那來遊食癩花浪蕩漂流賤士三界無你安身敢來倚牆靠壁前面路道寬長東西南北在去此處不許暫停稍遲大有不際只得忍氣吞酸那敢開口分訴肩包拽杖即轉連忙抽身遠避思量者般惡人窮劫無能脫罪永墮邊地下賤不聞三寶名字低頭又向前行不知何處稱意修行似我行腳兩下看來無二一步不行不到家人間受盡骯髒氣為善若不勤精進生死輪迴何日息三界堅牢細網羅欲求跳出非容易或生天上及人間六道四生諸惡趣掉轉幾番面目來逢此今朝多興趣念佛定生極樂國參禪直入無憂地勤精進莫放逸日久歲深得妙智須將此語刻心碑此是老僧真實句珍重珍重。

湖廣南漳張明所領眾求開示茶次云禮請山僧開示修行原有漸次先受三皈五戒後求開發智慧即此至誠懇禱只得暫說幾句大眾諦聽句句詳細舉拂示眾云會麼惟有者個道理上至於諸佛菩薩聖人同體下至於六道四生含情共靈所以云在聖不增觸凡不減既是不增不減何故而有諸

佛眾生者若論諸佛聖人早知覺悟知慚知愧知足知非了明本地風光而證無上菩提妙果成等正覺眾生執迷貪愛為本無慚無愧無羞無恥所以長劫生死輪迴沉淪不息幸我大覺釋迦文觀諸眾生根性不等種種方便說法而有三乘小果四聖六凡後有菩提達磨從西至東直指明心見性有直下承當者立地成佛所以廣額屠兒放下屠刀自云我是千佛一數會中有直下承當得者麼信得及者麼間或有信的未必實信有行的未必實行縱行而無恒難賴其久所以不能了脫生死命根待老僧為眾善說個證心句子向座前領荷去每於六時琢磨看是甚麼道理偈曰識得自心本是佛動作施為毫不屈日逐尋常反復觀一段光明六處出珍重珍重。

雲南大理府李相成求開示師云實欲求脫生死定要參禪學道三界深坑火宅打起精神一跳如是希有之法二乘不聞返笑又如優曇花開三千年過一爆如此難信之法五千退席惱懊非是老僧不說惟恐不信吾教既肯傾心受持聽吾指點真竅先要放下萬緣坐定返觀自照冰清玉潔無瑕提起話頭問道一歸何處起疑昏沉切莫睡覺七七煉磨業消自獲形神俱妙通身現出手眼拈起頭頭是道舉眸遍地黃金西方彈指便到呵呵彌陀原不定西方隨處稱揚隨處彰自性眾生若度盡眉間常放白毫光。

警策

示淨凡

參禪學道別無奇總在琢磨一切時萬法潛藏更起念纖塵不立另生疑剎那境界休饒過撚指光陰莫放移剝盡芭蕉再下手吸乾江水重翻湄如同苦海得舟渡譬彼迷林有路達定刻經行及第速限時打坐到家危沙盆踏破乾坤闊漆桶掀開世界彌芥納須彌誰自覺毛吞滄海尚難欺法門不是尋常得專此尋常二字窺特為諸方學道者指條直路莫偏私風光滿目眼前花佛法清名萬古師但聽越城老釋迦須聞出俗古毘尼共般消息添香骨同箇機關退臭皮既了休欺無別幹只宜腦後重添錐傳燈續祖遺留藏曲調橫吹四埜詩。

示冷觀居士

參禪大須仔細不是尋常語句領下一則公案與他廝挨做去食飯不知鹹淡穿衣誰辨麤細只知日用工夫不覺年運何歲忘人忘我一場出頭終成大器毫釐人情不了生死輪迴惡趣翻得幾個觔斗不似現前如意要了今生就了何須只等來世倘或錯換面皮那時豈不淘氣任是百計千方此說不過去若問參禪工夫並無奇言妙句只要辨個肯心一句話頭密密舉步先問起原下足要知端的喜怒未發之前看是甚麼消息時時猛著精彩

胸頭疑來疑去忽爾爆響一聲自然驚天動地歷代諸佛菩薩同一鼻孔出氣頃曰了後方知一字無未曾了得莫模糊鋒輪尖上翻觔斗纔算男兒是丈夫。

示印天

參禪立志硬如鐵一句了然方可歇咬定牙關捏定拳自然念慮都親切莫圖日夜身偷安甚如險道隄防賊經行基址要舒展坐臥繩床宜矮窄上單切忌縱昏睡切莫逢人打雜說煞鬼無常不容情豈肯緩饒待立刻可憐若不明生死一息不還何面色出家兒當警策一句話頭胸裏默猶如冤家來扭捉生死頓時要決絕又如劫賊四方來怯弱終須遭逼迫奮然舉起金剛劍群魔聞之皆膽裂反復追尋不見蹤忽然大地無壅塞張眉露目總西方明暗色空俱樂國到者裏具威德何愁不作人天客切莫倉倉出世來因緣自古有時節溪邊猶若伴龍威林下如同倚虎穴纖毫擬犯事差訛從頭一旦盡傾泄倘了得罪性皆空身自安意識身心空自滅信手拈出鏡裏花儼然直取水中月咄到頭一句向誰說。

示萬機

參禪本是成佛莫將己靈埋沒本來原不欠少只因多被情逐放去收不攏來歸來不知回互當面錯過許多轉眼隔山無數要識常住真心不離日用行住行坐施為不識心妄將動靜起紛爭知饑知飽通身病變是變非滿腹塵除卻我人心即佛放開憎愛佛如心謾道山僧多少法逆順顛拈教後昆無論逆順百法門諸佛眾生本現成舉拂敲床利上機揚眉瞬目接當人三宗典籍指路徑一切語言斷詫程的實脫開業障海忘形罷念一番真參悟更無別件事話頭提起疑情清疑情清切忌坐沉死水坑譬若掄刀去上陣稍生懈怠喪身命亦如坐向烈焰中要求平安勇一奔日夜殷勤莫放鬆自然法法皆相應只向離心意識參相應猶成一種病放去收來取自由認影逐形非端正一朝徹底翻轉來諸佛眾生無二性一莖草現遮那身撚指能超三祇定有來問道祖師意滿口清泉觀面湫吩咐伶兒眼莫花屠門酒肆眾生病咄休錯過莫妄聽洞房彌勒誰肯信。

示萬休

參禪無別思一句話頭疑行生恒如是昏來密密提拶退五蘊境消散八魔衢疑情須親切又恐現瞥岐現好生歡喜現惡生悲啼一入狂魔境千生無出時十禪九有病百能幾知歸總因執著起心高頭不低好心出家子真實學道兒先依遵佛戒切勿自相欺祖令傳直指授受須明師事事飽滿足件

件不欠虧馨香名遠播風聲萬古規不足休出頭行滿韋馱推飽蓄深德重
天人自皈依那時挺身去法門增光威橫豎逆順拈隨心處處輝。

示雲菴居士

參禪被禪隔學道因道瞞覓心重增病見性更添塵法原非口說聞聲非耳
聽臭香不從鼻觸滑豈由身假名天真性不屬六根門用心尋即遠舉意隔
千程不分是和是非不思新舊文消盡諸惡孽了然本現成頭頭來相應事事
合覺靈寂靜常自在何處問觀音日月同兩目虛空即法身隨物而方圓高
低等同倫隨叫隨聲響聲色處處清前賢與後哲同個鼻孔門各家生機巧
無名強安名無帽戴個帽畫蛇添足行山僧則不然平日愛忠誠無事[采/
卅]足睡醒起嘆俗情一句老實話不生別支文參禪即是禪明心即是心
萬法從心起無心無法生無心法無法隱顯互古今說性說心客妄誕起紛
爭海底撈明月峰頭放風箏不問年多少只要悟理真起頭一步正自獲到
家清打破玄明鑑放開利物心韋馱推送出還要辭隱身十分難得卻那時
任支分人天路上隨拈弄方便門開接眾生他時接個那吒手何愁法道不
廣興。

示超凡李居士

參禪之門如君令敕把著便行豈待朝夕事體不明橫順拘執時刻敲問不
容不急佛法王法皆同其一既有好時莫圖湊日光陰似箭生死迫逼輪迴
苦海熱惱不息地獄三途蒸煮炮炙無量苦楚了無休日聞法信受多生願
力百千法門參禪第一歷代諸祖引條路直以心印心紹續不息後學錯會
公案方立任守一則如吞栗棘如履薄冰兩陣相敵爆破漆桶稽首合十自
嘆奇哉一生學畢末後一著遺留蹤跡若不如是修行無益相逢知^己自投
機栽得梧桐有鳳棲既是知恩報本者和泥合水大家依。

示能凡湯居士

參禪如猛將單刀戰當先無論銀牆壁徹底盡掀翻一陣衝百里頃刻彼三
關本來無難易設心總要堅凡聖無二性僧俗豈兩天行住坐臥處穿衣喫
飯觀迎賓與待客施為一切參逆惡休起惱美好莫生歡覺起差別境知非
速改遷三世十方尊成佛皆一然雖道八萬門總設方便權惟此者個事豈
非紙墨填山僧豈多嘴一言告諸賢成佛路途近苦海到岸懸若是根基利
揚眉理事圓為有孽報因不比直指傳生來黑漆漆死去霧漫漫勾引閻王
殿有口不能便業鏡臺前看善惡現其前一生造的事纖毫不能瞞善則生
天堂福盡墜人間覺得修行路受盡多少纏惡則入地獄報滿生旁邊不聞

三寶名苦楚不計年說起修行路癡心太愚頑再告諸仁者莫把當等閒光陰混過易失落人身難日逐不三省自暴棄可憐不用些毫力斷妄除慳貪一切處平等工夫自現前平心即佛心惡口是魔言少貪如布施方便是福田仔細看起來百中無二三多得不如少天龍一指禪應供接十方一生用不完德名留大地道脈入燈傳我儂如是說更有難上難莫道易且易只恐荊棘攔道眼須壁直拄杖有縱橫彈指超及第剎那越大千何分佛與祖論甚神和仙法輪陞轉處總歸一毫端從頭至尾說將來總教時人著意參。

示德清尼

參禪直了生死念佛定證菩提那在口頭灝灝專誠一點無移行觀行處誰舉坐看坐中何渠穿衣喫飯動靜迎賓待客支持真玉不沾塵土蓮花出自污泥他日功完果熟別出一番希奇隱則無方取捨顯則不離六時呼即隨身便轉遣則任意驅馳六根門頭放光一念未曾遠離西方只在目前步步九品蓮池。

示直超

參禪學道幾般樣總要舉心猛烈壯猶如單刀入戰場恰似疋馬陣前向魔兵萬億自歸降颯颯百千潛影相一念不生全體彰端然得見太平象太平象不在學但黏一字受他縛拈起看來無上下放將出去有開合殺活縱奪見分明取捨顯藏看下落莫把世情作泛常塵勞一入萬難脫要擺脫有何難依向人情日用間穿衣喫飯迎賓客顛沛歌歡處處端應世端古鏡圓同世界寬大若虛空無影象拈來任我顛復顛顛倒之中有一句兒郎聽囑牢牢記森羅萬象自家珍百草頭邊祖師意但願己分如泰山切須休論他非是先將權便利人天他日兒孫滿大地倘有問渠師是誰正脈聯芳有次序。

示必超

參禪定要金剛漢提起話頭識本面一坐如如似泰山莫將奇言作機筭但存一點妄心起忙把話頭提起念提來提去真疑現自是融和成一片魔來莫起嗔佛現休稱讚一念隨他轉恐防作大變行居坐臥默如愚喫飯穿衣藏利劍凡世有為法一刀截兩斷孤高直直去放船斬開纜獨木橋中過豈容左右看如在戰場中一人敵百萬精進加勇猛太平剎那見如此做工夫凡體一時換縱然不大悟也能救得半工夫做不上對佛發清願敬禮世尊前消除多劫難來生出頭高現在十方讚一省得千悟龍天作證鑑愚癡不

上進難消三餐飯檀那之脂膏農夫之血汗每月費多少閻羅日打算奉勸兄弟家齊齊一番了辦去免得來生又拖欠。

示楊居士三界無安

三界因功感六趣蓋癡頑天堂樂消盡地獄苦增寒九幽黑似漆十體苦如剗三惡有千苦四生無一安神仙愁過劫賢聖亦眉攢上帝膽肝徹下曹皮骨酸善哉劫到日海竭山枯礮大劫水風火小災瘟盜乾冤鬼遍大地屈魂滿道巒貴賤及凡聖有翼無門鑽無非禪定力彈指越三千念佛功勳大九品論功繁放蕩眾生巧愚頑獸子奸業緣流戀易苦海出頭難狂妄顛迷醉貪嗔癡樂歡不求大勢佛漸見墜泥丸乾爆一身苦可憐深自瞞白因白果受雜黑各殊弁了了真如性明明智慧丹尋常休錯過日逐細思看諸祖焉成道菩薩何頂冠分身無量界法轉一毫端超凡不費些毫力恰似尋常指爪彈。

示秦居士

一場熱鬧一場淡多少完人看不慣稍恬靜意馬亂無根樹下緊牢拴鐵壁銀牆何處攏想當初釋老漢不貪富貴離宮殿入雪山麻麥飯一坐長年任自由何嘗出點白頭汗到夜來抬眸看滿天星光燦爛不覺渾身似水傾即時卸卻千斤擔先說法鹿野苑憍陳如證羅漢千二百中第一尊向來證祖無其筭漢明帝最好善迎佛法傳震旦十里寺五里庵天下叢林永立案大乘經心地觀屢朝天子有銜贊或禮拜或持念希求一切隨人願悟直指禪定觀剔起眉毛毫無散先將人我是非休一切塵緣都掃斷看而今有一半不愁生死低頭鑽黑荳換人眼睛珠摳人肝腸如野干綾千箱銀萬貫大限盡時如土炭妻他用兒作賤家財什物都拋散一世英雄沒傷[仁- 二+(天/ 韭)]千巧萬筭精扯淡勸世人少謀騙聰明富貴是前修求官惟恐不遇選但回頭即是岸免教改頭錯換面手不離經一卷心不忘彌陀念何愁佛祖不相見塵勞登脫速歸山免待消磨世界變。

示慧超比丘尼

切莫言來遲未來發足時尋常休瞞過懈怠不相離謹剔眉毛看步步有希奇分明不恰合返道自稱愚打哄溷天日瞞預過生時既愁生死苦勇志不為遲先聖刻期辦今人久則疲端心正一定定看二三時時久慧心開人齊福壽齊。

法語

示工部擎安佛海居士

學道應當先利人隱山不普獨聲聞一莖拄杖遍天下撥草尋牛幾度春所以山僧住芙蓉年來行腳者蓋緣佛祖之重任法道之風化也所言佛祖重任者不比尋常小可一看來原淺深二窺德行厚薄三觀品格英俊四視丰姿雅暢五含機量寬洪六藏智識純粹七有形儀端正八養氣局溫平九得見地乾淨十為道風傾承有此高名十德不啻老僧悅之十方諸佛曾贊善哉正法易得正見少有何也或有假粧世態執文解義守空頑定術數推窮吞精納氣採補服餌煉神通報限時用工出神奪舍多種差別邪見狂妄之徒顯異惑眾俗子無知不分真偽助他威勢反來紊亂宗風破謗正法眼藏所以法門敗缺皆此輩也似我居士根深枝大八風不能搖動見識清高五濁不能攪雜真當來法器具分高明廣見焉入邪妄群隊古云聖居聖路凡入凡流如居士先言做工夫豎起脊梁正坐恬靜間忽然炮響一聲不覺通身汗流自覺放下千斤重擔欲報佛祖之恩而來承續宗門法嗣真乃吾宗門之幸甚也日前為汝母昇天請至柩前說法見渠形儀超格不群故此徒肯師師肯徒水乳相投機言契合足見當面不錯過也所喜有二一忠勤於國不著聖解二孝親師不拘凡情真人中龍象不忘靈山授記覺悟歸真徵驗本分徹底澄清所以老僧不吝囊藏和盤托出且道托出個甚麼咄靈山一笑安心事拄杖依伊為表識將來護法讓阿誰亙古聯芳作鑒證。

示印真牛居士

師云處處現成誰印真不勞平地起堆岑而今四海清恬靜放下征袍聽梵音以拄杖一卓云聞麼舉拂云見麼若以眼見非真見若將耳聞非實聞又作麼生必須離見返觀離聽返聞一念清淨聲色俱空是名真見真聞也譬如居士昔在戎馬場二家交鋒大戰之時鼓角喧天旌旗蔽日何處見聞只向一輪鋒尖上著力是名真見忽然他兵敗退追進三鬣是名真聞勒馬回頭豈不一場空歡喜也若得做工夫提起本參話頭疑情發動之時視之不覺見即真見聽之不覺聞即真聞正向不思議處看定忽然魔兵撈退更加精進自然有個輕安時節一日三三日九久久打成一片行也如是坐也如是穿衣喫飯亦復如是若到者裏一見即真一聞即了不勞設心安頓自是處處現成從空畫一圓相問居士云向者裏會麼士云弟子不會師云難怪

居士不會為此者個元字腳三世諸佛橫說豎說說他不著歷代祖師逆行順行行他不到山僧到者裏只得拈出喝一喝參。

示大為楊居士

師云弓刀未放兩頭騎足見能人有大為朔望殷勤禮聖壽誠心刻刻未曾移惟吾儕法門正要如是念念不捨刻刻難忘纔是真心學道之士譬如長江大小水豈肯停流直到海門天際無他棲泊方纔任縱優游向道之心亦復如是直至到豁然通達理事無礙吹彈歌舞皆是神通語默喧笑都成三昧即如居士昔從征戰勇力向前得勝歸回放意快心未定勝負堅築籬牆日夜運籌設策以圖樹立功名始不用一番真實肝膽那得功成名遂哉超生脫死之道非是容易因循何時是了散散淡淡難得的當必要此等綿遠信心今日如是明日如是千日萬日亦復如是趙州示眾云四十年不雜用心除粥飯二時是雜用心處又有云迎賓待客豈有差別喫飯穿衣誰是誰非如何道粥飯二時是雜用心處古聖未嘗道不是惟恐後學錯用心且道如何是用心不錯處咦有心學道道猶遠無事於心心即真但得六時不被轉南花北卉盡同春。

示波南居士

師云輓入火宅三界惹下通身不快三毒火恒烹蒸六類冤家催債若還不了目前屢劫連環兜怪一聞信受奉行漸次業緣消邁夫人生於世輪迴何息脫殼換骨沒個了期若不設念回光返照認取自心逐影隨情終成苦海大限臨頭悔之莫及舉拂云惟有者個不今不古不斷不常放之彌布三千歸來一毫頭上識得的顛橫逆順而為妙旨不會的咳吐掉臂以當戲詞故此山僧化行於三界火宅逆順顛倒橫提豎拈總成一個糊塗題今朝不知誰是具眼人物咦拆籬的況且易扶槎的猶甚雖不得一冰骨滿眼都受瞞吾示汝偈不辜誠意偈曰明明日月誰催忙恍恍程途無暫息萬法盡從一念中滿盤托出無人識。

示離非盧居士

浮世不空業緣無嗣仔細看來有無相桎知見妄動世界全備人我是非貪嗔癡恚才長英雄名增勢位日歌高堂夜遊淫肆以苦為樂認狂作慧椒薑醋蒜雷同一廁不辨好惡難明真偽顛沛逆亂遞相殘弑迷卻眼前豈顧後墜冤家就頭難可迴避那個時間滿目慚愧只想瞞人誰知害自此等眾生睜眼鬼魅不求出身不希佛庇長劫輪轉終日迷醉百歲光陰如一局戲名若空花財同垢膩曾聞龐公何等清翠船載金銀湘江傾棄有男不婚有女

不贅同入深山俱證祖位聲名天下誰敢輕叱真是人間大丈夫法門千古為禪瑞頌曰昔日今朝理事同何山化雪不流東尋常只要自心肯一法如如萬法通。

示智海孟居士

般若多羅吩咐徒須歸大夏立規模金陵一遇梁天子渡江只用一枝蘆通國人追覓不見九年熊耳絕煙廚神光求得安心法隻履歸西一字無所以單傳直指見性明心不立文字名為教外別傳試問大眾且道傳個甚麼師豎拳云會麼若向者裏會得話頭不用參一了百事端從此不會老僧為眾下個註腳歷代祖師無別傳一言之下識根原機關撥轉返觀照者段光明晝夜燔只教以心印心山僧連心的一字用他不著只教離心意識參絕凡聖路學向那不是心不是佛不是物處起疑二六時中畢竟是個甚麼道理疑去疑來忽然胸中如雲開見日呵呵原來是者個道理如人飲水冷煖自知方信歷代祖師無說無傳只教自參自悟始得。

示眾善信

師云現前事不肯為閻君豈肯容片時獨有吾儕門下客祖家風味料知規分明一段真消息總為世人名利羈直到臨終沒下落忙抱佛腳何足奇妻不替子不隨一身業障自家受等得醒時已覺遲若還閻王留得命剃頭削髮把心回男為僧女為尼各行一路訪明師早知死有者番苦甚似小牛剝了皮禪可參戒可持萬緣放下悟生死一心定要證菩提。

普說

堂眾爭講做工夫撾鼓和尚落堂云老僧正好安心恬靜活活當著你者一夥炒心子狗才只得到此有何理論言得是不免要喫老僧痛棒言得不是亦要喫棒速速親切道來堂主云學人不敢呈白只恐言得是挨打言不是亦挨打師云更打三十拄杖進云因甚如是師云打你不分優劣問話頭是一是二師云話頭千千悟則無二進云令學人參那個話頭師舉杖云信手拈來即是禪但能擬議落二三問禪不參佛不念戒不持時如何師云了脫漢進云念佛參禪持戒又如何師云自縛漢問前輩祖師太孤峻天子三召不赴命請問和尚此是如何師云不貪富貴不求名要與兒孫作準繩問如何報四恩師云息慮忘緣進云出家報麼師云穩坐蒲團進云念佛報麼師云一字不安進云持戒報麼師云鉢擎梵天進云參禪報麼師云遍地金磚問者著人人具備個個完全因甚麼凡夫日用不知不知是個甚麼師云描不成畫不就進云又作麼生師云千兩黃金不肯賣十字街頭送知音乃云

不遇知音不與言說來不值半文錢家家有到長安路何必老僧為道穿人
既生於天地之中無非借假修真權以陰陽動靜之機四相五行之用開合
變化無窮無盡若論至微虛無玄妙一著古云離四相絕百非之句鬼神莫
可測天地不能據皎皎若水月鏡花明明似虛靈曜日不托陰陽豈屬四相
正打旁敲者無非是因境生風借物托興總為發明期事也似乎天象圓而
輕清者為上地象方而重濁者為下故此物有一定之理人無轉變之機所
以方而不圓者不能融通變化濁而不清者不得出格昇騰既不能融化各
執一偏物情有礙人我有分因此而有諸佛眾生者也山僧今日撥轉機關
總教海晏河清物情一化天地萬物通成個活潑潑道理方處映方圓處映
圓高卑內外總皆一然何得而有物情人我諸佛眾生所以祖師云青山綠
水西來意翠竹黃花古佛心未嘗不是物情人我理事融和之說豈可分別
者哉又云竹密不妨流水過山高豈礙白雲飛噫玉柱金橋鎖峽口白猱青
鷁過重關宛然大快一樁事總為時人起易難近聞堂眾紛紛而謂參禪必
須要參活句參死句故不得力山前所說理事乖諍天地懸隔若論初進不
得不辨死活之分殊不知死句是活句之根本活句乃死句之枝葉不揣其
本而逐其末不拔其根而摘其葉倘執以棄本逐末摘葉尋枝窮劫不了有
甚勾當古人抱一則公案千不捨萬不捨如釘釘木相似永無移趲豈有死
活之分得失之殊三五十年更不遷變一生二生誓不放開直到勃地一頭
磅破漆桶因地一聲迸開腦蓋方纔得個輕安不敢言個死活之分還要到
原頭一著看定是甚麼境界仍將本參話頭提起看他有疑無疑若再起疑
命根未盡直至到千不疑萬不疑方纔的當古云不怕生不得只怕死不得
若向死中忽然一甦如枯木逢春冷灰發燄自是物情不分理事無礙宇宙
山川皆共一色是非人我通成一德一切萬物融通一化方知碧眼胡本是
西天賊膽量包虛空一機分兩國淫房間釋迦酒肆尋彌勒多少大丈夫臨
時皆失色人人都想做強徒丈八長鎗誰捉得呵呵六月炎天飛片雪。
勘驗工夫落堂云惟喜深山獨樂尊深山原係道人村隔離長筍送新菜攔
路生苔忘舊痕月照竹床風拂地露飄紙帳水開門三宣兩詔懶從命但只
拈香報四恩縱還到至尊至貴重者無非是個長老已矣就到微末卑賤鄙
陋者難道不是個長老只要了得自心乾乾淨淨那在聲名華麗看有許多
才高勢大到頭沒點支文一病臥床八苦臨身不是肚痛便是腦疼一世長
老幾個英靈既為應世之模先學十種重道之法然後行道自是風綱皆正
也一者形端表正息妒除貪二者禮義廉恥尊卑遜讓三者濟孤拔苦恤老
憐貧四者自責責他己利利人五者慈柔溫軟和合一切六者是非不辨冤
親平等七者解人危急救人死生八者戒分漸次禪列優規九者悟理見真
垢盡明存十者廣行方便普利群生則不枉佛佛祖祖婆心片片續燄傳燈
者也只論守道行道之真何拘可貴可賤之分有緣無緣堅守戒根一日行
滿道法施行纔終得長老家者場苦心苦志耳即若山僧平日不樂市廛喜
住深山日聞黃鳥清音夜聽白鷗轉更飛雲漫疊疊流水急漣漣多少眼界

風光助吾日用快活觀不盡深山閑曠無涯際嘆不盡草木花果有別奇或時橫吹鐵笛迎接高上賢士或時鼓打口皮回顧中下凡愚所以自在者不過山林野衲快樂者無亞隱逸天人收時恬靜放則優游無名利可貪無人情可攀上不謁見公卿下不邀譽鄉紳不傷物情不欺自心衣食隨緣但莫饑寒造化由己福祿在天接物利生不立虛名有不誇全無不告艱不伎不求出乎自然住山須要深人情不相侵任從饑荒亂半點不干心獨不言寡眾不厭多世事無執著何處動干戈此是山僧重道之法倘若依而行之纔不辜出家一片初志耳又纔堪為當來範製不然變淆祖師清規誘壞後學法度故此山僧者裏禪分優劣頓漸而進戒分賢愚等列而登纔不污辱於法門嘈[口*卉]於山僧所以我本師老人原日無交涉遠聞山僧清白方正蒼古孤硬應世不垢見地乾淨故效古訪賢親趨勉強曲為而當法任諸禪德由是自重抱則公案力行不變入於深山忘形絕念年久日永德名周遍五湖四海遙空禮贊不啻老僧慕訪十方賢者不辭山之崎嶇路之險峻望風謁之勿勞久立。

序單師云近來世情澆薄亂離之際開此法席者無非為一大事因緣從上諸祖儀規大概為眾敘過一番宜當記取莫作泛常既近宗匠爆熱爐邊來入不徇人情之所一定要依規體範不是草草匆匆消延歲月浪浪蕩蕩混度光陰倘隨變遷逐境漂流豈不可惜當年一片好心好志耳果是好心出家的八風不能動搖三毒那得相侵只須豎起一片真實肝膽把當年習染雜惡毒濁之氣盡情掃蕩英雄豪氣一齊放下諸塵煩惱洗滌淨盡無餘拼死忘形做去自然有個出頭日子一入堂中耳不非聽口不非言手不非動足不非行嚴其身正其心慎其儀確其志奮然定要到大休大歇田地則可倘生死不明大事不了豈肯輕易放開真為生死的人到者一步還有個甚麼人我是非每慮十種深恩未報何者為十恩天地覆載恩日月照臨恩國王水土恩父母養育恩師長教訓恩善友提攜恩檀那衣食恩行人血汗恩贊襄助揚恩光被護法恩每日恒思答報又將那些工夫了得己分上事所以古云了脫業障本來空未了應須還宿債若論此語安得不用心苦志哉宜當慎之奮之又儒云朝聞道夕死可矣三教大聖人誰不是貪生畏死的諸來禪德是必實為生死到此既入堂中做些死工夫莫圖混過時光一者遵依從上祖師規制二者不礙法門體統三者美名傳無諸方兼且各人本分不共他有重加痛惜時時點檢刻刻提撕未無不了的日子必有出頭時節萬望保重珍重所以老夫預先告過莫待鼓響落堂那時又是一番境界拄杖不順人情謹慎。

即此安具者蓋緣老僧擔荷佛祖之重任然而受我先師之遺囑既叨法門安可自逸自恣而不激勵於大眾不啻不孝而有慢法之罪過無辭也兼且世情澆漓之際法門蕭條之時正好向此危極之中光揚佛祖之門庭顯耀禪宗之風威托賴眾兄弟大家勇猛精進把生死二字貼在額頭上提起本參話頭行住坐臥穿衣喫飯屙屎撒尿一切處一切時發起疑情直到不覺

不知磅著磕著勃頭因地一聲方知冰釋是水泥凝即土果到恁麼田地纔不辜負老僧舉此者場心力亦不辜行人血汗之力且不枉出家之志耳其中有為生死辭親割愛出家者為生死拋妻撇子出家者為生死捨富貴出家者為生死辭官棄爵出家者為生死經商賈客出家者為生死看破世事無常如夢如幻而求出家者由是種種出家俱是真為生死就要現前把生死二字了得乾乾淨淨潔潔白白直到千了百當方纔報得佛祖之恩一了百了方纔報得覆載之恩一明百明方纔報得水土之恩一證百證方纔報得親師哺訓之恩一休百休方纔報得檀那之恩一惺百惺方纔不枉離塵脫俗之志一悟百悟方纔紹祖傳燈接物利生既為佛子當報佛恩未必是父母難養而求出家只圖苟延歲月耶未必是貧窮孤苦出家倚就衣食耶未必是有難了的事出家好躲是非耶未必是苦磨不過出家以圖清閒自在耶未必是卑賤出家免受拘束耶就是種種事故而求出家既得出家已愈加一番悚慄速求脫離苦海不然大限盡日仍受輪迴依償冤債去也所以老僧孜孜叮嚀囑諸大眾明心見性超出三界其或不然被他所轉轉來轉去轉去轉來轉到末劫盡時三災一起萬物化為微塵那個時間誰作依怙勿勞久立。

南漳眾善齊到山惟王大善天未明向禪床前禮跪求指示師叱云佛法如雲普覆如雨普潤待老僧下單四眾等齊方可共聞齋次上堂云今早大善私人方丈欲想為他一人說個私法反被老僧一頓何也老僧之法不是外道小乘六耳不傳邪言鬼語度雙不度單胡說幾字工夫週身安名四肢搬運妄言說法不離體見神見鬼以作希奇如此用心墮入魔眷可悲可愍老僧不吝慈悲大大開個廣貨舖任憑世人採買識得貨的買些無花錦無絲緞鐵釘飯木楂羹得個煖飽一生快活不識貨的買些豐艷花香熟果雪捏龍紙嵌鳳圖個眼前風光想是現前眾善不圖眼前風光豈望一時飽煖定求卻斷生死至方剿絕輪迴妙藥汝等諦聽吾今為說欲想登脫三界超出苦海別無岐路一定要參禪悟道明心見性方能了脫生死命根若不信此者一著別生異端異見聽信邪言邪語妄起是非捏妖捏怪惑亂人心不向三寶之明路返行邪俗之妄途說甚麼老祖提名老母掛號俗子無知傾心取信正所謂一邪誘百邪一盲引百盲也任他千方萬計百機百巧大限臨頭都抵擋他不住金箱鐵櫃掩藏不住早來早去晚來晚去豈待其時故我世尊於兜率陀天觀娑婆苦海眾生輪迴不息屈尊就卑降生飯宮離塵說法廣利群品有情無情同霑法利千百年法流震旦我東土眾生方知香花燈水恭敬三寶念佛持誦收束一心廣積功勳善根純熟忽聞正法一了百當苟或未然看則公案以為鎮心符子不得胡思亂想一名公案一名話頭一名敲門瓦子一名過河探竿借他起疑若發起疑情一點用他不著禪關云不管話頭舉不舉只要疑情發得起話頭縱有千千悟則本來無二如參父母未生已前面目行住坐臥日逐十二時心心相顧念念在茲畢竟如何是我父母未生已前面目即此現前臭皮囊是汝父母已生若認此面目有

生有死有成有壞無非倚假修真借船過渡所以云迷者修身智者悟心或云真心無迷悟豈假修悟乎心如杲日當空蓋因癡雲彌佈遮障而有陰暗不明必假慧風掃蕩明暗色空一時明徹真心雖無迷悟蓋為眾生貪七情六欲逐妄迷真如鏡年久日遠而未盪磨垢塵漸漸深厚而不能自照本來面目所以參話頭者如撥雲見青天磨鏡去塵垢忽然一時雲開見日垢淨明存剔起眉毛豎起脊梁念動本參話頭只見疑情片片久久頓息連參的一字丟向一邊話頭也用他不著專專只在疑上著腳疑來疑去疑去疑來疑到情窮理極人我齊忘萬法皆空勃然自覺如放下千斤重擔相似又如新出浴一般若到者個地頭荊棘叢中無罣礙鑊湯爐炭得翻身頭頭拈起祖師意步步蓮花足下生勿勞久跪珍重。

今日說明日說說得老僧心發惡一頓亂棒趁出門看向何方尋下落呵呵贏得渠儂大快活。

己巳九月十五住成都寶光禮萬佛秀實辦齋請落堂普說師云世尊曾放眉間光正法流行耀十方地湧金蓮乘法界天垂寶蓋覆中央恒沙諸佛如雲集無量菩薩坐道場諸上善人誠頂禮願明心地出凡邦今朝大集會中各呈本願有求出家清吉壽不中天者有求功名顯達門風高俊世代簪纓者有求兒女接續祖宗淵源瓜瓞綿綿者有此商賈客旅而求利息希望諸般遂意者有為父母持齋念佛以報劬勞養育之恩者有持齋把素求脫生死輪迴者有一心念佛願生阿彌陀佛國土者有參禪學道願早離三界火宅者有參禪學道求躲脫風水火大三災者有參禪悟道證無上菩提願教化末運眾生者人有善念天必從之總在仁人君子有一點誠意舉動處下落故此人乃萬物之靈修仙證仙成佛成三乘四果十六觀門小乘外道人乃一樣根種差別所以云當頭不遇作家到底返成骨董第一要信得及自心本是佛只為貪嗔癡愛四個字放不下即曰眾生凡夫者也上古聖人無非信字看真切何也信者道原功德母心者能為萬物主不逐四時凋行善作惡皆由此心六道四生穿胎入腹披毛戴角皆由此心作六畜禽蟲大小形類皆由此心生天墜獄中華邊地皆由此心為聖為賢未嘗不是者一點光明正直廣大慈善之心西天二十八祖三年航海特來震旦并無別言只說個安心已矣曹溪六祖夫師因聽客誦金剛經云何應住云何降伏其心山僧直教大眾專守一心無一不成就菩提道果聽吾一頌為聖為賢既是心秉心端正合天真九幽十類俱遊遍萬死千生得正因火速修行成正覺明心悟道入傳燈若還錯過現前日招得來時不似今下座。

住寶光禮萬佛竟普說近來佛法漸凋殘兔角龜毛不值錢默識心通了本分音聲佛事乃方權逢場作用當無意遇境鏗鏘應有緣今此寶光禮萬佛其中枝節有包含試問大眾頭頭了然法法現成亦無背向遮覆且道包含個甚麼若不會只得將萬佛始末為眾表白若禮一佛內有一心發動禮萬佛內有萬遍正念現前五體投地一念如如萬境皆空是為性空法界如虛空根塵不動遍周禮切莫錯會老夫頭上去安頭矢上添尖蓋因相機應時

權便也會得過咳吐掉臂真玄妙跳打跌蹠皆神通者裏不會大家輓入葛藤窩中幸喜大眾相伴同禮萬佛弘名四十九日已竟試問大眾拜辭諸佛諸大菩薩臨行有甚言句記莚而去眾皆無答師舉起拄杖示眾云見麼諸佛在山僧拄杖頭上放大神光光中演說諸佛智慧德相不可思議凡有希求必獲如意佛言如是若以山僧論之不可有心求不可無相得此乃正是相法住世之時是必借假修真真異成假假實成真真假不異萬佛在心物情融化的事相因敬奉泥龍尚感真龍行兩禮拜木佛安無活佛利生古哲三十五位禮過去七佛寶號而成道果五十三人敬禮三十五佛洪名得證金身世常云無山不興寺無水不行船開池不帶月池成月自還若不至誠伸請佛豈自降臨凡佛念眾生如已子眾生禮佛若坤乾惟願諸佛常加護永劫侍隨如來前悟徹祖師法印代佛教愚化賢慈效觀音應化悲似文殊普賢諸佛加庇賜神通六道眾生度化全對佛願心恒濟物度盡眾生證涅槃普願會中禮佛者同上金剛般若船自向寶光聞法喜劫劫如同此日緣。

自嘆

老夫虛度七旬八看罷人生沒個[仁- 二+(天/ 韭)]樹老藤枯山可崩
桑田成海地能塌神仙千載躲三災羅漢萬年顯一法若識老僧年幾何
虛空與我同庚甲

圓明一性分三教

玄靈妙性天貞佛權以虛空作面目出水蓮花不帶塵入山獅子絕林畜
堂堂宇宙一元初朗朗乾坤三鼎足化化生生滿世間金烏任舊東方出

南海景題

七十九來朝普陀潮風一起渡千波忘形欲舉入禪定罷念恍然出愛河
上岸方知身是我離船自覺不由他朝音洞見菩薩面不枉千山泥水拖

出身原

明王佛現凡夫身應跡宮中度眾生頓脫塵寰隱白鶴火焚寺院喚然新
剎睛斷臂除疑病拔宅飛身救萬靈隨類化形名救苦尋聲感應號觀音

隨方應化

謾道觀音坐普陀無邊剎海俱偕和渡津舉號平安穩過險稱名快意多
特助釋迦扶正教端來末運伏群魔恒沙國請恒沙應百萬須彌一剎那

仙景

南海普陀仙佛山叢林草木可堪觀藤穿竹竅龍披甲石坐花間虎帶斑
絕學比丘生活佛操文行者硯磨穿三三兩兩交談語盡道修行第一關

坐觀

蟠砣石坐望西南水面波濤現白蓮兩岸煙霞連日舞四邊瑞氣帶風旋
海牛海馬隨波輓水怪水精逐月搏白鷁青鷹飛不過仙山欲睹非航難

讚

佛法僧

佛現娑婆稱大雄佛遊兜率利天宮佛身充滿三千界佛體圓明萬象空
佛入涅槃開正眼佛留舍利樹宗風佛搖六振回光照佛法流傳宇宙中
法初帝釋禮三請法說原來為利生法指邪途休去走法開正路任來行
法幢豎立智燈現法雨流通慧眼明法付當機莫錯會法無一字與人評
僧是人間大福田僧拈直指達磨傳僧堂寂靜悟宗旨僧丈喧譁談妙玄
僧正道高龍虎伏僧平德重鬼神蠲僧明大意出三界僧脈聯芳續有緣

總讚

四七西天東二三一般古老會裝憨只因一足收伏六宗顯海南言下投
機傳直難堪三更入室付衣鉢半夜到廊受氣慚神秀只今成話柄惠能
千古水香甜一花五葉芳芬後萬派千宗弄碧潭張射擊又真作用吹毛
打地假包函如雷棒喝驚天地似雨機鋒振邑郊水底游魚聞妙語山中
走獸聽玄談揚眉咳吐通身藥摘草拈花遍地藍獅子窟中生子獅曇花
叢內開花曇自從斷臂安心過除啞癡聾盡是男

達磨

者箇古老慣弄顛倒既喜東土帝迎恰好當機不薦掉轉面造著實無情
脫空何惱摘蘆過江直入山島面壁九年一身枯槁神光立雪一夜天皜
斷臂安心只教自討直至而今痛未休乾坤大地盡香草擔蒲換履任西
東來好不如去得好

又

蠻不蠻兮漢不漢黑頭蓬髮東西絆蘆花隻履隱孤峻只得神光把臂斷

又

中天四七震作初祖一撇不安半言不吐適問大意泥原是土西號彌陀
東釋迦一箇興文一箇武

又

摘蘆過了江一身潔白白忘形面九年何等不真切輕動些鋒鋌弄巧返
成拙只因妄誕不誠實惹得一花開五葉到如今拖泥帶水無休歇

觀音

慈心妙智度閻浮隨類化形何日休剔目林中因父患捨身巖畔為真修
眾生未盡還張網苦海吸乾不下鉤過去明王真佛母洛伽清範永長流

地藏

自性眾生先度盡不勞教外覓玄宗兩環錫杖接三有一頂袈裟蓋九峰
須向人前使妙用曾聞佛敕戒神通傾心行孝感天眷盡力全忠受帝封

普賢

利生預現一輪圓五彩神毫照大千百燄光前觀景致九重天上睹飛蓮
閒雲那許入金殿快象不騎駕鐵船隨素蓄聚行密行不知誰是真普賢

彌勒

牢拴布袋待龍華願出劫增原未差芒履踏穿領路正面皮笑破慮門斜
姪房豈懼呼為舍酒肆何妨喚作家直示善財彈指處層層寶閣露煙霞

伽藍

靈山願力幾能為在處祇園不教頹有道當家叫疾應無心長老遣如飛
催齋化供無停日捕盜巡山豈暫時若向叢林不衛護石頭瓦子化成泥

監齋

啗齒人天鎮道場邪魔魍魎如消霜珍饈美膳供諸佛六味調和敬十方
一菜一瓜出信力點茶點水敢先嘗火杈頭上金光現百沸鍋中看鑊湯

韋馱

將軍想是上方來站立丹臺定有懷恭詣道場護佛法切須胸內別安排
太平全仗英雄勢世變無非威力偕曾在靈峰山海願法幢豎處顯奇才

羅漢

四胡四漢四少四老一夥狂徒隨風顛倒掩耳偷鈴無限支表錫飛騰空
鉢擎梵杲伏虎擒龍渡海遊島方方遺跡處處討好不避姪女常近酒保
好住山林喜依水草甘忍饑凍酷愛煖飽立如枯椿坐似死槁一動一靜
百機百巧問何大意粧箇不曉神通饒爾妙千般誰奪玲瓏無價寶

又

螢光飛出擬天星蒲劍流來豈是萍出世原非求富貴修心那怕受伶俜
縱無縛虎擒龍志自有通天徹地靈日用平常依本分飄然到處一鑪馨

諸天

嘴臉不同心腸一樣不樂人間好居天上近佛遠魔修真除妄神通運行
水火升降三界十方任自遊雲霄劫外隨心曠而今幸入三摩地丈佛威
光出劫障

天王

青紅黑白幾箇村漢腳踏魑魅手握弓彈聲若霹靂眼如掣電摧邪輔正
扶危救難塵業消盡心光明燦皈依三寶鎮山門善惡人來作證鑑

五臺景題

慧日朝朝出海東羅那延窟透玲瓏楊郎本是凡夫子魯智無非齷齪蟲
一念回光成正覺傾心向善悟真空靈牛不用繩條引良馬何須鞭影雄
錦繡峰點萬歲燈山河大地瑞光新梅檀林內現千佛荊棘叢中隱萬牲
造像描真已弄已騎牛覓牯人尋人清涼石上仙留跡洗鉢池中龍晒鱗
峰頭挂月等扶陽只待維摩慢下床八德池邊正講道九蓮臺畔雨花香
無根樹繫金獅子絕影山攔白象王實際工夫擬欲道雞鳴已放兩三光
崦嵫山前四路通紫霄霧裏現金龍碧峰立誦雨花沛鄧隱坐升瑞雪濃
澡浴池魚多變化啣華巖鳥任長空文殊聖跡觀無盡如月千江映水中
四山讓我坐中央七佛之師古道場千歲藤焚香即火萬年冰化水如湯
碧獅子吼聲遠來石觀音吐舌長前三三去該多少玻璃盞內聽鏗鏘

密祖像

惟有者箇老漢不畏鑊湯爐炭終朝說夢哄人每日勞形擔擔印接臨濟
正宗二六靈芝發蔓而今遍地掀昂香煙普天撩亂君詔王迎不諾龍降
虎伏無憚桂花朵朵馨香碧樹枝枝開燦撥開人天正眼發明三千公案
天人送供不為奇百子千孫傳震旦

破祖像

一莖拄杖撐天地七幅袈裟覆十方醉佛樓前吐惡氣萬峰頂上放毫光
殺人場內救生死選佛堂中利杜康兩枝燭一瓣香供養破山大法王

又

膽包六合勢壓大千手握白棒殺活無邊一場懣懣識者爭先不是粧模
作樣法門理所如然咦真是曹源一夥客棒頭如雨接人天

敏師像

吾師和尚一生眼曠貧不棄交富豈攀望諸事從權毫無欺誑應世清高
說法嘹喨前好規模後效榜樣問機合符答語雄壯棒有順逆喝無收放
凡聖齊打智愚同喪掉轉頭來渾身舒暢死中得活纔算的當咦接物全
憑三寸舌利生獨仗一莖棒

自像

誰將老漢畫全容除是僧繇敢弄鬆四大不同天地幻五行豈共乾坤濃
真空妙相常清淨假幻玄機有變衝如月千江隨類映孤高豈肯受褒封

廣濟律師

精嚴佛業範規清遺制後昆效樣行想是波離慈愍眾莫非那律惜憐嬰
悲心片片重垂手浩氣昂昂立法旌燕落魚沉名廣濟法幢亙古豎嶸崢

愍忠律師

幾番風厲立綱常真我法門大棟梁微細律中全萬行施為戒裏有多方
明珠現出降龍葉斂收伏虎囊破面頭陀重應世宗禪教律仗光揚

諸山禮白塔

諸山耆宿志同虔盡力塔前禮佛天百劫功勳含舍利萬年道行結靈璫
心誠返看本光現意竭常聞覺地蓮一念精專香已竟不勞舉堂望西乾

又

不分晝夜禮浮圖八面四方香熱爐五體投塵非至念一心無雜絕精羶
光從天際影邊現瑞向祥雲霧裏殊識得本來真寶塔渾身舍利通身珠

壽順承王

聽得雲端簫笛聲馨香陣陣太豐清一圓寶蓋輝天地萬道錦衣遶楚荆
龍種臨凡民永樂壽星主世物長生曾聞王母蟠桃會大集班中尚有卿

壽貝勒王

菩薩應跡現王宮引領群星助國風放下世情譚妙道撥開心地顯英雄
人間共祝長生佛天上同參不老翁拄杖流傳無量劫可同千歲樂華嵩

壽蔡督臺

治世福星佐楚南森羅萬象盡包函金龍有意飛滄海皓月無心映碧潭
自古恩全難選一公全德備可呼三不惟萬佛堂稱讚五嶽四山俛首參

壽李總戎

金丹本是長生方說甚瓊琳玉液漿不以乾坤為鼎器惟將動靜煉純陽
兩般藥物緊收斂一味膠梨常放光八洞壽星齊慶賀仙桃佛果滿盤香

壽康總戎

跳出戎場入佛堂誠心端禮法中王福如東海前修廣壽似南山現作長
眾聖班中無雜士群仙會裏有純陽仰觀天象壽星降八洞齊來獻一觴

壽陳護法

桃園果熟幾經營一顆到唇千載香玉骨金筋通上界神形具妙入仙邦
本來佛性無增減過去聲名誰久長想是桑田任復海從頭算起壽無疆

壽邨崇縣丘公

黃河清應聖人生鳳若鳴時飛鳥驚蠢動含情霑德化蜎飛螻類仗光明
道風吹去萬川爽慈雨飄來百草精仰視福星無可祝佛前喣誦恒沙春

壽劉居士

春風幾度雨花開最喜今朝香滿臺寶鴨爐中飛白鶴佳賓堂上走青駘
聖賢長向十方集仙客遂從八洞來瞻得壽星臨楚地同稱華祝衍蓬萊

壽傅居士

佛敕善人為學家常開四季不凋花青松枝上挂明月翠竹梢頭結彩霞
鶴集滿庭鋪白玉菊飛遍地布金沙一般都是蓬萊景更有壺天趙老茶

壽吳居士

久慕善人欠就頭今朝特此為添籌千年福果將函進萬歲藤香望注留
胡餅苦茶僧日用羊羔美酒君前修願同海嶽無增減共與偓儻攜手遊

壽艾居士

天佈雨花四顧濛瑞生雲裏現玲瓏山林草木霑慈潤土石含情仰德烘
文翰三才四海振道高九鼎五湖充壽星臨世香千里陣陣吹來貫碧空

壽廣文禪人

欲赴蟠桃無一般老君爐內借仙丹黃龍神水能調服白象醍醐可和餐
點石成金溪水酪磨磚作鏡道風端東方見海乾三次不識人間幾度歡

壽惺悟禪人

撐持常住苦修行戒德清高百事成布種先將意地穩栽禾預治心田精
開花自有蝶枝舞結果安無鳥樹鳴古叟名呼長壽果和盤托出為添庚

壽萬居士

太平晏樂勝仙家說法之時布雨花西望月沉起[雨/弗]東觀日出長
煙霞靈山聚會餐甘露王母蟠桃飲玉沙特取真龍三峽水蒙山烹就添
籌茶

壽何居士

人生恰似夢陽臺若得醒時一旦灰丹桂月中攀可就飛仙島內邀還來
雖然貿貿虛塵世且自徐徐葆聖胎正問春園桃熟否誰知方朔暗偷回

牧牛頌賡本師和尚原題原韻

撥草尋牛

日暖風和獻苾濛山高水闊隱玲瓏峨眉雪積連山白巫峽陽來帶水紅
花底聞香氣未實鏡前望色影長空三番四覆儘思量八極六寰長栗蓬

倏然見跡

月明如足印當天回顧川流亦復然楊柳枝垂掃半缺荷花葉墜奄重圓
不聞不睹一千擲若見若知三十拳切忌翻騰迷逐塊一聲響亮萬機全

捕步見牛

劫外今時不二光風從花過異情香虛空面目有誰見般若門庭無覆藏
水窮山盡轉身妙爐炭鑊湯出世良機謀豈用勞心力一味平常自在方

得牛貫鼻

龜毛索向手中卷渾把頑牛鼻孔穿拽轉頭來聞法令稍生擬去痛加鞭
無根樹下煉三七絕影山前養十全不動動中忘四相一聲吼倒梵魔天

得牛調馴

大地原來一草場尋常吩咐牧牛郎先揮塵土徐徐喚後洗毛皮漸漸光
犁轉乾坤不算力踏翻三界豈稱長切防月老眼花亂錯認顛騎倒上方

騎牛歸家

出入尋常懶記時逍遙那覺路參差忘機喜唱無腔曲對境惟吟沒字詩
飛錫幾遊秦漢殿駕船數過黃虞祠北邙盡是英雄骨誰肯思鄉會故知

忘牛存人

瑩瑩冰鏡一輪孤照徹山河萬物殊日霽天空無四相春溫秋爽絕三塗
花香不仗東風力梅熟何須綠葉扶謾道主人無別幹常觀星月度蒼梧

人牛雙忘

威音勝地事如何萬劫功成一剎那古鼎寒灰飛殿左經年枯樹老山窩
嶺頭不管煙雲密世外寧知歲月多漠漠全無生滅意大圓鏡裏隱彌陀

雙露雙收

原自天然大白牛本無欄圈任優游馳南奔北隨吾轉下地上天誰敢收
頭尾斂藏含萬象橫身抖擻有千謀一聲吼出驚山海駭轉黃河水倒流
又
不同萬物與凡流剿絕煙霞有甚謀蓋此乾坤荒草地只因宇宙亂波浮
達磨特此來東土直指明心當下酬若與虛空同面目有何水草有何牛

入廬垂手

齊家治國百無憂浪蕩江湖隨處謳唱首還鄉到岸曲游魚跳躍不吞鉤
百茅百草成包裹一戶一家叫老舟人說賣完三擔假我云獲得一場愁
眾生好度心難度撥轉船頭也罷休
又
世間多少太愚蒙不信因果佛性同富貴宜當皆富貴貧窮生就應貧窮
雞豬鵝鴨與牛馬魚鱉龍蛇和鳥蟲百物天生人所食燒香眼瞎聽經聾
又
漢明聖主夢金仙日月橫擔照滿天八極六寰求佛法九卿四相覓良賢
蔡邕啟奏西方去行到中途遇二禪迎得佛經還本國皇恩頒詔普天傳
又
後有達磨航海來梁皇迎接上金階玄機不契掉身轉通國人迎請不回
土面灰頭但舉掌如同啞謎叫人猜靈兒識得者消息無佛界中去賣獸
又
當今現是人王佛還在佛前求後局迷誤眾生不肯修聰明漢子自埋沒
但觀世上富和貧須聽街頭冤與屈轎馬控挑一樣人前生修積今生足
又
既得為僧報佛恩無修無證枉為僧山間養就擎龍手林下結成縛虎繩
要與人天開正眼定從佛祖豎傳燈如雷棒喝驚天地鳥獸聞之齊著驚

聖壽寺石牛頌

一元大武出天然正現真如紺殿前體賦金剛符聖壽身離劫火享椿年
常居淨地忘生滅豈與牧童共往還頭點無勞鞭策力名隨寶剎耀西川
又

性戇不求人牧養
蘚苔擬是青毛長
階墀雪厚體清肥
器局堅凝無鹵莽
南畝不遊身自閒
甘霖一灑形骸爽
只愁犢鼻渾難牽
蠡爾行人空費想

法偈

示金山居士 順承王

本是靈山一佛子隨方應跡豈忘此心從覺地聞佛法身在朝廷聽聖旨
二諦法清歷歷明三乘果熟堂堂喜如來正法曾交付侯閣王公同性理

示傳燈居士 翰林穆書

忠敬 帝前孝敬親歸心事佛正逢辰慧燈焰焰光宗祖智眼明明照法
身百尺竿頭休進冊萬峰崖畔宜回駟前朝英傑諸賢士誰是忠臣太廟
神

示佛海居士 工部擎安

久靜沉潭徹底清通身爽快當時輕千斤擔子一齊放百劫塵勞兩下傾
隨類興宗揚法化就權顯實豎禪旌傳燈不比凌煙閣大藏垂名亙古英

示圓進居士 戶部喇都虎

世出世間智兩全事儒敬佛學神仙志心一片人難及誠念幾行爾獨堅
法門宜可作檀護祖道應當受脈傳何異洛伽四八應化形隨類教愚賢

示明應居士 戶部馬爾泰

不忘根本入禪流看罷繁華何日休名若空花枕上夢利如急水灘前漚
回光自覺歸三寶返照阿誰沒四浮一句話頭為道種玄機參透識來由

示明奇居士 戶部何關保

重君近座不繁言天性生來覺自然供佛皈僧姓字播孝親忠國美名傳
神天豈昧人心好祖佛難辜道意專老衲精誠示一偈流芳千古佛同緣

示德祥居士 戶部趙有仁

臨晚求名何太忙未曾仔細問精詳果然真實為生死動靜返觀人我忘
逐北奔南誰作主粧妍出醜自欺狂從今說破寢時夢脫卻藩籠見性王

示德永居士 駕前王廣生

因緣契合元無私詫路參差必待時若是前生有定約自然今日不相違
祇園老衲親吩咐萬佛善神必護持果爾禪門真種草他年是必長靈芝

示榮陞居士 守府劉君寵

靈山記薊會當陽更有一番滋味香君現將軍身說法老僧偈付人聯芳

示偈

示福田賈居士

大家出手造祇園本是人間真福田從此下些好種子開花結果自香甜

示天柱陳居士

萬仞峰巔陟盡頭方纔了得者根由祇園望作擎天柱莫學疏狂拋淨毬

示福真

萬福之中誰是真老僧卻與更相親你若磕頭我合掌團圓一處皆前因

示善長

大邑人中為善長壽星住世福田廣無嗔無怒存道念有德有仁可敬仰

示傳燈

忠國如同孝誠心若供僧德多天送福功大上頒憑瓜瓞綿綿永福田漸
漸增祇園親授記千古載傳燈

示長松

但來善識盡歸從不退菩提心若松松老年蒼還變色善人寬大有包容

示漢雨

安閒樂道自悠佯不薦腳跟枉路長百鳥穿雲空度日一身帶露為誰忙
澤虞不向空中舞迷蝶偏從花裏狂夸父何常飲大澤當思斷臂老神光

示天破

百計千方亦恁麼未行直道枉奔波聖凡那隔半張紙生死參差一剎那
掉過頭來忘主宰轉翻身去遠彌陀張王李趙名何狀罪福空花了不多

示秀文

袈裟線下有牟尼未味尋常十二時有眼不觀耳不聽無心焉動意馬移
鉢盂起瑞因緣至錫杖開花造化齊操得凡身全戒體話頭何必用心疑

示法空

既知法空了無生說甚長安與北京百草頭邊真祖意一箇枝上乃蓬瀛
峻峰山下無樵語峭壁崖前有鳥聲吩咐禪那深保重精嚴戒律道風清

示高隱

掉轉頭來苦得甘圖閒坑殺一茅庵馴牛謾道受籠絡真佛未嘗住木龕
彌勒既求到酒肆金龍欲覓在深潭分明指出揚風化面壁老胡不算憨

示迴超

好人俱向苦中來莫把五雲錯剪裁忙裏敲冰護翠竹閒時掃雪蓄蒼苔
知音為說家常語差別休提世物猜踏著先賢穩密地恁麼機巧得能諧

示仁超

久俟門牆一片勤未曾餐露也吞雲箱中衣[泳-永+(嘆-口)]欠燠洗
爐內灰寒少撥焚珍重休言佛一字輕浮少弄鬼之文而今且去山林穩
自有龍天推出群

示福超

行孝江流封國師明明指示後人知誠心悲動嚴師語舉念啟煩護法威
醮達龍宮漢汝至經迎佛上唐朝齋而今幾箇效先輩德廣形藏略似規

示自超

腳跟立定任風煙把著話頭密密參絕是絕非如瓦石離凡離聖似釘磚
色身拘執人情窄慧眼開時世界寬脫盡皮毛無二法山河大地掌中天

示天都

諳練經綸養聖胎山中年久思徘徊津深有渡舟旋轉關緊無私貨往來
獨木橋前踏鐵石孤峰頂上踐蒼苔剛纔行到芙蓉地一朵清香瑞氣開

示真印

謾言自是偷安穩草長廚前須下鋤海闊誰傳至切語日高難照深幽渠
尋經討論何時了逐影捕風幾度虛不薦老僧親切語至今苔徑尚荒疏

示東風

為人莫學一番風要與祖師打合同度盡眾生離苦海脫開枷鎖出藩籠
既為佛子恩先報若荷師宗仁義終前輩古人有樣子吞針噉鴿滿堂空

示壽翁王德賢解元

貴重前朝大老先幾求一晤隔潯淵今朝共遇裝嚴寺他日同登般若船
縱有聲名播四海不如一字入燈傳文師布袋何前後正打旁敲豈是顛

示佛解孔白眉

本是靈山一夥客特來凡世立規格四生了了真冤家三界明明假火宅
夢眼徹開世界寬迷雲遮蔽乾坤窄祇園不惜鉗錘惡問答投機傳正脈

示歸宗

和泥合水幾番輓罵只笑兮打即忍慧眼清如日月明道心堅似泰山穩
衲衣蔽體不云寒蔬食充饑謾道饑一段真風香水長樹高千丈葉歸井

示玄明

珍重人前防滑石亂碓叢裏有圭璧是非一味休開口凡事三思纔放僻
兩道青眉任短長一條赤舌說朝夕水清漫下釣魚竿不是鯨鱗收沒益

示中先

參禪先要全終始剝盡皮毛方見髓走遍天涯土是山踏翻海底冰原水
五湖四海共陽春後學前賢同性理倘若十方經歷過仍來坐敘談心旨

示彼岸

丈夫行事不同凡呆子坐觀待日巖厭視游魚浮潑潑煩聞飛鳥虛喃喃
一刀割斷青絲網兩手拍開白口讒無上菩提當有分袈裟那肯換藍

示智海

常觀世事如浮雲風捲波濤幾度紋知足除貪皆共語癡心迷悟休同云
凡夫證聖多生願魚變蛟龍往日勤踏著祖師穩密地真風一段自家欣

示萬有

恩深莫過於慈母今得出家可報補持戒精嚴了自身參禪見地益宗祖
黃梅拔婦上三天地藏救親離九苦汝若懃心依古行心香一炷乾坤普

示舒展

性氣剛端智見高定明心地續溪曹前賢不過勤精進後輩無非下苦操
行到懸崖撒手處風雲聚會不須招恒長直直無遷改那把西江水不消

示剛直趙居士

正直孤高無妄私剛柔兼濟利群癡寶光堂上親垂手蓮品山中定祖基
離脫陴崇好自靜蹬開世法絕謀機一心徑上菩提路專慕超凡出劫師

示金相寺戒子

資質清高本現成棄濃受淡苦耕耘隨方佛刹誓修補在處伽藍願整平
天地君親恩莫報佛皇師友法難聞征袍退卻皈三寶一念純真學箇人

示光大

善門剛自開常不息徘徊誠念無嗔怒萬般得偶偕日連顯九峰文殊坐
五臺觀音帶龍女彌勒攜善財焚香勤禮拜感動一齊來

示學人

精勤參學莫貪眠高貴無非信力堅在俗不修皆本分為僧懶惰枉徒然
佛仙本是人參悟禽獸自招業苦煎若不尋條直截路時逢劫火無方安

示悟超

西來大意一輪懸或映方兮或映圓只教當人莫錯過眉毛剔起急窮研

示昱霽

鐵笛橫吹曲調長聲中盡是太平腔知音莫道聞忉怛自有秋風對月香

示遍知

不悟真空愧出家悟後何常有一些世間多少糝糊漢獨指渠兒眼莫花

示徹明

一副肝腸如鏡明森羅萬象照分清若加妙藥重磨點帝釋眉毛往下生

示靈碧

者箇機關難說破從頭說破不為玄無心間脫漆桶子莫效諸方捏謊拳

示慈目

天龍指上有無端具眼禪人仔細看識得明燈原是火何勞斷臂把心安

示天池

妙年操道具威儀半點參差不算奇若奮金剛決斷智自然皓月現崑池

示證超

無字文章識者稀吾儕門下料知機憑空拈個長題目著眼看來依舊非

示印光法侄

法門耐爾大家撐先正紀綱後論英只在一莖硬拄杖野狐掃盡道風清

示悟休

死水沉潭無了期當尋出路看根基垂鉤下在深波裏直釣金鱗莫曲魴

示無量

九年面壁莫嫌少七破蒲團豈厭多只要打開心地藏任從海宇唱玄歌

示非洗

乍進宗門眼骨高當知拄杖似龍濤輕輕擺動乾坤轉鼓起東風四海潮

示瑞峨

浮世如同五色雲慧風一起毫無聞空王殿裏尋真佛八識田中覓主君

示瑞峰

機關縱奪皆由己造化放收豈在人對境心灰如木石花房酒肆任君噉

示長目

看罷古今多少戲莊妍出醜傍觀嗤青山綠水不遷改舉目窺來誰自追

示如月

風起雲開見太和青山綠水未曾揆法身穩密隨心現如月千江任亂波

示遙聞

不入眾流苦自熬金沙糊混任伊淘亂波之類分疏得足見兒郎眼骨高

示慧目

戒不精嚴禪未參輕師慢戒罪彌天貪嗔癡備實難救知過求緣可保全

示廣聞

目前須稱謾忘規始末因當返逐思隨處任漂看下落夢魂扣惺在何時

示沙界

日前當自覺語默誰活潑便得物情轉沙界手中握

示追悟

婦人女子悟成道不遇真師枉自傲動靜施為追問誰鐵饅咬破一場笑

示念慈

出家二字非容易須要腳根親點地若是中途失卻威祖燈千古不能序

示濞汴

一生勞苦為誰忙剪霧補雲針線長若向其中有截斷三更入室細商量

示渡瀾

不求榮貴不愁貧但得平安道自真悟到心花開放日頻將柏子報君親

示湛清

急水波中現出頭特來聖壽學看牛有時放下繩鞭子吼震長安一郡流

示淞峨

戒是修行載道基築堤堅固魚龍威池中星月光明燦照見珊瑚樹一枝

示惺悟

百草頭邊祖大意頻拈何處不尊貴吾家種艸非尋常定入傳燈續一輩

示坤木

生長乾坤宇宙中根穿海藏巔撩空主翁識得為梁棟可與人間全始終

示德參

修行無別法一句話頭參到家路不遠前三與後三

示潏潏

祖脈聯芳且讓誰天龍一指萬無移當機薦得祖師意正是男兒立志時

示永盛

穩定腳跟不涉秦三年兩載決為人老僧佛法無私授只要通天徹地綸

示萬融

割愛辭親來出家寶光堂上原無差隨師到老無離刻說甚何難事釋迦

示羅列

列列孤高樂住世不求名也不求利光明正大了無心真是超群出格志

示光華

人人皆有白毫光盡頭一當但將心行培三寶自然有日覺花香

示文居士

志高定選懷仁義時節到來事事備敬佛信僧道念真德全爵祿有天賜

示女居士德福

念佛生極樂布施受福全龍女獻珠寶佛記女轉男

示鄭弘春

造佛修宮莫大緣梁皇一笠坐中乾始終如意成功後果證菩提步寶蓮

示德元高居士

世人難得十分全有子有孫種萬緣若不回光返自照轉頭依舊不如前

示高二居士

世上何名真福田濟貧拔苦結僧緣回光常念千聲佛苦海湧成般若船

示陳居士

千聲佛號感天龍大罪無遮盡化溶世世常經三寶地漸成功滿妙無窮

示佛種

穩坐團蒲一念清如如不動工夫深黃河坐斷水流上萬象森羅隨我昇

示撒手

妙用無窮勤悟參差之毫髮隱于山六門閉鎖牢拴定自覺心光照大千

示總持

遙來親覲無何酬速去住山得自由一把鎌兮一把鋤山筋挖斷水長流

示聯應

玄機無大小進戒論遲早踏著覺輕快本來不欠少

示李居士

昨夜夢飛上九天惺來依舊在人間睜開眼夢人難識識得速登般若船

示永證

前世不修豈有今堂堂人相若雷音回光一念皈三寶永證金剛不壞心

示如山

莫把古時來比今古人開口似潮音一言已定如山穩若不成仙不遂心

示天生

不貪名利在于今那有天生觀世音都是人間父母養塵緣擺脫去修心

示善同

萬邦受享賴 當今四海文明響德音但願我皇萬萬歲含情六類善同心

示壁端

隨侍老僧學佛齊登山涉水要精微一呼百諾全終始語錄傳燈名目題

示法藏

一心不雜顧常住點點分明覺自知出入伽藍常記算光明正大有何私

示見佛

遠聞淚雨滿襟流積德人家有甚愁一切所求隨本願多生業苦現前酬
現前酬轉過頭來任自遊

示參微

參悟超三界義全播十方道高龍虎伏德重聲名香

示清白

一生潔白白何處不褒欽一日明真諦方知佛是心

示西來

佛元無去來迷者妄疑猜了得心無事蓮花遍地開

示挽回

勿論在家與出家心行平等合菩薩老僧門下過千萬敗種焦芽莫效他

示長春

尋常出入無相欺動靜是誰先覺知至道不離日用處眾生諸佛豈增虧

山居

入廬應世過繁勞脫去尋山學種桃空洞無風雲到隙曲塘有水月歸漕
編籬代護園中果修竹兼除道上蒿獅子潛威狐兔邈梅檀勢大苾芻高

又

攀巖附葛陟峰巔到此方知別一天五色卿雲舒錦繡數聲啼鳥咄璣璇
長林樹老蒼虬繞崇嶺石橫白虎眠半點浮塵飛不到暫將香草作蒲氈

又

雷鳴借響燒香鼓電閃留光代燭明雨滴樓前擊石磬霧飛堂外罩蘆亭
門寬那怕雲關鎖池大何嫌水覆萍休教人間重睡夢高懸化日出東溟

又

日沒嶺西又出東晴光皎皎一輪紅當陽不惜懸秦鏡默地無思挂楚弓
歲歲清輝浮九陌山山皓彩化群蒙孤圓照破坤輿暗對景方知色是空

又

瑞結如蟠遶峻嶒樹穿石竅蔓盈枝綠林翠鳥顏相合老葛蒼虬影較疑
竹掃堂前風過早雲鋪山半雨來遲吉凶未卜觀天象定裏圓明不再思

又

生來懶散喜居山一味清幽若鈍頑絕是絕非忘異路離聞離見破疑關
斜窗飄露眉生玉破壁招霞衣帶班萸萸有心開歲月峰巒無事懶高攀

又

路近蒼松作客亭山光樹色巧丹青煙霞不異王維筆風響何須普化鈴
頑石點頭因聽法靈猿舉掌為聞經人間問我安身處茅屋幾椽傍大嶸

又

景寂山和道不貧枝條摘盡又生菌不將鑊去開新地惟待風來掃舊塵
兔影盈虛知朔望花情收放識秋春當陽一句原無說策地敲床笑殺人

又

寒山挂錫已多年土面灰頭出自然求佛不如忘四相得心何必覓三玄
行吟池畔魚聞法坐默林邊鳥問禪大喝一聲知也未天空豈滯任飛旋

又

尋常不敢起思惟百結草衣且待時將就巖嵌好躲雨生成茨壩免栽籬
支鐺樹下燒枝葉洗菜池中拆土泥爛煮玄芝先供佛靈山那得者般齊

又

蘆蓬簷外眾山翹觀面昂頭若見招巨海千尋聲透徹高峰萬仞氣頻超
煙霞散去陽光近岬嶸排開天際遙常聽迦陵清梵雅雷音相接海音潮

又

岑巖峭壁向誰誇凹石如獅踞路槎藤結樹顛垂寶蓋水流平地湧蓮花
兩輪日月千年燭一片山河萬歲家不識人間真下落怎能樂我者生涯

又

撲破瓢囊一物無頻將畫餅濟饑徒盡生守戒絕魔使永劫捨身作佛奴
迴迴圓明照頓漸昂昂旨趣辨精羈中然站在無憂頂萬紫千霞信手塗

又

一生只愛處平常淡泊清幽自覺長風虎已經錫制伏雲龍自有鉢驅降
覺心得息群魔息迷意若狂六賊狂不用許多奧妙法從寬放下絕精方

五言律

山居何所事火種憑刀耕種下菩提子結成般若瑛不燒有燄柴端煮無
糧羹月在秋潭映日來繡谷明

又

朗開三車路火焚五蘊山既驅獅子猛那怕野狐頑凌空鶴衣白木落虎
毛班優游心不繫處處得長閒

又

白猿啼古樹野鹿臥高丘百物皆含趣萬般有出頭遨遊嘆息世多愁滿
眼開經義遍山現白牛

又

居山雖未久事事可堪誇富貴一林筍榮華兩地瓜汲泉冽井近攬勝野
晴賒持杖塘邊立投機有暮蛙

又

身在五湖客孤貧不借威摘蔬同鼎食徒步勝乘肥離境寧為是多言已
覺非高眠忽枕墮榻內顯珠璣

又

柴扉常寂寂忽啼樹上禽三摩眼孔入多漏耳根侵瓦子連聲擊石頭帶
土擒鵲巢為說法一聽起迷心

又

鵲噪鴉鳴處何其問吉凶力大堪騎虎鉢靈可罩龍山高連鷺嶺星朗示
玄宗勘破佛魔境屹然立要衝

又

修竹迎風爽喬松待鶴居趙州茶不竭禪悅食忘機搖舌鋒如劍揚聲吼
若獅案前無限景助我發新詩

又

凝眸山色近舉步蘚痕多採蕨連根拔尋薪帶葉拖雨收苔徑滑林密鳥
音和清涼驅暑吏持竿上木鵝

又

不登九折阪誰識道中難藤葛原無擾是非自不干步憑雙草履坐止一蒲團本分忘人我便覺地天寬

又

既有聲名重并無論賤輕梵音鳴大壑法語播滄瀛青雲現花從古鏡明識心本是佛海晏與河清

又

居太古樸閭市取閒消不識諸方苦殊因本地驕童晝打鼓石女夜吹簫寧淡山中靜休農世外驍

又

心猿常寂定意馬自安全三毒轉三聖五蘊證五仙三百六十士八萬四千賢一夥清虛客同登般若船

又

斂形忘舊跡舉步踏新苔迷卻進山路方知出世才利生日已近接物時將來分付長行眾風香花正開

佛事

七月賑濟對壇云大帝年年七月生放開普赦釋含情離憂脫苦淨方去萬里長空一坦平咄混死鬼浪癡魂速去投胎做好人只為從前造孽重今聞佛法盡超生師以拄杖向然紙場內一拂云手執捲天括地拂掃盡煙霞法界清拽杖回壇。

煅百靈

狼籍群靈骨滿彌荒坵撒落亂差參年逢戕殛等非命時遇饑殤眾紊舐搏斂如山憑火炬超生似箭仗風姨剎那直上三摩地彈指逕登九品池咦現前湧出光明藏燦燦赤蓮吐玉枝。

哭雙桂破師翁(丁酉年涅槃)

拄杖皇皇此日休蹇翁罷釣捨舫舟絕聲不唱密公曲斂手慵拋雪祖毬得露真如觀自在長留慧命復何謀雙趺暫去化安養一葦還來度眾流。天童記荊響西川受化如麻識者先一旦涅槃撒手去千斤擔子教誰擔法堂寂靜爐煙息佛殿幽清酒器羶從此永安潔白白醢燒品味滿河掀。法杖千莖出太翁慈容順世遙瞻空生前行狀人難及語後儀規道者同寶塔雖無別點奠金龕常有爐煙通化門孤峻甚行孝竭力撐持強進忠。

普霑法利道風高規正儀端誰敢褻暫退袈裟披素服權安杖鉢繫麻條滿堂悲震如雷吼合殿舉哀似虎嘯兩兩三三皆醉倒展開兩眼看溪濤。

哭敏師和尚(甲辰二月二十二卯時生壬子冬月初三日亥時涅槃)

奉師密教離多年盡力傾心撐法船諦想利生已進孝誰知辭世不能前拈香設位空瞻禮上供舉哀淚湧泉哭罷一聲腸欲斷可憐不復睹慈顏。權化娑婆縱有年何忙推轉利生船丈中爐火常新爇座上曇花如在前滴淚行行傾沛雨涕流次次湧甘泉報身須去他方化唯恨薄緣未近顏。吾師厭世離繁年放出許多般若船半點瑕疵難隱諱無端形跡現人前通天拄杖如麻立匝地風聲若雨泉自有同門掌法化安心入定斂和顏。嗣法如同領聖旨不分晝夜勤操履利生至念重如山向道之人淡似水不度無緣度有緣休圖假璽圖真璽剛纔得趣聞師歸收什忙回行孝禮。

涿州弔易菴法叔

攜筇擬去利群生半路逆風馬受驚涿水鏗鏘當有分燕京橐鑰原難撐江南河北空懸慕廣浙吳楚枉費誠金骨不知何下落權將磚石壘堆塋。一妄思惟十萬句誰知由命不由人貪名圖利終何用逐境生風枉費神珍重堂中樂且貴輕浮世外漫尤嗔前賢三詔不輕舉自古清高道不貧。

為雲水僧舉火

執火炬云密如密如空生浮圖逐妄行腳未受鉗錘大限臨頭一念模糊但知生有不識死無從前未學抽身法直至而今沒倚扶嘆向此紅爐鍛煉過休來三界辨親疏。

為長目舉火

以火炬打一圓相從相中橫一畫云者箇鐵門限跳得過也向者裏鍛煉跳不過亦從其中烹蒸十地聞之膽顫諸天聽得眉攢還有不生恐怖者麼攬下火炬云唯我長日子穩穩任安排。

北京為滿洲吳夫人起棺

師至柩前云百千三昧分差別一句當機絕見聞四大耶或聚或散五行耶受剋受生陰陽耶有升有降造化耶無減無增且道吳夫人平日者一點靈明真造化即今在甚麼處震威一喝云總教當人高著眼休將水落第三圪

水落三圪且止如何是起棺一句茫茫苦海抽身去寂寂光中慶有餘以杖敲棺三下云恩愛從今兩斷兇神惡煞齊出 即日舉火高舉起拄杖云杖化雲龍直上辭太陽宮裏借無明丙丁童子從南至巳午當機熒惑生須仗東方甲乙巽凡軀化盡現金身執炬遶棺一匝攬下云西方直捷一條路九品蓮開聞法音。

京師為福祐張居士起棺

以明轎抬至棺前云厭世離凡尤是妙若明心地可稱奇去來但要無拖欠往返須妨帶水泥東土西方隨意轉天堂極樂任心達從今蹬斷輪迴索一見彌陀永不疑咄速急去莫延遲大寂光中開正眼阿耨池裏放毫翼彌陀正說無生法速占九蓮第一枝震威一喝云出 即日舉火以火炬向棺三舉云除三惡斷七情十八界空一坦平天堂路地獄門兩條都是輪迴坑惟有西方極樂國速搶蓮花上品生攬下火云紅燄光中斂正念白蓮池裏放光明聞佛法聽梵音脫盡皮毛顯法身。

江陵縣尊請對封君唐耕留先生靈小參

師云涅槃生死等空花觀體承當豈在他積德存仁終有益傳家治國玉無瑕嗚呼所歎者無別花開終有卸果熟必逢時熱鬧一臺戲酒罷各分離光陰如過隙豈肯暫停遲日月急箭射辰宿忙梭飛百物催人老迷流總不知請書安頭上催帖挂兩眉眼耳俱通信四肢強撐持忽想長生方丹鼎藥不齊不求明師指那得火棗梨若還不受老閻氣看破凡情了覺知獨我鄉翁則不然樂土相邀不肯去上方有詔豈能辭。

對都統穆書靈前小參

師云欽命出師到楚岳旌旗排列聽鳴角登舟正論進兵策一陣怪風捲浪潑急叫天兮天尚高速倚岸時岸遠闊四圍上下無遮攔西北東南無把捉一旦英雄歸洞庭太白重來將月摸大丈夫為國亡軀不須辭只要忠名有下落且道赤心報國穆書居士者一點忠心下落在甚麼處咦陣亡必入忠臣廟簪纓代代享名爵。

弔至崖法弟

一輪杲日正當陽卻被羅睺爭奪光日墜西山尚復舊水流東海不還鄉悲嗟操履一生苦泣歎奔馳幾度霜正好上灘船斷纜中途圓寂可憐傷。

一片浮雲掩太陽霎時閉目斂神光無心思去涅槃樂有意想回歸故鄉可憾光陰雲過隙不由自制日溶霜雖然留得人天眼令此傍觀淚雨傷。

回川抵萬縣掃本師敏老人塔(時癸亥十月也)

設供舉哀拈起香云此瓣香葉瘦枝疏乃是應師涅槃之兆幸得根深蒂固胤培法裔永遠綿長花繁子廣處處牽枝引蔓各方行化滇黔吳越梁唐只圖因緣廣集雲水高曠那想淵源桂樹遞代傳芳進孝的何辭千山萬水披星遙涉進忠的豈懼劍樹刀山直下承當不忘根本者無非設像供真就堂禮拜那肯特來塔前奠茶炷香道澄雖不能別有儀獻但存一點至誠一片心塔前一了現前寸心二留人天標榜此所云由近代以來亂枝亂倫尚多不忠不孝甚廣凡為孝順弟子者三年五載必掃師塔若不近塔瞻禮惟恐後學效尤縱不如百丈守塔三載之誠若從萬里遙來爇片心香如同侍師千古增光奠茶執杯云福恩堂上荷擔來橫按昆吾不用猜縛虎擎龍顯巨手呼風喝雨露雄才芳芬萬葉枝枝茂花發千層朵朵開遁隱抽身不足妙尸解脫殼羨奇哉假形即此留蹤跡真妙何方葆聖胎三不道老茶二獻金牛齋一炷心香燠寶塔兩行珠淚灑塵埃但願吾師慈忍力他方化遍復重回大展九首起具大哭三聲大笑三聲而退。

夔府開元寺弔繼初法弟

塔前云繼初法弟聞名高貴拄杖撩天腳跟著地本性如如無來無去試問大眾既道者一點妙覺圓明本無來去且道繼初真如即今向甚麼處以拄杖一卓云虛空裏包涵太山大海中不納死屍雖然如是何水無魚何公無私化錢。

萬縣天圓寺弔耳獨法兄

塔前云錦江獨駕一慈航纜繫天圓渡十方正在當陽緊著力忽然波起被風狂牢把舵任汪洋何其撒手太愴忙兄以一般斂目去拋弟有言沒處商量同參日不由淚雨洸。

交水龍華寺弔余山法兄(時甲子仲春也)號知止

塔前云法兄和尚無端行狀生長蜀中出世滇上志大心粗眉高眼曠作事垂古說法嘹唳碁逢敵手絲毫不讓法無親疏棒有收放嘆真我黃蘗之雄宗永挂滇黔作榜樣再出一人似法兄滇裏狐群盡掃蕩。

回川三月過坪壩天臺山弔月峰法姪(乙丑)

靈前云天湖法子老僧姪一世清高無垢跡終雖不免者條路石火電光何太急惱恨日月特無情強把光陰來煎逼正好安心過歲年誰想綾羅剪就尺來時抵膝談家常轉則諱名紙上立傷嗟歎淚雨滴仔細思量真可惜癡心枉打萬年椿一息不還有甚益不若幹些本分事大限臨頭有敵如風月過窗隙月晦風消何所值酒完戲罷一場空從頭看起毫無實。

重慶府觀音寺為迴超對靈

師云戒未精兮禪未參兩頭打失中間瞞一生辛苦慮衣食枉自奔波履底穿積錢被人騙討徒誰的蠻蒙頭過天日癡心太愚頑真乃僧中俗漢子看破不值半文錢為僧不辦修行理枉住伽藍三寶前木彫泥塑有靈氣銅鑄鐵瀉尚知虔千年頑鐵難溶化六道四生任往還老僧知你貪心重高大一堆黃白錢拿去閻君買轉命再來三寶賺些錢真好笑又可憐不明宗眼豈算男。

溫江縣尊王封君靈前小參(時乙丑十月二十日也)

師乃云三界猶如客寓樓任憑寄住幾千秋上方有詔上方去樂土相邀樂土遊即若王公百事足榮華富貴毫無謀進忠可論撞碑士行孝能超扇枕流忠孝進恩已酬看罷浮塵如夢幻不如退隱樂天兜舉杖示眾云見麼封君老大人現大神通至山僧者拄杖頭邊聞法歡喜點頭三下笑三聲逍遙自在去也且問老大人笑箇甚麼點首者觀大地迷悟眾生沉溺苦海之中不求出身不知苦到何時笑者笑此世間有一般橫漢站在貢高我慢山兇暴暴氣昂昂堅執名利不肯放捨將來他日不知如何下落逍遙快樂去者自思子孝孫賢家門高貴聯芳千古瓜瓞綿綿百事俱備所以放心撒手逍遙自在去也試問大眾封君老大人即今向甚麼處去以拄杖一卓云大人去處不同凡接引直登上品蓮耳聽梵音眼見佛六根通暢佛齊肩復勸諭云大護法思親不可太過宜當保重為貴再聽山僧一頌太君辭世正其時積德存仁後有餘作宦無非天上客為官豈可是凡黎功勳浩大祿全備施濟寬洪福滿齊奉勸賢臺身保重百年是必要分離。

弔耆老大相葉奕

幻世分明如醉夢睜開眼看沒些用五行生旺有長短八字休囚無接送綠水千秋不斷流青山亙古豈搖動非兒忤逆別雙親運退時衰遭鬼弄剪就

綾羅恨尺短哄騙爹娘肝膽痛長歎一聲留不住深恩自有兒孫奉貴賤短
長前定修生死輪迴原不共。

[邱-丘+牟]縣玉泉寺弔其白法弟靈(庚午仲冬也)

云先精戒律後興禪仁讓謙和理事圓正好撐舟渡苦海何其像早取安然
到安養速請還末運眾生多懊惱再來濁世化愚頑。

崇寧聖像寺弔滄水法弟

乃云崇寧正欲鼓風聲魚不吞鉤水面混荊棘層層難駐腳不如退入涅槃
城虎形可遇鶴聲難聞達磨若不抽身早三番毒藥倒埃塵。

新繁龍藏寺弔大朗法孫

孤俊撐天拄一莖遙聞摧折痛傷神增洪祖道尚稀少已是他非剩有零失
望許多新發意拋離無限舊知情慈航撥轉他方化龍藏惟留千古名。

十方縣羅漢寺弔雲林法侄

百卉叢中一棟梁撐天著地勝高強有為作用世堪羨無相福田本分粧時
節到來風送月化緣已竟日溶霜斂心樂意歸安養復應娑婆普放光。

書問

附敏和尚原翰云合掌上空谷上人昨者過高坪會墊邑眾善人以酬昔日
之供養也偶至寶剎每問行蹤令徒言及出川未得一晤特發門人及封居
士來接倘上人不辭山川之遙可速回一晤。

師復書

決造雙桂叵奈水陸兩阻早知山即是土何必騎牛覓牯讀罷來翰想老師
求嗣之心仁慈太過也某甲急欲趨座唯恐般若緣分素薄難以向近爐錘
略陳一二問頭敢求明示諒和尚必不堅拒也俟往雙桂返楫即當赴聆提
誨不一。

敏和尚復啟

昨接翰言足見愛法之心甚重也老僧無不悅之但欲青山綠水同一受記想闍黎千古之下欲為人範也得回七星自當如願其佳貺盛齋感謝不盡外有問答機緣照依復上。

問佛未出世祖未西來誰是凡聖答仁者自生分別問一切含識皆具佛性為甚麼辨個凡聖答迷時三界有悟後十方空問三教既一理儒著有玄著空釋著不空不有誰非誰是答說盡千般巧終無兩樣風問萬別千差向一念而無念時如何答截斷葛藤問忽然無一物萬象絕形蹤時如何答覓他起處不得問大事未明如喪考妣大事已明如喪考妣既一了百了還憂箇甚麼答只為放不下問橫身俱是手眼盡法界化為極樂還有眾生也無答誰是凡聖問者段風光人人本有箇箇不無又道師師相授祖祖相傳不知傳箇甚麼答不從花下過怎見洞中天問天地未分乾坤未判向甚麼處安身立命答掀翻漆桶八面玲瓏偈曰窮源得處未為玄怎似黃花滿道邊昨夜淵明窺徹後誰知留與箇中傳即日書付法偈偈曰西天東土何人補濟北家聲傳亙古今日老僧付一枝一花開遍乾坤普。

遵義府海龍山謝法

上堂問般若門一塵不立有問即是無問即是師云臨濟一枝正法眼進云有無不立如何師云而今付在闍黎邊進云將來佛法如何撐持師云棒頭打人疼乃云建法幢立宗旨須是出格人方明宗門事要知宗門事還他出格人今朝不意空谷禪人特來古龍謝法陞堂說幾箇海上奇方湯頭以療天下人病根老僧自揣從來不開生藥舖單單豈賣死貓頭只好說些家常以為宗門捷徑學道先須有悟由猶如爭鬥快龍舟雖然舊閣閒田地一度贏來方始休是也今所說者無別蓋緣我萬峰老和尚有未了公案出來與諸人了卻如何是未了的公案以拄杖豎起云莫道是者箇麼若論者箇正法眼藏已付與吾徒空谷禪人而為佛祖慧命臨濟正傳而成千古手眼也大眾若向者裏會得東勝神洲打鼓西牛賀洲上堂南[貝*善]部洲說法北俱盧洲下座僧以坐具打一圓相云既然如是亦任橫行直舞去師云驚群敵勝真獅子具眼還他大丈夫下座辭行復書手卷一通云者箇大事非是小緣必有根器者承當豈偶然也自我少室一花五葉之記而至南華負石印心代代相傳必是久經鍛煉久經操履然後擴而充之極盡天下之妙則不枉佛祖之苦心也今海內紛紛乘虛接響者如麻似粟皆是不明宗門正眼者老僧捩轉關頭須是有根器人荷負曹溪正脈今吾徒空谷雖歷參諸方而未服其行解結茅林下掩關多年而苦心苦志未曾放下衲僧世業真松柏經于霜雪而耐于歲寒也客歲偶參老僧見其不巧不拙因茲印可一任打風打雨出老僧正眼也由是異日為臨濟血脈則天下人望子之道如渴人思其甘露矣囑囑。

附敏老人送衣書

向年萬峰老和尚送來祖衣一襲與老僧披著說法多年兼且同歷烽煙不忍捨離然而老僧門下人多尚未送衣今特遣天吼送與吾徒代勞是佛祖之有望也囑囑。

師拈一頌以謝云自愧報恩無一些仁師千里送袈裟烽煙日久難堪受披著多年付作家不忍捨離焉望捨未曾誇贈敢求誇續傳遞代須如是惟冀十方播雨花。

附吼兄原扎

曩者與禪弟襟分兩地不覺三秋也昨高侍至方知大闡宗風於三巴度生無量得誦佳錄果與諸方大不同錦繡不繁機鋒峭峻真過量人也斯時老人命送法衣稍遲即來奉賀。

師拈一頌云因途寫隔翰音稀敢望禪兄親送衣信口說來荒作錄隨緣道出成機何當過量分強弱只得人前鼓是非幸有一莖硬拄杖法幢未挂尚風威。

復順承王爺千歲啟(康熙十九年孟冬也)

靈山記荊何幸盛京若合符節荆南重逢仰仗開爐法雨流通龍入滄海豈知世外暴風暴雨虎歸深山那曉人間幾駭幾驚送別回川行至路途險阻難進結茅遠安欲想恭候路隔千山幸小徒德旺山東來省老衲兼接奈何掃塔孝義未曾周備屈他上京問候相敘情懷一段只待事畢再來同敲佛祖鉗錘是則是但不知王爺做工夫近日有些深進新悟頭者麼若無日子莫將空過去光陰過隙豈停留若有宜當腦後重添錐佛祖深恩是必酬呵呵休怪老僧徵著問恐負靈山付囑由若得流通正法眼仁君敕賜賴王候。

復工部郎中擎安德禪居士

盛京一別迢迢山水漸遠要得重逢無非毛楮相通德望來云居士敬望之心甚重未赴誠意回川掃塔全忠亦為先師語錄刻行入藏正脈聯芳續燄傳宗北直賢徒老僧千古有望宗風大振放光須照芙蓉末後一著老僧沒箇安居之地語錄一事能者刻藏流通若肯留心入藏如吹灰之力倘不介意望頒行者似對月談空。

空谷道澄禪師語錄卷終

人門俗真錄貲捐

參德

然灼

柱圓

成圓

惺圓

穩圓

閣明

亮智

全圓

便圓

觀圓

來圓

玉祖

意祖

祥宗

悟明

定明

智祖

慧祖

諦德朱

信德謝

宗德高

有圓戴

法圓劉

穩圓葉

昇圓

純定郭

種德余

妹李

伺思張

春長鄧

識日吉四月閏酉乙次歲年四十四康熙

(嘉興王雲瞻書 楞嚴寺藏房倪爾繩刻)

CBETA 贊助資訊

[.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CBETA 成立於 1998 年，於 2023 年 8 月 7 日轉型成為基金會。成立多年來，一部部佛典在嚴謹控管中轉換為數位典藏，不只數量龐大，而且文字校訂精確可信，又加新式標點方便閱讀。「CBETA 電子佛典集成」不僅獲得國際學界的重視及肯定，也成為大眾廣為運用的公共資源，如此成果都是在廣大信眾及有識之士的支持下才得以實現。

對一個從事佛法志業的非營利團隊，能夠長期埋首理想、踏實耕耘是非常不容易的。如今，CBETA 運作經費日漸拮据，但「佛典集成」仍有許多未竟之功。因此，懇請大家慷慨解囊、熱情贊助，讓未來有更多更好的電子佛典。

您的捐款本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 netiCRM 及 NewbPay 藍新金流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不管您持有的是國內或國外卡，所有捐款最終將以新台幣結算，所以我們所開立的捐款收據也將以新台幣計。

線上刷卡支持定期定額與單筆捐款。（銀聯卡不支援定期定額）

[前往捐款](#)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 5 0 4 6 8 2 8 5

戶名: 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 請特別註明, 我們會專款專用。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 CBETA 引用其服務, 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 由於付款幣別為美元, 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 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 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For donations by check, please write the check to
"Comprehensive Buddhist Electronic Text Archive
Foundation".
